



8

1993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3. 8호

(루계 550)



## ◆◆◆◆◆◆◆◆◆◆ 차 례 ◆◆◆◆◆◆◆◆◆◆

로동계급주체의 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는것은	
우리 문학앞에 나선 중요한 문제.....	4
우리의 환희.....	6
력사의 목소리.....	7
명문고개.....	8
명언.....	11
백가지 도술.....	12
구내산에 새들이 날은다.....	13
그대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13
<b>김정일</b> , 그이는 향도의 별.....	14
온수평.....	14
불멸의 송가.....	15
하얀 차돌.....	19
만경대고향집앞에서.....	22
주체문학창작의 형상원리에 대한 백과전서적인 해명.....	23
나의 시, 나의 삶.....	30
명제해설.....	33
수를 놓아요.....	33
정일봉에 비낀 화폭.....	34
흙밭이전투로세.....	36
내나라의 모든 산들에.....	37

세 멘 트.....	40
그 응심깊은 가슴에서 울려나는...	48
90 년대 로동계급의 리지적성격을 옹계 살려	
소설의 지성도를 더욱 높이자 .....	49
병사가 거리를 지날 때.....	53
협의회가 끝난뒤 .....	54
이해의 봄 .....	59
좋은 날에 .....	60
별에서 살고싶은 계절 .....	61
지도에 새겨진 별 (외 2 편) .....	62
검은모루유적.....	63
위원장어머니.....	64
8 월의 노래 .....	70
고개길에서 .....	71
량심에 대한 생각.....	73
아 들 .....	74
이 봄날 그대는 오네 (외 1 편).....	79
분 단 절.....	80

## 로동계급주제의 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는것은 우리 문학앞에 나선 중요한 문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영화예술 부문 창작가, 예술인들이 창작공연한 경희극 《한마음 한모습으로》를 보시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앞으로 로동계급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를 많이 만들데 대한 강력적과업을 제시하시고 그 형상창조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형상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강력적과업은 영화예술뿐만 아니라 우리 문학예술의 모든 형태들에서 철저히 구현하여야 할 임무인 동시에 우리 문학에서 당면하게 해결하여야 할 전투적과업이다. 로동계급주제의 작품창작은 사회주의문학예술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원칙적문제이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은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로동계급에 의하여 창조되고 발전되어나가는 로동계급의 문학예술이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이 로동계급의 문학예술로 되는것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을 로동계급의 사상과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킨다는것을 말한다.

현시기 우리의 문학예술에서 로동계급주제의 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하는것은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에 더 잘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로동계급을 형상한 작품을 창작하는것은 현시기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설고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혁명은 안팎의 원수들의 책동으로 하여 매우 복잡하고 첨예하다.

우리 나라에 조성된 혁명정세는 우리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속에서 우리의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어나갈것을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에서는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로동계급주제의 작품을 많이 창작해야 한다.

로동계급주제의 작품을 많이 창작해야 하는것은 또한 근로자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논다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이런 조건에서 지주, 자본가의 착취를 받아보지 못하고 우리 당의 품속에서만 자란 혁명의 3세대, 4세대들 속에서 혁명교

양, 계급교양을 잘하지 않으면 그들속에서 혁명화되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날수 있다. 그러므로 사상예술성이 높은 로동계급주제의 문학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 그것을 통하여 그들을 혁명의 령도계급인 로동계급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우리의 로동계급처럼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전사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혁명적으로 단련시켜야 한다. 또한 그들을 로동계급적관점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이 모든것을 로동계급적립장에서 보고 판단하며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로동계급의 혁명적원칙을 견결히 고수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주제의 문학작품을 많이 창작해야 하는것은 또한 문학예술부문에 주체를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도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문학작품창작에서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조선혁명의 리익에 맞게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와 비위에 맞게 문학작품을 창작한다는것을 말한다. 바로 여기에 우리 문학의 본질적특성과 우월성이 있다.

이것은 결국 우리 문학이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 혁명의 리익,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 더 잘 이바지할수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사회주의문학은 철두철미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 이바지할 때에만 생명력을 가진다. 그런데 우리의 문학창작에서는 장편소설 《철의 신념》, 《빈터우에서》, 《탄부》 등이 이룩한 사상예술적성과를 평가하는 작품들이 나오지 못하고있다.

그러면 현시기 로동계급주제의 작품창작에서 주목을 돌려야 할 사상미학적문제들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하는 문제이다. 90년대 로동계급의 전형적성격창조문제는 90년대에 들어선 우리시대 자주적인간들의 성격적특질에 관한 문제인 동시에 가장 평범하면서도 숭고하고 가장 영웅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인간에 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90년대 자주적인간의 전형적성격을 떠나서 우리 시대의 그 어떤 숭고하고 영웅적이며 아름다운 인간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그 사상미학적감화력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90년대 인간들의 사상정신적특질은 격동적인 사변으로 들끓고있는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자체의 미학적본성인 동시에 우리 인민들의 미적리상의 요구와 지향의 반영이기도 한것이다. 자주시대의 리념과 존엄을 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90년대 인간들속에서 가장 전형적이며 본보기적인 인간들은 언제나 우

리의 로동계급이며 그들의 평범하면서도 영웅적인 투쟁에서 가장 숭고하고 영웅적이며 아름다운 인간들을 보게 되는것이다. 천리마시대로 특징되는 1960년대와 그후 70년대, 80년대를 이어 90년대에 들어선 오늘의 우리 시대 인간들이 결코 지난 시대와 년대들에 산 인간들과 같을수 없으며 또 생활도 같지 않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90년대로동계급의 성격적특질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주목을 돌려야 할 문제는 90년대라는 이 력사적이며 격동적인 시대의 현실과 그속에서 살며 일하는 인간들의 정신도덕적풍모와 그들이 누리고있는 오늘의 생활로부터 시작해야 하며 그것이 출발적전제로 되여야 한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혁명은 참으로 중요한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90년대에 우리 인민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과시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위훈을 새겨가고있다. 여기에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의 참모습이 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의 정신도덕적풍모는 일찌기 그 어느 시대와 년대들에서도 찾아볼수 없었던 새로운 높은 경지에 올라서고있다. 수령, 당, 대중에게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90년대 인간들의 아름다운 소행과 미거가 전국적판도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있는 사실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있다. 90년대에 사는 인간들속에서 형성되고 발현되는 이와 같은 새로운 정신도덕적풍모의 중요한 특징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것을 가장 신성한 혁명적의리로 본분으로 여기는데 있다. 이것은 90년대 로동계급의 성격적특질에서 기본핵이 바로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라는것을 말해준다.

90년대 우리의 로동계급의 전형적성격에서 말하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더 높은 경지에 올라서고있다. 그것은 수령에 대한 로동계급의 충실성이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된 충실성이기때문이다. 이 점에서 지난 시기에 말하던 것과는 질적으로 구별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하는 바로 여기에 90년대를 대표하는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전형적성격의 참다운 면모가 있다. 따라서 우리 문학에서는 90년대 로동계급의 전형을 창조하기 위하여 수령에 대한 우리 로동계급의 끝없는 충실성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의 견지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추구하고 예술적으로 천명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90년대 로동계급의 전형적성격창조에서 주목을 돌려야 할 문제는 우리 시대, 로동계급이 지니고있는 영웅적성격을 잘 그리는 문제이다.

90년대의 우리 사회는 로동계급을 비롯하여 우리 인민의 대중적영웅주의가 사회의 모든 성원

들을 다 영웅으로 되어나가게 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한다는것은 개인의 리익이나 공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한다는것을 말한다. 우리 시대 로동계급은 주체혁명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시대의 영웅들이다. 그들은 미제와 제국주의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이 극도에 이른 침체한 정세하에서도 오직 사회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라는 구호밑에 날에 날마다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대중적영웅주의의 창조자들이다. 소박하고 평범한 보통 인간들이지만 로동계급으로서의 계급적자각에 기초한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소유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기적과 위훈을 세워나가고있다. 그들에게는 개인의 리익이나 공명이란 있을수 없으며 오직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그 어느 계급들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높으며 또 가장 혁명적이고 영웅적인 계급으로 된다. 90년대의 오늘의 현실은 우리의 문학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로동계급의 빛나는 전형들을 무수히 배출하고있다.

90년대 로동계급의 전형창조에서 주목을 돌려야 할 문제는 또한 90년대 우리 로동계급이 체현하고있는 높은 지성세계를 잘 그리는것이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과 온 사회의 인테리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과학기술이 비할바없이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있는 90년대의 현실은 우리 로동계급의 문화수준과 문명정도를 그대로 표현해주고있을뿐 아니라 그것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힘있게 선도하고 지향시키고있다. 이것은 90년대 우리 로동계급이 체현하고있는 높은 사상성, 조직성과 함께 문화성은 오늘의 우리 로동계급의 높은 지성과 문명정도, 고상한 사상정신적높이를 규정해주는 근본척도로 된다. 그리하여 오늘의 우리의 로동계급은 노동자, 생산자일뿐아니라 높은 과학기술지식과 풍부한 문화정서적소양을 가진 자주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인간으로 되었다. 이것은 해방후 민주건설시기나 전후복구건설시기, 사회주의개조시기 내세웠던 로동계급의 전형들이 그때로부터 상당한 세월이 흘러간 90년대에 내세워야 할 로동계급의 전형과는 그 의식수준과 기술문화적소양, 지성세계의 높이에서 질적으로 달라야 한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작가들은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우리 당에서의 도하는 로동계급주체의 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 우리의 환희

정성환

8월의 밝은 햇빛아래  
무심한 창문들도  
오늘은 눈부시게 빛나고  
주체사상탑 봉화아래 솟구치는 분수도  
하얀 물비단을 더 멀리 날리는  
이 보름날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일하는  
이 땅의 웃음과 기쁨을 다 싣고  
빨갛고 노란 쏘대들도  
출렁이는 물결위에 꽃잎인듯 떠가누나

하늘도 밝고  
땅도 밝고  
표정도 마음도 다 밝고 명랑한  
이 땅 이 사람들  
노래에 넘치고 춤에 넘치는 이 생활에  
환희의 분수인양 내 노래도  
사랑넘친 이 땅에 터치는 행복이여

억누를수도 흐릴수도 없는 이 환희  
우리 말을 빼앗았던  
일제의 단말마적 비명을 눌러덜고 샘솟은 환희  
민족의 존엄과 넋을 결박했던  
압제의 죄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 수령님 안고오신 환희

참으로  
참으로 고귀한 우리 생활의 환희여라  
그래서 마음껏 삶을 누리는  
주인된 인민의 생명인  
값높은 사회주의 생활이여라

이 생활밑에는

아홉살에 생을 바친  
아동단원 소녀의 불타는 심장이 고여있고  
남의 집 울바자밑에  
사랑하는 자식을 떼어둔채  
총을 잡고 백두산으로 들어간  
녀인들의 비분의 눈물이 있다

정녕 우리의 행복한 생활은  
우리 수령님  
이 나라 아들딸들을 항일전에 불러  
눈바다 피바다를 헤쳐오시며  
한몸으로 다 겪으신 아픔과 슬픔  
아버이의 그 자옥우에 꽃피나지 않았던가

하기에 소중했노라  
해방의 그 환희와 함께 꽃핀  
우리의 생활은  
하기에 또다시 침략의 불길에  
이 땅을 휩쓸어도  
누구나 목숨으로 사수했노라  
제 2해방의 날로 지켜냈노라

그처럼 값높은 생활이기에  
그것은 우리의 생명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모시였기에  
더더욱 찬란한 태일을 내다보는  
사회주의 우리의 생활이다

아, 다시는 다시는 이 환희로운 생활에  
한점 그늘도 던질수 없어라 그 어떤 원썬도,  
승리와 영광의 마흔여덟번째  
자랑찬 년륜을 새긴 이 땅우엔  
영원히 사회주의 밝은 창가에  
인민의 행복한 웃음소리 넘쳐흐르리라

# 력사의 목소리

리수원

조국의 복변 수림속  
사람들의 발걸음 그칠새 없는  
여기에 있었구나  
푸르른 나무에 새긴 글발  
걱정을 안고 터친 그날의 목소리가

- 항일명장 **김일성** 장군  
조선의 대원수

아, 뜨거워라  
그이를 대원수로  
온 세상이 환호하는 이 시각에  
저 글발을 바라보는 눈길들이  
그날의 목소리를 듣는 마음들이

민족의 태양으로 솟아  
재생의 광망을 뿌리시던 그이  
삼도왜적 쥐락펴락하시던  
항일대전의 명장  
그이를 우러러  
광복의 러명비긴 이 수림속에서  
투사들이 새긴 글발이었거니

좌아-  
무성한 나무잎새의 설레임소리  
푸른 하늘가에서 들려오는  
력사의 목소리  
**김일성**, 우리의 장군은  
반세기전 그날에  
이미 항일의 대원수, 조선의 대원수!

저 글발을 새긴 투사들이  
전쟁의 불을 지른 침략자를  
락엽같이 쓸어버리시고  
전승의 광장에 높이 오르신  
그이를 우러러 터친 환호는 무엇이었던가

아, 흘러온 반세기  
세계력사는 동란속에서 깨달았더라  
그이의 안광 한번 스치면  
호전광들이 숨을 죽이고  
그이의 손길 한번 추켜오르면  
조선을 따라서는 전세계의 움직임

인류의 태양으로 솟아  
세기의 하늘에 빛나시는 그이  
제국주의의 마지막 숨통을 조여가시는  
세계 단 한분의 백전로장  
그이를 우러러  
혁명하는 인민들이  
반제전선의 승리를 이룩해가나니

좌아-  
무성한 나무잎새의 설레임소리  
대양을 넘어 대륙들에서 들려오는  
력사의 목소리  
**김일성**, 그이는 장군중의 장군  
그이는 명장중의 명장  
그이는 대원수중의 대원수!

《막상 길을 떠나고보니 여러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가야 할 천리중 500 리이상은 무인 지경이나 다름없는 험산준령이었다. 그 험한 산악들을 단신으로 넘는다는것이 혈치 않았다. 후창에서부터 강계에 이르는 길 랑령의 수림들에서는 대낮에도 맹수들이 어슬렁거리었다.

그때 천리길을 걸으면서 고생을 퍼그나 했다. 직고개나 개고개(명문고개)와 같은 고개를 넘을 때는 정말 혼이 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1) 중에서-

## 련속기행

# 명문고개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지명을 따라 걷는 기행은 전설의 길을 걷는 기행인 듯한 감이 들기도 한다. 오가산전설, 동두바위전설... 가는곳마다에서 우리를 맞아주는것은 《배움의 천리길》로정에 대한 갖가지 이야기들과 전설들이었다. 생각해보면 웅당한 일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토록 어리신 나이에 조국과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홀로 험산준령이 첩첩한 먼먼 천리길을 걸으셨다는 사실자체가 하나의 위대한 전설이 아니겠는가!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걸으신 불멸의 로정은 위대한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민족의 태양으로 길이 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가슴에 새겨져 수많은 전설을 낳았다고 해야 할것이다. 전설이란 무릇 인민의 소원과 지향, 념원이 담겨 태어나는것이다.

우리는 성간을 떠나 전천을 지났을 때 또하나의 전설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그것은 명문고개에 대한 전설이었다...

명문고개는 전천군 진평리와 송원군 명문리 사이에 있는 고개로서 적유령산줄기의 동북부에 해발 806메터로 솟아 장자강과 청천강의 분수령을 이루고있는 고개이다.

눈가는곳마다 참나무숲이 우거져있고 령마루에 올라가면서 분비나무와 잣나무, 참나무가 무성한 혼성림을 이루고있는 명문고개는 마흔두굽이에 달하는 40여리의 령길로 내륙의 남북을 이어주고있다.

옛날에는 고개의 이름이 명문고개가 아니라 개고개였다. 고개가 하도 가파롭고 높아서 고개너머에 사람이 살고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느 하루 개가 한마리 넘어온것을 보고서야 사람이 산다는것을 알고 넘어다니기 시작했다는데로 유래된 이름이었다. 또한 넘어다니기가 너무도 힘겨워서 넘는 사람마다 땀줄눈의 고개라는 뜻에서 《개같은놈의 고개》라고 저주를 퍼부은것이 그대로 이름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명문고개는 장자강과 청천강의 분수령일뿐아니라 생활령역에서도 분수령이었다. 고개너머 북

쪽은 산골로, 고개의 남쪽은 벌방으로 인정되었다. 하여 명문고개 북쪽에서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명문고개를 넘어보는것이 하나의 소원처럼 되어있었다고 한다. 이런것으로 미루어보면 명문고개를 한번 넘는다는것은 적지 않은 용단을 필요로 하는 하나의 사변과도 같은것이였음을 알수 있다.

사실 이 고개를 넘어야 할 사람은 며칠전부터 준비하고 몇번이나 별려서야 떠나군했다고 한다.

바로 이 고개를 위대한 수령님께서 열두살 어리신 나이에 단신으로 넘으시여 《배움의 천리길》을 이어가셨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날의 자욱이 이 고개에 하나의 전설이 태어나게 했다.

명문고개에는 여러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그중 제일 높은것이 제인봉이다. 여름까지도 눈이 남아있는적이 있다고 하는 제인봉은 여러가지 이야기를 가지고있다. 1950년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때는 미쳐날뛰던 적 비행기가 제인봉마루에 부딪쳐 산산조각이 났다고 한다. 하여 표현력이 풍부한 한 젊은이는 《이놈들아, 제인봉은 이 나라 어디에나 솟아있다!》고 통쾌하게 부르짖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1950년대의 이야기이고 지금으로부터 70년전인 1920년대의 제인봉은 이고장 사람들이 날씨를 예견할수 있게 하는 청우제와 같은 대상으로 되어있었을뿐이었다. 이를테면 제인봉에 어떤 색의 구름이 어떤 모양으로 걸려있으면 며칠동안 날씨가 나쁘다던가 눈비가 내린다던가 하는 그러루한것이였다.

지금은 현대적인 기상관측기구나 인공위성으로 과학적인 일기예보를 매일 들을수 있게 되여 그 시절의 목측에 의한 예보의 비결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쉽게도 찾아볼수 없게 되었으나 그 《일기예보》가 오랜 세월의 경험이 축적되어 이루어진것으로써 틀림없이 맞아떨어지군했다는것만은 반드시 부연해야 할것 같다.

《전설》에 의하면 1923년 3월하순경 음력으로 2월초엿새날 제인봉마루에는 적어도 사흘이



상 질게 흐려 진눈까비가 내릴 날씨를 확정적으로 예고해주는 구름이 걸려있었다고 한다.

그런 때면 사람들은 대체로 제인봉이 예고해준 날자만큼 묵어서 고개를 넘는것이 통례로 되어있었다. 고개길이 그토록 가파롭고 멀었던것이다.

그것은 변화시킬 도리가 없는것이어서 이날에도 진평과 고인, 명문의 객주집들에 들었던 길손들이 사흘가량 머무를 차비를 했던것은 물론이었다. 갈길바쁜 길손들과 로자돈이 떨어져가는 길손들은 앞을 막아선 고개와 날씨에 저주를 퍼부었다.

《개갈은놈의 고개에 개갈은놈의 날씨로군.》

그런데 이튿날아침 미리부터 오만상을 찌프리고 고개를 올라다본 길손들은 어리둥절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틀리는적 없었다는 《일기예보》와는 판판으로 고개우 하늘에는 구름이 없었고 굽이굽이 뻗어올라간 령길에는 해빛이 비치고있었던것이다. 천기에 귀신같이 밝다고 소문난 이고장 늙은이도 놀란 눈으로 올라다보기만 하였다.

《이런적이란 여태 없었는데...》

사실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고개밑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이래 수백년이 흐르도록 있어본적 없었던 바로 이 이상한 날씨로 하여 전설이 생겨났다...

제인봉우의 높고높은 하늘, 너무도 높아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높은곳에 하늘나라의 임금님이 살고있었다고 한다. 그는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망망한 하늘나라와 함께 굴곡많은 땅나라를 보살피면서 옥좌에 앉아있었다.

그런데 어느 하루 임금에게로는 땅나라에서 보낸 상소문이 올라왔다. 개고개라고 불리우는 고개가 보낸 상소문이었다.

《읽어보아라!》

상소문은 꽤 길었는데 기본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것이였다.

...저는 여덟 산이나 고개들처럼 푸른 초목과 갖가지 꽃, 그리고 맑은 물도 갖추고 인간세상에 태어난 고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를 두고 개고개라고 부르웁니다. 인간세상에 태어났으면 웅당 인간다운 이름을 가져야지 네발가진 미물의 이름으로, 더우기 추한것과 이웃하는 미물의 이름으로 불리우는것이 억울하웁니다.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개고개로 불리우며 살아가기는 참으로 부끄럽고 참을수 없는 일입니다. 저로 하여 금수강산이라는 이름에 한점의 흠이 생기는것 같아 더욱 가슴아프웁니다.

부디 널리 통찰하시와 저에게서 개의 루명을 벗겨주고 인간세상에 태어난 산천다운 이름을 주시던가, 그럴만한 존재가 못되오면 저를 금수강

산에서 먼 다른 땅으로 쫓아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략 이러루한 내용이였다.

바라는바가 여간만 간절한것이 아니여서 하늘나라 임금은 어지간히 감동되었고 조금 놀라기도 했다.

금수강산이라면 하늘임금도 역시 알고있었다. 넓은 땅나라에서는 가장 아름다운곳이였다. 그래서 인간세상에 놀러내려갔던 여덟명의 딸들중에서 한 딸은 아예 그곳에 떨어지기까지 하여 크게 하늘임금의 노여움을 산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선경도 당할수 없을만큼 아름답다는 금수강산에 개고개라고 할만큼 흉한 고개가 있었단말인가. 쉬이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임금은 신하들을 둘러보았다.

《어찌하여 개고개라고 부르게 되였는고?》

땅나라 여러곳에 이름붙이는 일을 맡은 신하가 얼른 무릎을 꿇고 대답했다.

《그 이름은 소신이 붙인것이 아니웁고 인간들이 개갈은놈의 고개라고 저희들끼리 붙인것이웁니다. 고개가 하도 더럽고 쓸모없어 그렇게 부른줄로 아웁니다.》

무릇 신하들이 많고보면 그중에는 제구실 못하는 신하도 있고 자기소임을 게을리하는 신하도 있기 마련인데 하늘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양이다.

하늘나라 임금은 이마를 찌프렸다.

《그러나 그 고개는 자기가 다른 산이나 고개들과 다름바없이 아름답다고 하지 않았는고?》

《세상의 어떤 미물도 제모양은 곱다고 생각하는줄로 아웁니다. 지렁이도 제모양을 뽐낼 때가 있다하웁니다.》

게으른 신하는 죄를 덜려고 분주히 발명했다.

임금은 머리를 끄덕거렸다.

《그럴수도 있겠다. 허나... 상소를 받은 이상 고개를 한번 내 눈으로 봐야겠다. 정말 쓸모없고 더럽게 생겼다면 이름을 고쳐줄 필요없이 금수강산에서 떼내여 저 멀리 사막이나 진펄만 있는 나라에 가져가도록 하자. 금수강산에서는 제일 보잘것 없었던것도 그 나라에 가면 제일 보기 좋은 것으로 될것이다. 그러면 그곳 인간들이 좋은 이름을 줄것이고 고개의 소원도 풀어주는것으로 될것 아니냐?》

신하들은 일제히 머리를 땅에 대고 합창으로 그런 때에 하게 되어있는 말을 했다.

《천만번 지당한 말씀인줄로 아웁니다.》

임금에게는 옥좌만 천천히 돌리면 아무리 먼곳이라도 사면팔방을 다 굽어볼수 있는 눈이 있었다.

신하들은 열심히 옥좌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개고개는 인차 눈에 띄지 않았다. 게다가 땅의 모든것이 안개에 덮인듯 뿌옇게 보여 임금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어찌된 일이고? 왜 개고개가 보이지 않는고?》

그때 한 신하가 개고개는 금수강산에 있을즉 바로 옥좌의 아래에 있을수 있다고 아뢰었다.

《음- 그렇단 말이지.》

임금은 옥좌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역시 고개는 보이지 않았다. 검은 구름이 짙게 서려있어서 땅이 내려다보이지 않았다.

《이 어인 일이고? 구름을 빨리 헤치지 못할가?》

임금은 점점 노하기 시작했다. 구름을 말아보는 신하가 황황히 달려나갔다.

그러나 얼마후에 돌아온 신하는 제신발에 이마를 연신 갖다대며 뜻밖의 사실을 아뢰었다.

《저 구름은 보통구름이 아니어서 소신의 힘으로는 헤칠수 없사옵니다.》

임금은 놀랐다.

《보통구름이 아니라는건 무슨 말이고?》

《저 구름은 우리 하늘나라에서 내려보낸 구름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물과 한숨이 피여오르며 서리서리 엉키어 만들어진 구름이옵니다. 인간의 눈물이나 한숨이란 <땅이 꺼진다> 고 할만큼 무거운것이어서 하늘나라의 힘으로는 헤칠수 없는 것이옵니다.》

짙게 서린 구름을 보며 임금은 탄식했다.

《한숨과 눈물이 얼마나 깊었으면 저런 구름을 이루었을고?》

개고개의 상소를 처리할수 없게 된것이 임금의 수심을 더 깊게 했다.

《어떻게 하면 좋을것 같은고?》

《구름이 걷히기를 기다릴수밖에 없는줄로 아옵니다.》

허나 구름이 걷히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 할지 알수 없었다.

임금은 깊은 한숨을 쉬며 다시한번 탄식이나 할수밖에 없었다.

《아, 그러니 하늘나라에는 저 구름을 헤칠 힘을 가진 인물은 정녕 없단 말인가?》

어느 신하도 감히 제신발에서 이마를 떼지 못했다.

눈을 감으려던 임금은 다시한번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러자 그만 크게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짙게 서려있던 검은 구름이 칼로 베인듯 쭉 갈라지기 시작하고있었기때문이었다. 뒤이어 해빛이 내리비친 고개길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눈아래 펼쳐진 풍경에 임금은 경탄을 금치 못했다. 높고낮은 봉우리들을 감고도는 마흔두굽이의 고개길, 길 좌우에서는 참나무숲과 분비, 가문비나무숲이 설레고있었고 골짜기마다에서는 얼음장을 짓부시며 맑은 물이 소리쳐흐르고있었다. 만물상을 이룬듯한 크고작은 바위들, 물가의 돌들은 그대로 하늘나라에 올려다 깔고싶을만큼 깨끗하게 다스려져있었다.

임금은 저도 모르게 감탄했다.

《과시 금수강산에 있는 고개답도다.》

그는 얼마후에야 신하들에게로 눈을 돌렸다.

《저렇게 훌륭한 고개를 어찌 개고개라고 할수 있겠는가. 이제야 알게 된것이 아깝도다. 구름을 헤치지 못했으면 영영 모를번했도다. 누구의 공로인지 아뢰여라. 중히 상을 내릴터이니.》

그러나 대답하는 신하는 없었다. 서로 마주보기만 하고있었다. 구름을 말은 신하가 얼마후에야 떠듬떠듬 말했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우리 하늘나라에는 구름을 헤친이가 없소이다. 이것은 아마도 땅에 사는 인간이 한것인줄로 아옵니다.》

《인간이? 아니다. 어찌 그럴수 있단 말이나? 하늘의 힘으로도 못한것을 어찌 인간의 힘으로 할수 있단 말이고?》

그 사이에도 구름은 계속 갈라지고있었다. 남쪽으로 나가며 쭉-쭉- 갈라지고있었다. 그곳을 유심히 내려다본 임금은 다시한번 크게 놀랐다. 고개길로 열두어살 되어보이는 한 소년이 힘차게 걸어가고있는데 소년의 걸음에 따라 고개우의 구름이 헤쳐지고있는것이였다.

《저 소년은 누구이고?》

임금의 놀라움은 점점 더 커졌다.

《우리 하늘나라의 힘으로도 헤치지 못한 구름을 어떻게 저 소년이 헤치고있는고?》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처음은 하늘나라의 그 누가 도와주고있는것으로도 짐작해보았다. 그러나 모든 신하들, 지어는 불목데기까지도 모두 임금의 앞에 모여있었다.

한동안 내려다보던 임금은 드디어 머리를 끄덕저렸다.

《하늘나라의 힘으로도 못한 일을 하는 저 소년이야말로 땅이 낳은 위인이도다. 이제야 땅에서 위인이 태어났도다. 오늘을 모두 기억해두라.》

그러자 한 신하가 두툼한 책을 번지면서 이 나라에서 단군이 태어난지가 몇천몇백 얼마째 되는 해라고 아뢰었다.

임금은 머리를 끄덕저렸다.

《많고많은 세월이 속세에 흘렀도다. 내 요즘 땅나라가 잘 보이지 않기로 안질이 나빠진것으로 알았더니 저런 구름들때문이었도다. 땅나라 어데

나 짚고 열린 차이가 있을뿐 저런 구름이 서려있음을 몰랐도다. 단군도, 예수도, 불라도, 마호메트도 저 구름은 헤치지 못했도다. 그런데 오늘은 저 구름이 헤쳐지고있으니... 내 이제는 땅의 태일을 믿게 되었노라.》하고 그는 개고개에게는 다음과 같이 대답해주었다.

《너는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할만한 고개노라. 허나 너의 새 이름은 오늘 너의 우에 서린 구름을 헤친 그 땅의 위인이 지어주게 될것이다. 하늘나라에서 아무리 훌륭한 이름을 지어주어도 눈물과 한숨이 가시지 않는 한 너는 개고개로밖에 불리우지 못할것이다. 허나 오늘 땅의 위인이 너의 우에 서린 구름을 헤치기 시작했은즉 너에게는 아름다운 이름이 차례지게 될것이다. 그날을 기다리도록 하여라.》

이것이 명문고개에 생겨난 전설이었다. 이 전설은 퍼그나 오랜 세월을 걸쳐서야 완성되었다. 전설의 완성은 우리 나라 최근세사의 글줄과 일치한다.

1923년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과 더불어 밝아온 이 나라의 아침은 마침내 조국광복의 빛나는 아침으로 밝았고 고개를 넘나드는 사람들에게서는 한숨과 슬픈 눈물이 사라졌다. 눈물이 있다면 기쁨의 눈물, 상봉의 눈물이었다. 허나 그런 눈물은 맑은 이슬과도 같은것이어서 구름으로는 서리지 않았다.

고개길은 폭이 훨씬 더 넓어졌고 달구지가 아니라 뺨스와 자동차들이 달렸다. 그리고 여기에

서 이 나라 철도전기화의 첫 기적소리가 높이 울렸다.

고개는 《몹쓸놈의 고개》, 《개같은놈의 고개》로부터 행복의 고개, 기쁨의 고개, 태일어로 향하는 고개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고개를 돌아보시고는 개고개라는 이름을 버리고 명문고개라고 부르라는 교시를 주시였다.... 이렇게 고개의 《소원》은 실현되었고 전설도 완성되었다....

태고적에나 가능하고 현실은 수집정리하는것밖에 없는듯하던 전설을 다시 태어나게 하고 이 나라의 평범한 산과 강을 영원할 전설로 장식해주고 먼 미래에까지 전해질 명승지로 되게 한 수령님의 《배움의 천리길》로정, 그 로정에 대하여 말해주는것은 명마루에 서있는 너무나도 소박한 하나의 사적비이다.

그 소박한 사적비에서는 결코 많은것을 알아낼수 없다.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글줄처럼 끝없이 소박하고 겸허한 몇마디의 말이 씩여있을 뿐이다.

허나 연연 40여리의 령길을 눈여겨 살피며 과거와 오늘에 대한 사색을 더듬으면 글줄과 글줄의 여백에 더 많은 사연이 있는 회고록의 글줄처럼 퍼내고 또 퍼내도 마를줄 모르는 뜨겁고 감동적이며 영원히 전해질 이야기들과 전설을 매 굵이마다에서, 길에 깔린 자그마한 조약돌들에서도 읽을수 있을것이다!



《1928년 1월 15일 우리는 드디어 〈새날〉이라는 제호를 단 신문의 창간호를 세상에 내놓았다. 그때 무슨 정력으로 그 많은 글을 다 써냈던지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다. 그 시절의 혈기와 젊음이 그리워지는 때가 많다. 우리는 그때 자기를 혁명에 깡그리 바치는 거지에서 돌도 없는 행복을 느끼었다.

꿈도 없고 담력도 없고 열정도 패기도 투지도 랑만도 없는 청춘은 청춘이 아니다. 젊은 시절에 리상을 높이 세우고 그 리상을 실현하기 위해 만난을 무릅쓰고 완강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생신한 사상과 건실한 육체를 가진 청춘들이 피와 땀을 바쳐 가꾸고 이룩해놓은 모든 열매들은 조국의 귀중한 재부로 되며 그 재부를 이루어놓은 주인공들에 대하여 인민들은 영원히 잊지 않는것이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는것은 그때가 일생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할수 있는 시절이기때문이다. 일을 많이 할수 있는 때가 제일 행복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중에서-

## 백가지 도술

### 3. 갑자기 나타난 안개

장군님이 왕청일대에서 활동하실 때 있는 일이었다.

어느날 오후 왜놈들을 들이치신 장군님께서서 부대를 거느리시고 근거지로 돌아가고있었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곳에 주둔하고있던 이와다 《토벌대》는 이것을 알고 총출동명령을 내렸다.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고 이곳에 처음 온 이와다 《토벌》대장은 천재일우의 기회로 여기고 여름 한철 메뚜기처럼 날뛰었다.

본토의 대본영에 있던 이와다는 **김일성**장군님에 대해서 말만 들었는지라 어리석게도 이 기회에 한번 무공을 세워보려는 야심과 망상에 들떠있었다.

《토벌대》를 끌고 소북구방향으로 가는 밀림속에 들어선 이와다는 졸병들을 때려내몰았다.

얼마쯤 가니 밀림속에 방금 유격대가 휴식을 하고 떠나간 흔적이 나타났다.

불을 방금 죽였는지 불무지에선 아직 김이 실실 피어오르고있었다.

《빨리! 빨리!》

《토벌》대장은 졸병들을 자꾸 내몰았다.

그런데 아무리 가도 밀림속은 쥐죽은듯 고요하고 유격대가 지나간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김일성**장군부대는 승천입지 한다더니 정말 하늘로 오르고 땅으로 잦아든게 아닌가? 그제야 이와다는 버쩍 이런 의심이 생겼다.

이와다는 대본영에 있을 때 들은 **김일성**장군에 대한 말이 생각났던것이다.

이와다가 어쩔지 몰라 머뭇거리고있는데 척후로 나갔던 졸병 하나가 달려와 보고하였다.

《대장님, 저앞에 유격대가 간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좋다, 빨리 추적하라!》

이와다는 그러면 그렇겠지 하고 무릎을 치며 《토벌대》놈들을 다시 내몰았다.

얼마동안 달려가니 정말 유격대가 눈앞에 보이었다.

소리치면 들릴상심은 아주 가까운 거리였다.

유격대는 자기들이 추적하는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천천히 행군해가고있었다.

《좋아! 조용조용히 은밀히 추적하라!》

이와다는 목소리를 낮추고 참모장에게 명령하였다. 《토벌대》놈들은 승이 나서 추격하였다.

유격대와의 거리가 불과 잠바 두어기장쯤 되었을무렵 이와다 《토벌》대장은 포위망을 폈다.

앞을 바라보니 유격대는 자기들이 가까이 추격해온것을 전혀 모르고있는것 같았다.

**김일성**장군은 태연한 자세로 천천히 담배 한대를 꺼내여 불을 붙이는것이였다.

실날같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런데 바로 그찰나 갑자기 밀림속에 안개가 자오록히 켜졌다.

어찌나 안개가 진하게 켜던지 우유통에 빠진것같아 앞사람도 분간키 어려웠다.

왜놈들은 어디가 어딘지 몰라 방향을 잃고 헤매였다.

제놈들끼리 부딪치기도 하고 욕지거리를 하면서 소동을 피웠다. 《토벌대》에는 대혼란이 일어났다.

급해맞은 《토벌》대장은 척후대를 찾았다.

그러나 척후대인들 무슨 용빼는 수가 있겠는가.

한참만에 안개가 약간 실핏해졌다. 척후대는 그때에야 겨우 앞을 가늠하며 유격대가 간 방향을 찾아나갔다.

이때 어디선가 《땅, 땅》하고 총소리가 나더니 척후대가 모두 비명을 지르며 죽어넘어졌다.

이와다는 또 다른놈들을 척후대로 내보냈으나 그놈들도 길을 못찾고 총에 맞아 쓰러졌다.

도대체 어디에서 날아오는 총알이며 유격대는 어디에 있는가?

하늘에서 날아오는지 땅에서 날아오는지 온천지가 안개에 휩싸여 도무지 알수가 없었다.

장군님께서 담배를 피우시자 일어나는 조화를 제눈으로 직접 본 왜놈들은 퇴각하면서 비명을 질렀다.

《도술에 능하고 신술을 쓰는 **김일성**장군과 맞선다는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비명을 지른 이와다는 그후 다시는 《토벌》에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

장군님께서 연기를 피워 왜놈들을 혼란에 빠뜨린적이 있는데 아마도 그것이 전해지면서 이런 전설이 창조된것이라.

# 구내산에 새들이 날은다

권태여

땅거미 내리는 저녁  
고요를 깨치는 출강종소리  
누리를 태우는 쇠물빛...  
구내산 마루에 해가 뜨는가

밤하늘을 적시는 금노을속에  
푸드득 내려쳐오르는 새무리 새무리  
구내산 푸른 숲을 흔드는  
강철기지의 황홀경이어

해돋이에 잠깨던 새들이 아니다  
새벽이슬에 청둥구던 지저귀미 아니다  
아름다운 쇠물빛 조명속에  
기쁨의 룬무를 펼친 새들이다

불먼지 뜨거운 용해장에서  
로심을 바라보신 지도자동지  
꽃바람속에 쇠물을 뿜게 하자고  
용해공들을 아껴주신 어버이사랑

사계절 푸른 숲 설레는 구내산에  
금강의 폭포를 옮겨온듯  
명사십리 해당화를 옮겨온듯

명승의 일만경을 다 앉혀주셨나니

기쁨 겨워 날아예는 못새들아  
세상을 다 날아봐도 없으리라  
숲속에 용광로 솟은 내 나라  
꽃바람속에 쇠물 뿜는 이런 나라는

쇠물에 앞서  
용해장의 한점 불먼지를 두시고  
용해공들의 건강을 먼저 헤아리신  
자애로운 어버이 **김정일**동지

따사론 사랑의 그 해빛  
밤에도 지지 않는 태양이 되어  
누리를 달쿠는 철의 고장  
그 은정 읊조리고싶어 솟구치느냐

아 쇠물빛에 정들어 함께 사는 새들아  
밤모르는 출강의 노을속에  
강철로 조국을 섬기는  
용해공 대답을 하늘가에 새기여라  
온 세상이 다 들도록  
내 목청껏 노래불려라

가사

## 그대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문기창

그대는 그대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인생의 꽃시절 앞날의 희망인가  
아 어머니당의 부름에  
바치는 심장 그 심장 나는 사랑해

그대는 그대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봄날의 꽃길에 맺어진 정이런가

아 어머니 당을 받들어  
붉게 핀 청춘 그 청춘 나는 사랑해

그대는 그대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명예와 재부로 나 하나 안락인가  
아 어머니당의 품속에  
금별로 빛나는 그 이름 나는 사랑해

# 김정일, 그이는 향도의 별

느파리 조세프

모두가 우러르는 위대한 그이  
우리 앞길 밝히는 찬란한 빛발  
가장 친근한 향도의 별이시여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그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곳에 계시여라

가장 위대하신 그이  
언제나 우리곁에 계시여라  
위대한 향도로

조선을 룡성과 번영으로 이끄시여라

그이는 청년들과 학생들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인민의 리익과 정의의 견결한 수호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우리모두의 마음속에 계시여라

(필자는 광고문화예술성 과장임)

## 온수평

(총련) 손지원

온수평  
온수평  
병풍처럼 둘러싼 벼랑가에  
온달샘 솟아나 이름난교장

따사로운 당의 은정  
이곳에도 샘솟아  
아담하게 일떠선  
총련려관 귀틀집

жат나무 푸른 숲아 말해주렴  
내 이역에서  
공을 세운적 없건만  
보천땅 휴양소에 불러준  
그 뜻이 무엇인지

가림천 흐름아 말해주렴  
이국에도  
약수터 온천은 있건만  
손잡아 우리를 불러준  
그 사연 무엇인지

아, 아침에도  
저녁에도  
깊은 한밤에도  
내 마음의 생각을 싣고  
샘솟아 오르는  
백두의 샘물, 보천의 천연온수

내 무심히 온수물에 들수가 없구나

여기 한방울 물에도  
항일혁명선렬들의 뉘이 깃들었으니

내 무심히 이 땅을 밟을수가 없구나  
수령님 눈보라 만리길을 헤치실 때  
내 아버지 현해탄을 건너갔건만  
오늘까지 그 아들 잊지 않고  
영광의 답사길에 불러주었으니

뜨거워라  
이국살이 설움의 눈물 씻어주고  
나의 청춘, 나의 희망 꽃피워준  
그 뿌리가 여기에 내렸음을  
이 가슴에 속삭여주는 온수평

뜨거워라  
보천의 천연온수  
뜨거워라  
친애하는 그이의 은정

뜨거워  
그 사랑 뜨거워  
차마 온수에 들어갈수 없는 마음  
그 언제나 식지 않을 불타는 마음

온수평이여  
내 예서 백두의 뜨거운 뉘를 안고  
이역의 초소로 또다시 떠나리  
마음의 뿌리는 언제나 여기 두고  
보답의 한생을 끝까지 이어가리

《로동계급의 수령을 형상하는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알고 수령을 중심으로 존경하고 받들며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깊이 새기고 수령의 위업에 충실하도록 하자는데 있다.》

김정일

위대한 업적

## 불멸의 송가

###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우리 인민은 반만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우러러 높이 칭송하는 불멸의 송가들을 지어 심장으로 부르며 거기에서 새힘을 얻고 거기에서 광망한 미래를 확신성있게 내다보며 혁명의 먼길을 헤쳐 왔다.

조선혁명이 닳을 울리고 주체의 항로따라 력사의 첫기슭을 떠나던 나날에는 향토성의 노래 《조선의 별》을 지어불렀고 조국광복의 새아침이 밝아온 해방의 그날에는 태양의 노래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지어불렀으며 오늘은 심장의 목소리 합치고합쳐 충성의 송가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를 부르고 또 부른다.

우리에게 이 행복을 안겨주시려  
한평생을 바치시는 우리 수령님  
아버이 그 사랑 그 품속에서  
오늘의 이 행복은 꽃폈습니다  
...

위대한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하늘땅 끝까지 변함없이 따르며 길이길이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절절한 심정이 담겨진 불멸의 송가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는 오늘 우리 나라에서뿐아니라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널리 불리우고있는 충성의 송가이다.

사람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흠모와 신뢰의 정을 안겨주는 이 송가의 가사가 명가사로 창작된데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송고한 뜻과 로고가 깃들어있다.

1970년 9월 어느날이었다.

조선로동당 제 5 차대회 경축공연준비를 지도하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공연종목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고나서 지금 우리 창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노래를 창작하지 못한것이 제일 가슴아픈 일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르며 둘러선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모두가 송구한 감정에 휩싸였다.

새겨볼수록 그이의 뜻을 받들지 못한 자책감을 금할수 없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세계지도우에서 빛을 잃었던 이 땅우에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을 꽃피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여 우리 인민의 오늘의 행복과 영예가 마련될수 있었고 그이께서 계시여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찬란한 미래도 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백발로인으로부터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자신들의 행복과 조국의 장래운명과 결부시켜 생각하면서 한결같이 아버지수령님의 만수무강을 간절히 축원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과 만수무강은 온 겨레의 심장속 가장 깊은곳에 간직된 최대의 념원이며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의 절절한 소망이다.

시대와 인민의 념원을 그처럼 심장깊이 절감했기에 전문가도 아닌 김혁이가 파쑈의 광풍이 휘몰아치는속에서도 혁명송가를 지었고 조국해방의 감격을 받아안던 그날 한갓 이름없던 한 시인도 불멸의 송가를 지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었는데 오늘은 수많은 작가, 예술인, 전문가들이 있으면서도 해방이 되어 삼분의 일세기, 70년대 문어구에 들어서는 이날이때까지 축원의 송가 한곡 지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으니 혁명전사로서 초보적인 의리마저 저버린 얼마나 죄스러운 일인가.

창작가들은 진정 머리를 들수 없었다.

그러나 늦게나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침을 받들고 위대한 수령님께 올릴 축원의 송가를 창작하게 되었다는것으로 하여 가슴은 끝없이 설레였다.

불타는 충성심과 끓어오르는 열정을 안고 작가들은 송가의 가사를 썼고 거기에 작곡가들이 곡을 붙였다.

얼마후 몇편의 노래를 완성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올리였다.

창작가들의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며 보시던 일을 뒤로 미루시고 몸소 창작가들이 있는곳으로 나오시였다.

그런데 창작가들은 크나큰 기대를 가지고 나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만족을 드리지 못하였다.

창작가들이 준비한 노래를 다 듣고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노래가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선 부르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듣는 사람도 힘들거워 못들겠다고 하시며 못내 서운해하시였다.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전체 인민이 다 불러야 할 노래인데 부르기 힘든것이 치명적인 결함이였다.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으로 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는 창작가들을 둘러보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자애로운 웃음을 지으시며 처음 하는 일이 그리 쉽겠는가고 하시며 락심 말고 한번 잘해보라고 고무해주시는것이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창작가들은 새로운 결심을 다지며 창작전투를 또다시 벌려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도 노래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다음해인 1971년 설날아침과 경사로온 4월의 명절에도 만수축원의 송가를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지 못하였다.

창작가들은 자신들의 충성심을 돌이켜보며 안타깝게 모대기였다.

그들의 심정을 헤아려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어느날 또다시 창작가들을 부르시여 그들에게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 《끝없는 이 행복 노래부르네》 등 몇편의 노래들을 찍어주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문예사상과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들을 연구하여 창작실천에 구현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창작실에 돌아온 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적해주신 노래가사들을 반복연주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심오한 문예사상의 진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진지한 탐구와 사색을 이어나갔다.

이에 따라 작가들은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하여 가사를 썼다. 그리고는 곡을 붙여 합평과 론쟁을 벌리면서 세곡의 노래를 완성시켰다.

그리하여 1971년도 다 저물어가던 12월말 어느날 창작가들은 또다시 친애하는 그이의 지도를 받게 되였다.

노래를 부른 가수도, 노래를 지은 작가들과 작곡가들도 이날만은 기쁨을 드릴수 있으리라 은근히 원심을 쓰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려했다.

그러나 노래가 다 끝난 다음에도 그이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앉아계시였다.

긴장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창작가들을 둘러보시며 동무들의 의향은 어떤가고 조용히 물으시였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다시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니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노래로서는 너무 무겁고 밝지 못하다고 말씀하시였다.

너무도 여러번 반복하여 그이께 심려만을 끼쳐드린 창작가들은 깊은 자책속에 잠기여 어쩌면 좋을지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창작가들을 데리시고 정원으로 나가시여 한동안 아무 말씀없이 거니시다가 한없이 부드러우면서도 절절한 음성으로 환갑을 맞으시는 이번 새해의 첫 아침에는 꼭 수령님께 이 노래를 선물로 드리자고 했는데 동무들은 내 마음을 너무도 몰라준다고 말씀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받아안은 순간 창작가들의 두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충성의 송가를 창작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받은후 벌써 두번째 설이 눈앞에 박두했는데 아직도 노래가 완성되지 못하였으니 그이께서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아프시겠는가.

깊은 자책속에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 적시는 창작가들을 지켜보시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사색깊은 음성으로 수령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나긴 세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시는데 대하여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되새기는 창작가들의 눈앞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가 영화화면처럼 우렁이 안겨왔다.

열네살 어리신 나이에 조선이 독립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은 맹세 다지시며 압록강을 건느시여 간고한 20성상 주체의 화불 높이 드시고 눈보라 만리, 불바다 수십만리를 헤치시며 광복의 새아침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고 이 땅위에 인민의 락원을 꽃피워주신 오늘에도 우리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눈내리는 제강소의 구내길에서 새벽을 맞으시고 비내리는 농장의 밭머리에서 하루해를 보내시며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것이다.



참으로 너무도 어린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이날이때까지 어느 하루, 어느 한순간 마음편히 휴식하시고 주무셔본적 있었는가!

그렇듯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축원의 송가 한국 제대로 지어올리지 못하는 작가들의 마음은 그 어디에도 비길수없이 죄송스럽기만 하였다.

깊은 자책과 회오 속에 잠겨있는 창작가들을 바라보고계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윽고 열정에 넘치시여 가사의 상을 띄워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들에게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오늘의 이 행복이 마련되고 꽃피고있다는데 대하여, 때문에 우리 인민들이 해와 달이 다하도록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따르고 받들어나가면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절절히 바라고있다는데 대하여, 바로 이러한 사상과 감정을 그대로 옮기면 우리가 찾는 명가사와 명곡이 되지 않겠는가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이 노래는 단순한 하나의 가요가 아니라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과 소원을 담은 전인민적송가로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순간 작가들은 숙였던 고개를 번쩍 들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속에 어린애마냥 안기여 몸부림치며 환성이라도 울리고싶은 심정이였다.

방금 그이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하나의 명가사로 절절하게 안겨왔기때문이였다.

진정 그이의 말씀 구절구절은 시인들이 옮겨야 할 주옥같은 시였으며 완성된 가사였다. 작가들은 그 길로 창작실로 돌아와 그이의 말씀을 그대로 원고지에 옮기며 가사를 완성해나갔다.

우리에게 이 행복을 안겨주시려  
한평생을 바치시는 우리 수령님  
아버이 그 사랑 그 품속에서  
오늘의 이 행복은 꽃폈습니다

하늘땅의 끝까지 따르렵니다  
해와 달이 다하도록 모시렵니다  
수령님의 그 은혜 길이길이 전하며  
일편단심 충성을 다하렵니다

위대하신 어버이수령님을 우리리  
인민들은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가사는 훌륭하였다. 작곡가들은 그이께서 찾아주신 감정을 그대로 오선지에 옮겨 선율을 적어 나갔다.

그리하여 것처럼 모대기면서도 만들지 못하던 충성의 송가가 순식간에 완성되였다.

송가가 완성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며 몸소 대극장에 나오시여 노래를 들어보라고 하시었다.

노래를 준비한 네배우가 나서고 반주자가 피아노앞에 앉았다.

잠시 방안에는 엄숙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피아노에서 전주가 흘러나오고 녀가수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두가 음악세계에 잠기여 어느새 노래가 끝났는지 알수 없었다.

노래가 끝나고 피아노의 후주여운이 채 사라지기전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앉으셨던 의자의 손받이를 크게 치시며 일어서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노래가 아주 좋다고, 만점짜리라고 하시며 한번 더 불러보라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손에 들고계시던 가사를 친히 들여다보시며 하늘땅의 끝까지 따르렵니다, 해와 달이 다하도록 모시렵니다가 좋은 구절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올해에 많은 가사를 썼는데 이 가사가 금년도 가사를 총화하는것으로 된다고 하시며 못내 기뻐하시었다.

자신께서 종자를 주시고 시적인 내용과 감정구도까지 다 짜주시여 훌륭한 가사를 만들도록 해주시고도 가사가 좋다고 작가들을 치하하시며 그리도 기뻐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사랑, 그 믿음 앞에 작가들은 솟구쳐오르는 감사의 눈물을 어쩔수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련거퍼 세번이나 노래를 듣고나시여 지금까지 나온 노래중에서 제일 좋은 노래라고 만족해하시며 창작가들을 높이 치하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이번 설날에 어버이수령님께 충성의 송가를 드리게 되였다고 더없이 기뻐하시며 신년연회참가자들에게도 빨리 보급해야겠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현재 가사의 매 절마다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라는 구절이 들어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후렴만을 반복하면서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를 부르게 하라고 가르쳐주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력사에 영원히 아로새겨져 길이 빛날 1972년 1월 1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 예순돛을 맞으시는 뜻깊은 해의 설날아침이 드디어 밝았다.

이날 만수대의사당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신년연회가 있었다.

수도의 각계층 대표들과 평양에 머무르고있는 외국의 여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연회에서는 예술인들이 준비한 신년경축공연이 있었다.

그런데 이날따라 예술인들의 가슴은 류다른 흥분으로 하여 마냥 높뛰었다.

그것은 전인민적송가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를 처음으로 어버이수령님께 불러올리는 날이기때문이었다.

온 장내가 한없는 감격으로 설레는 가운데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소개하던 배우가 위대한 수령님 탄생 예순돛이라고 해야 할것을 그만 싯돛이라고 잘못 소개하였다.

그가 너무도 큰 실수를 저지르고나서 무대에 뛰어들어와 얼굴을 감싸진채 어쩔바를 몰라하는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친히 그 배우에게로 오시여 자애로운 음성으로 소개를 잘했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그 배우에게 금년이 수령님께서 환갑을 맞이하시는 해이지만 싯돛이 되는 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 인민의 념원이라고 하시며 그 념원 안고 위대한 수령님께 전인민적송가를 드리자고 말씀하시였다.

실수한 배우도 창작가들도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시는 뜨거운 충성심이 깃든 그이의 말씀에 목이 메였다.

이윽고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를 부를 순서가 되여 가수들이 무대에 나섰다.

관현악의 은은한 전주에 이어 가수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우리에게 이 행복을 안겨주시려  
한평생을 바치시는 우리 수령님

...

구절구절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담긴 노래소리가 장내에 울려퍼졌다.

그런데 우리 인민을 위하여 모진 고난을 겪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돌이켜보며 크나큰 걱정애 휩싸여 노래부르던 가수들의 목소리가 관현악반주와 어긋나기 시작하더니 얼마후에는 똑 떼어버리고말았다.

참가자들은 숨가쁜 긴장속에 무대를 쳐다보았다.

가수들은 노래를 이어부르려고 애썼으나 목소리가 갈리어 점점 작아지더니 끝내 복받쳐오르는 흐느낌에 노래소리는 끊어지고말았다.

노래소리대신 흐느낌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장내로 새어나왔다.

지휘자도 연주자들도 따라울었고 연회참가자들도 모두 뜨거운 눈물로 두볼을 적시며 함께 흐느끼었다.

이때 장내에 계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여러명의 다른 가수들을 나오게 하시여 끊어졌던 노래를 이어부르게 하시였다.

이윽고 노래가 이어졌다. 그러나 새로 나온 가수들도 젖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자리에서 일어난 참가자들도 눈물속에 따라불렀다.

...

위대한신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인민들은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노래는 끝났으나 일어난 사람들도 앓을줄 몰랐고 여기저기에서 흐느낌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온 장내에 걱정애의 파도가 일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손수건을 눈언저리로 가져가시며 곁에 서있는 로투사들의 손을 잡으시고 고맙다고 울지 말고 다들 앓으라고 거듭 말씀하시였다.

그 말씀을 들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눈가에도 맑은것이 빛나고있었다.

정령 력사의 그날 아침 만수대의사당 새해경축 연회장에서 울려나온 충성의 송가는 3 천리강산을 뒤흔들며 대륙과 대양을 넘어 온 세계의 하늘 높이 메아리쳐갔다.

인민들이 이처럼 절절히 바라는 뜨거운 념원을 안고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충성의 송가를 항시 부를수 있도록 명가사를 마련하여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이께서 마련하여주신 명가사는 우리의 가사문학의 본보기로 찬란히 빛을 뿌리며 가사문학발전에 크게 기여할것이다.

우리 인민들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충성의 송가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를 세월의 끝까지 심장으로 부르고 또 부르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길이 전해갈것이다.

## 하얀 차돌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평양시 교외의 어느 자그마한 마을에 계신적이 있었다.

그이께서 여기에 계신것은 얼마 오래되지 않지만 이 마을사람들은 크나큰 긍지와 자랑을 안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수많은 전설들을 창조하여 전하고있다.

그중에는 맑은 물이 샘솟는 정가로운 박우물과 관련한 이야기도 있다.

일제통치시기 이 마을에서는 금돌이라는 소년이 흠어머니를 모시고 살고있었다고 한다.

원래 금돌이에게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셨고 이쁜이라는 곱게 생긴 녀동생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아버지는 금돌이가 열살나는해 가난한 살림을 추세워보려고 소문에 별이가 좋다는 복간도로 떠나갔다는것이다.

동생 이쁜이는 아버지가 떠나간지 두번째되는 해 어느 봄날 다섯살이라는 그 애된 나이에 나물바구니를 들고 뒤산에 올라갔다가 왜놈들의 사냥총에 맞아 생죽음을 당하였던것이다.

가뜩이나 병약하여 시름시름 앓기 잘하던 어머니는 이런 일이 있는 다음부터 심화병에 걸려 끝내 자리에 눕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가정일의 크고작은 모든 부담이 자연 금돌이의 그 어린 어깨우에 실리게 되었다.

사정없이 지지누르는 그 모든 일감을 다 걸머지고 일어서기엔 너무도 나이가 어린 금돌이었다.

그러나 금돌이는 이발을 사려물고 용케 일어나 모든 일을 다 해냈다.

나무를 해지고 30 리나 실히 되는 장마당에 내다 팔아 한잎두잎 모은 돈으로 약을 사오기도 했고 한되박이 되나마나한 좁쌀을 구해다가는 어머니에게 미음을 쑤어드리기도 하였다.

게다가 변돈을 값기 위해 아래마을 지주놈네 밭김을 매야 했고 나무를 패는가 하면 집집승우리를 쳐내고 집안팎도 거두어주는 등 실로 닥치는대로 모든 일을 다하였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어머니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살림형편은 더욱 조들리기만 하였다.

금돌이는 그만 실망하고말았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머니를 구원할수 없을것 같았다.

자주 어머니가 문지방에 쓰러져 숨질것만 같은 환각이 눈앞에 떠오르곤하였다. 한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일손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이었다.

온종일 바랭이와 쇠뜨기풀로 뒤엀킨 지주놈의 조밭에서 손끝에 피가 지도록 김을 매고난 금돌이는 지친 다리를 끌고 겨우 집에 들어섰다.

그런데 의식을 잃은 어머니가 허공에 손을 내저으며 안타까이 아버지를 부르고있는것이였다.

금돌이는 겁이 덜컥 났다.

한창 팔다리를 주무르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기도 하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소리를 쳐서야 어머니는 겨우 진정한듯싶었다.

얼른 일어나 약을 달여드리고 미음을 대접하고난 금돌이는 어머니를 다시 눕혀드린 다음 숨을 돌리려고 밖으로 나왔다.

금돌이는 마당 한구석에 다 남아빠진 멍석을 깔아놓고 그우에 맥없이 드러누웠다.

어두운 밤하늘에서 손톱눈같은 초생달이 숨박꼭질하듯 구름속을 헤엄쳐가며 처량한 빛을 뿌리고있었다.

금돌이는 마음이 울적해지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아버지를 찾으며 헛소리를 하던 어머니의 정상이 눈앞에 떠오르자 또다시 설음이 복받쳐올랐다.

(아버지는 어디 계실가? 살아계시거나 할가? 어째서 오지 못하실가?)

이러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생각할수록 모든 불행의 화근은 아버지에게 있는것 같았다.

아버지만 계셨던들 이 집안의 모든 불행이 있지도 않았을것 같았다. 이제라도 아버지만 돌아오시면 어머니는 당장 병을 털고 일어나실것 같기도 하였다.

자리나 잡아놓고 가족들을 데리려 인차 오시겠다던 아버지였다.

그러나 여섯해라는 긴 세월이 흐르도록 아버지에게서는 전혀 소식이 없었다.

(왜 안오실가?)

이날따라 금돌이는 아버지가 못건디게 그리워났다. 꿈속에서나마 뵈고싶었다.

어디선가 당장 《금돌아!》하고 부르며 아버지가 달려오실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여적 소식 한장 없는 아버지가 그렇게 나타나실리 만무였다.

아버지를 그리던 금돌이는 물려드는 피곤에 못이겨 저도 모르게 슬곳이 잠들고말았다. 금돌이는 눈을 감기 바쁘게 꿈나라로 가버렸다.

...어머니의 약을 구하려고 금돌이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있었다. 금돌이는 어느 한곳에서 다리쉽이나 하자고 적당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런데 어디선가 줄줄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더운 여름날 먼길을 걸어온 금돌이는 물소리를 들으니 더구나 갈증이 생겨 그리로 걸음을 옮겼다.

숲속을 헤치고 얼마간 들어가니 개버들가지가 곱게 드리운 그리 크지 않은 바위썸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와 자그마한 웅덩이를 이루고있었다.

금돌이는 마른침을 꿀꺽 삼키고는 웅덩이앞에 엎드려 물위에 뜬 버들잎을 《후-우-》하고 조심스럽게 불었다.

이 순간 버들잎이 한쪽으로 걷히면서 맑은 물이 햇빛을 받아 번쩍하더니 뜻밖에도 거기에 꿈결에도 못잇을 아버지가 나타났다. 아버지는 웃으면서 《애 금돌아, 네가 어떻게 여기엘 왔느냐?》하고 물으시었다.

심산의 샘물속에서 아버지를 본 금돌이는 너무 기뻐 《아버지-》하고 막 달려들어가려고 했다.

아버지는 급히 손을 내저으며 《금돌아, 그 물을 흐리게 하지 말아. 그래야 내가 너와 이렇게 만나 이야기를 나눌수 있다.》하고 말하는것이였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금돌이는 얼른 자세를 바로하며 무릎을 꿇고앉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버지는 어찌하여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십니까? 이뿐이는 아버지가 집을 떠나신 다음 산나물 뜯으러 갔다가 왜놈들의 총에 맞아죽고 어머니는 골병이 들어 운신도 못하시는데...》

여기까지 말하고난 금돌이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말았다.

그러자 아버지는 침통한 어조로 《네가 혼자서 앓는 어머니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겠구나.》하시며 말끝을 흐리었다.

금돌이는 아무말없이 고개만 끄덕일뿐 그냥 흐느껴울었다.

이윽하여 아버지가 다시 말을 이었다.

《애 금돌아, 이제 조금만 더 참아라. 지금 백두산 장군별이 삼천리를 굽어살피시며 만백성의 소원을 다 풀어주오계신다.》

《아니 백두산 장군별이요?!...》

금돌이는 언제인가 나무를 팔러 장마당에 갔다가 어른들이 모여서 하던 백두산 장군별이야기가 떠오르면서 귀가 번쩍 트이였다.

《그래, 그러니 이제 머지 않아 네 어머니병도 틀림없이 나을게다. 두고보아라.》

금돌이는 이 말에 《예!》하고 대답하고는 아버지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보고싶어 샘물가까이에 얼굴을 들이댔다. 그런데 불을 타고 내려와 입술에 맺혀있던 눈물방울이 물위에 뜰려 떨어졌다.

그러자 가벼운 파문이 일어나면서 아버지의 모습이 흐트러지더니 이윽고 가뭇없이 사라지고만는것이였다.

《아버지, 아버지...》

금돌이는 아버지를 목메여 부르며 물웅덩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금돌이는 그만 《금돌아! 금돌아!》하고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고말았다.

온몸에 식은땀이 내배이고 사위는 먹물을 뿌린듯 킁킁한데 어머니가 금돌이를 부르며 문턱을 넘어서지 못해 모지름을 쓰고계시였다.

금돌이는 얼른 일어나 어머니를 부축하여 자리에 눕히고 꿈에서 본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금돌이의 말을 다 듣고난 어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며 《한가지 생각에 골몰하면 꿈에서 본다니 네가 오죽 아버지생각을 했으면...》하고는 금돌이의 손을 어루쓸어주었다.

이날밤 금돌이는 자리에 누웠으나 도저히 잠을 이룰수 없었다.

눈만 감으면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고 장군별에 대한 이야기가 귀에 쟁쟁 울리는듯하였다.

(야, 백두산은 어디에 있을까. 장군별은 얼마나 클까? 그 빛이 여기 비쳐왔으면?)

이러한 생각으로 금돌이는 온밤 뒤척이며 끝내 잠들지 못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새벽닭이 세회째 울었을 때였다.

갑자기 바깥이 대낮처럼 밝아졌다.

금돌이가 후다닥 뛰쳐일어나 안방문을 여니 저기 북쪽하늘가에서 은백색의 빛을 뿜으며 커다란 별찌 하나가 떨어지고있었다.

그것은 마침 금돌이네 집 바로 옆에 있는 바위등에 떨어져 환한 빛을 내뿜는것이였다.

금돌이는 어제밤 꿈에서 말하던 그 장군별이 보낸 별찌가 아닌가 하여 조심스럽게 그리로 다가갔다.

그런데 그 별찌가 어찌나 밝은 빛을 뿌리며 이글거리는지 한참이나 치-익 소리를 내면서 부글부글 끓어번지다가 사그라졌다.

그 별찌빛이 사라지자마자 동녘하늘이 불쑥 들리더니 신기하게도 아침해가 눈부신 빛발을 뿌리며 솟아올랐다.

금돌이는 자기가 또 꿈을 꾸지 않는가 하여 제살을 꼬집어보았다. 다행히 꿈은 아니였다.

잔뜩 호기심이 동하여 가까이 다가가본 금돌이는 또다시 놀랐다.

별찌 떨어진곳이 물함지만큼 움푹 패이고 거기에 맑은 물이 찰랑거리고있었는데 그밑에는 회백색빛을 띠는 닭알만한 돌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차돌이었다.

금돌이는 그 차돌이 별찌인가보다 생각하고 조심히 건져내었다.

그러자 그렇게 맑고 정갈하던 물이 순간에 흐려지는것이였다.

금돌이는 하도 신기해서 그 차돌을 다시 집어넣었다.

물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맑아졌다.

(별찌가 떨어지면서 생긴 박우물이니 이 차돌이 있어야만 물이 맑아지는게로구나.)

이렇게 생각한 금돌이는 집으로 달려와 어머니에게 별찌가 파놓은 우물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신기한 차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난 어머니는 《그 신기한 차돌은 장군별이 보낸게 분명하다. 그러니 그 물도 보통물이 아닐게다.》라고 하면서 어서 그 물을 떠오라고 이르는것이였다.

금돌이는 그 물을 길어다 아침밥을 지었다. 그는 어머니와 두리반에 마주앉아 밥을 먹었다. 그랬더니 온몸에 기운이 막 뻗치는것이였다.

어머니도 힘이 솟는다고 하면서 매우 기분이 좋아하였다.

(고생끝에 락이 온다더니...)

금돌이는 너무 기뻐 덩실덩실 춤까지 추고싶었다.

그날부터 금돌이는 그 박우물을 정성껏 거두었다. 그리고는 아침, 저녁 그 물을 길어다 어머니에게 밥을 지어드리려고 그 물로 손발도 씻고 머리도 감게 하였다.

그런 일이 있는지 꼭 석달열흘이 지나서부터 어머니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방안과 부엌일은 물론 밖에 나와 터밭일까지 했는데 온종일 일해도 힘든줄 몰라했다.

그런데 어느날 저녁 어머니는 금돌이를 불러앉히고 이렇게 말하였다.

《금돌아, 내가 오늘 이렇게 병이 다 나아 건강하게 된것은 네 정성도 있지만 백두산 장군별의 은혜가 더 큰줄로 안다. 그러니 우리 모자가 백두산에 찾아가 장군별에게 인사를 드리는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어떠냐?》

이 말을 들은 금돌이는 《어머니,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인제는 내 나이 열일곱인데 저도 백두산에 찾아가 장군별을 받들어 왜놈들과 싸우겠습니다.》

그들 모자는 마을사람들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백두산으로 떠나갔다.

그후 마을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고 온갖 병을 고치였으며 저녁마다 마실군들이 모여앉으면 백두산장군별 이야기로 꽃을 피우곤하였다.

금돌이네가 떠난지 한해가 지난 어느날이였다.

박우물의 신기한 이야기를 들은 아래마을 지주놈이 그 차돌을 제놈의 우물에 가져다넣으려고 두루마기자락을 날리면서 달려들었다.

지주놈이 박우물에 다가가 그 차돌을 들어내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더니 샘구멍이 터지며 박우물에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와 지주놈을 삼켜버렸다.

물이 쪼다듬 사람들이 달려와보니 박우물안에는 감탕만이 차있고 욕심쟁이 지주놈도, 그 신기한 차돌도 다 떠내려가고 없었다.

마을사람들이 서둘러 감탕을 퍼내고 깨끗이 손질했으나 신기한 차돌이 없는 박우물은 여전히 흐리기만 하였다.

마을사람들이 모두 떨쳐나 그 신기한 차돌을 찾으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종시 찾지 못하고말았다.

마을사람들은 악착한 욕심쟁이 지주놈을 끝없이 저주했다. 그들은 금돌이네가 와야만 신기한 차돌을 찾는다고 하면서 할수없이 기다리기로 하였다. 세월이 흘러 해방이 되자 금돌이네 모자는 고향을 다녀가려고 왔다. 그러나 금돌이네 모자도 신기한 차돌을 끝내 찾아내지 못했다.

마을사람들은 몹시 섭섭해하였다. 금돌이는 그들보다 더 섭섭하고 안타까웠지만 조금도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마을사람들을 위로하며 진심으로 말하였다.

《신기한 차돌을 찾지 못해 정말 안됐습니다.

필경 제힘으로는 그 돌을 찾을수 없을것 같습니다.

위낙 하늘에서 떨어진 돌이라 그리 쉬이 찾지 못할줄로 압니다.》

듣고보니 과시 그럴법한 일이기도 하였다. 마을사람들은 금돌이의 말에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아무렴 그게 어떤 돌이라구 아무 사람의 눈에나 망탕 띄우겠소.》

그때부터 마을사람들은 신기한 차돌을 잃어버린 아쉬움을 흔연히 털어버리고 그것을 찾는것을 단념하고말았다.

이런 일이 있는지 꼭 만 3년하고 한달이 지난 어느 가을날이였다.

전쟁이 한창이던 때라 마을사람들도 미국놈의 폭격을 피하여 가을걷이를 하다가 산기슭에 앉아 땀을 들이고있었다.

이런 때는 의례히 박우물이야기가 나오고 금돌이네가 입에 오르기마련이었다.

당시 이 마을에 머물러계시던 어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날 동네아이들을 거느리시고 가을걷이를 도와주시다가 그들과 함께 휴식하게 되시었다.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을 통하여 박우물과 차돌이야기를 들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그 박우물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한동안 박우물안을 들여다보고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시내물이 합쳐지는곳에 있는 모래둔덕으로 내려가시여 뚫알키기만한 새파란 돌 하나를 집어드시었다.

순간 새파란 그 돌에 오색채운이 감돌더니 눈부신 빛이 번쩍 빛났다.

잠시후 새파란 돌우에 서리였던 오색채운이 서서히 사라졌다. 그러자 이게 웬일인가!

새파란 돌이 하얀 차돌로 변하여 눈부신 빛발을 뿌리기 시작하였다.

깜짝 놀란 사람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러보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박우물가로 다가가시여 하얀 차돌을 그속에 넣으시었다. 그리고는 그 주변에 널려있는 모양이 똑같이 생긴 차돌들을 한바께쓰가량 골라다 박우물안에 정성껏 퍼놓고 주변에도 곱게 깔아놓으시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있던 사람들은 치밀어오르는 호기심을 누를수 없어 겨끔내기로 달려갔다.

박우물안을 들여다본 사람들은 저마다 《야!》하고 환성을 올렸다.

그렇게 흐려있던 물이 수정처럼 맑아져 금시 넘쳐날듯 찰랑거리고있었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기뻐 어쩔줄 몰라하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자, 모두 이 물을 한모금씩 마시고 땀을 들이십시오. 차돌을 찾아다 다시 넣었으니 이 박우물이 더는 흐려지지 않을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었다.

마을사람들이 그 신기한 차돌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모양이 하나같은 차돌이 바닥에 한벌 꼭 깔려있어 어느것이 진짜인지 가려낼수 없었다.

《야, 우리가 진짜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이렇게 모양이 고운 차돌을 함께 깔았더라면 지주놈이 어느것이 진짜 신기한 차돌인지 몰랐을게 아니요.》

누구인지 이렇게 감탄하자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끄덕이며 혀를 찼다.

이때부터 마을사람들은 다시 이 박우물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그 신기한 차돌을 가져다 넣은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고있었다.

며칠 지나 그이께서 떠나가신후에야 그분이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라는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조선의 하늘에 또 하나의 장군별이 솟았다.》 《무심한 돌에도 장군별의 정기를 심어주는 분》이라고 높이 칭송하면서 크나큰 감격으로 가슴 들먹이었다. ...

오늘도 이 박우물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이야기 길이 전하며 끝없이 샘솟고있다고 한다.

## 만경대고향집앞에서

권강일

봄빛에 싸인 이 집  
토방돌아래 서서  
아래방 옷방 다 보아도  
없구나 시계는

우리 사는 살림집마다에는  
벽시계 없는 집이 없건만  
없구나  
이 초옥안에는

허나 나에게는 들린다  
이 집의 가난이  
그 끝모를 어둠속에서 새벽을 기다리며  
새겨안던 시계소리, 시계종소리

새날을 기다리는 그 소원을 안고  
조국의 위대한 아들은

일찌기 길을 떠나시였고  
간고하고 긴 싸움의 길을 가시였거니

력사를 앞질러가시는 그 자욱 따라  
조선의 심장은 높이 뛰고  
백두의 장설은 녹아내리고  
인민의 영원한 봄이 펼쳐졌다

오 그렇다  
만경대고향집에는 시계가 없었어도  
여기서 빛나는 오늘로 시간은 흘러왔고  
무궁한 래일로로 시간은 흘러가고있다

그 시간으로 지축이 돌고  
사회주의가 곧바로  
주체의 궤도따라  
어김없이 나아가고있어라

## 주체문학창작의 형상원리에 대한 백과전서적인 해명

현종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주체문학창작에서 나서는 형상원리에 대하여 가장 심오하고도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으로써 우리 작가들의 창작활동에서 다시한번 새로운 전환이 일어날수 있는 획기적계기를 마련하시였다.

시대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문학작품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상원리가 새롭게 탐구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로작의 《생활과 형상》에서 바로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식 문학작품창작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형상원리에 대하여 독창적인 해명을 주시으로써 주체의 창작리론의 보물고를 가일층 발전풍부화시키시였으며 주체시대문학창조의 휘황한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하나의 작품창작을 위하여서는 수많은 형상적 요구들이 제기된다. 선행문학리론들에서도 이 요구들은 적지 않게 논의되였다. 그러나 시대의 산물인 문학창작앞에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적인 형상적요구들이 나선다. 이것이 바로 주체문학의 형상원리가 밝혀주는 창작리론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로작에서 시대와 현실이 제기하는 중요한 형상원리로서 작품의 종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데 대한 문제, 문학적형상에서는 사건이 아니라 성격이 위주로 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가져야 하며 형상의 참다운 힘은 그의 진실성과 철학성에서 오는 것이라는 문제, 문학작품에 지성도가 약하면 그 사상예술적품격이 떨어진다는 문제들을 밝혀주시면서 이 모든 기본원리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작품의 구성과 언어형상을 잘 해야 한다는 심오한 리론실천적해명을 주시였다.

작품의 종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는것은 주체문학의 형상창조를 위한 선결조건이며 출발점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찌기 불후의 고전적로작 《영화예술론》에서 문학에서의 종자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리론을 창시하시여 문학예술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력사적인 전성기를 안아오시는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종자는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

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가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이다. 이것은 처음으로 발견된 불멸의 문예학적범주이다.

문학작품의 종자는 주제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다. 그것은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를 안고있고 형상의 온갖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을 가진 생활의 사상적알맹이이다.

그러나 우리의 일부 작가들속에서는 오랜 세월 종자에 대한 개념이 없이 주제와 사상만을 문학작품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 보아온 기존관념에 사로잡혀있었기때문에 새로운 종자에 대해서도 주제나 사상처럼 보는 편향들이 없어지지 않고있다.

사상예술성이 시대와 현실발전의 높은 요구에 순응하지 못한 허약한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 근본원인은 종자에 대한 이런 인식의 부족에 기인한것이다. 종자야말로 자주시대 주체형의 인간형상을 깊은 사상성과 높은 예술성을 가지고 그려내기 위하여 시대와 생활의 요구에 따라 창조적으로 탐구되고 발견된 우리 시대의 빛나는 문예학적범주이다.

사실상 지난 시기 문학리론들에서는 주제에 대한 개념도 똑똑히 서있지 못하였으며 주제와 사상을 명확히 갈라보지 못한 제한성도 있었다. 때문에 작품의 주제에 대하여 사람에 따라 그를 오늘의 종자와 같이 보는 현상도 있었고 오늘의 주체의 개념으로 지적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사상과 동일하게 보는 사람도 있었다.

이 모든 혼란들은 불멸의 종자리론의 창시에 의하여 극복되게 되었으나 그 여독은 아직도 깨끗이 청산되지 못하고있다.

종자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는 문제는 창작가들의 종자장악과정을 정확히 이끄므로써 작품형상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높이게 하기위한데 있다. 종자의 옳은 탐구와 정확한 장악은 주체문학창작에서 나서는 첫째가는 중요한 형상원리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로작 《주체문학론》에서 종자의 본질을 옳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생활현상에 체현되어있는 사상적의미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는것이 필요하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반적으로 생활현상은 단순하지 않고 매우 복잡하게 얽혀져있기때문에 여러가지 사상적의미를 가지게 된다. 생활현상에 체현되어있는 사상적의미가운데는 그 생활현상자체를 지배하며 이어의 사상적의미를 제약하는 가장 본질적이며 규정적인것이 있다. 생활현상에 체현되어있는 본질적이며 규정적인 사상적내용은 그 존재를 담보하는 근본요인으로, 기본핵으로 된다. 바로 그 핵을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라고 한다.》

하나의 생활현상에 체현되어있는 여러가지 사상적의미가운데서 본질적이며 규정적인 사상적의미를 그 생활바탕속에서 찾아주는것, 이것이 바로 그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를 파악하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생활현상에 체현되어있는 사상적의미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에 기초하여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로서의 문학의 종자에 대한 이해를 옳바로 가질수 있는 새로운 리론실천적무기를 안겨주시였을뿐 아니라 그 사상적의미가 본질적이며 규정적인 의미를 가진것일지라도 문학작품의 종자로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특성에 대해서도 명백한 해답을 주시였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리성적으로 파악되고 론리적사유를 불러일으키는 사상과는 달리 생동한 성격, 사건, 생활현상으로 나타나며 정서적으로 파악되고 형상적사유도 불러일으키는 사상적알맹이어야 한다. 결국은 문학의 종자는 사상적알맹이라고 하여 단순히 사상적측면만 가지고있는것이 아니라 생활의 사상적알맹이기때문에 생활적측면, 형상적측면도 가지고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도 없고 형상의 요소가 뿌리내릴 바탕도 없으며 따라서 작가의 심장을 틀어잡을수 없고 정서를 불러일으킬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생활현상의 사상적의미는 아무리 본질적이며 규정적인것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큰 사회적의의를 가진것이라고 하더라도 문학의 종자로는 될수 없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에는 1930 년대의 우리 나라에 하나의 사회적현상으로 있었던 《자위단》 문제가 제기되어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악독한 사회적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으나 본질적이며 규정적인 의미는 《자위단》에는 들어도 죽고 안들어도 죽는다는것이였으며 이런 근본문제는 나라잃은 민족의 운명문제를 내포하고있었고 그 본질적이며 규정적인 의미는 생동한 생활현상이 뿌리내릴 바탕도 갖추고있었다. 따라서 《자위단》에는 들어도 죽고 안들어도 죽는다는것이 이 명작의 종자로 되었던것이 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로작에서 문학작품의 종자의 본질을 옳게 리해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작품의 형상체계안에서 종자가 핵

으로 된다는것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는 심오한 해명을 주시였다.

작품의 핵을 옳바로 파악하는것은 창작을 옳게 진행하는가 못하는가, 작품의 사상에술적수준을 높이는가 못하는가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지금까지 일부 작가들속에는 작품의 핵이 주제나 사상이 아니면 성격이나 갈등이 된다고 본 편향들이 있었다. 이런 편향은 창작실천에서 커다란 후파를 남게 하였다. 주제나 사상을 작품의 핵으로 본 사람들은 산 인간의 성격형상이 없는 메마른 도식적인 작품을 남게 하였고 성격을 작품의 핵으로 본 사람들은 사회적의의가 없고 사상적심오성이 없는 작품을 남게 하였으며 갈등을 핵으로 본 사람들은 공연히 긴장감만 조성시키는 작품을 남게 하였다.

그러나 작품의 핵으로는 종자만이 될수 있으며 주제, 사상, 성격, 갈등은 모두 그 종자를 기초로 그것을 꽃피운 결과에 태어난 요소들이다. 종자가 작품에 반영된 생활의 가장 심오한 본질을 체현하고있는 사상적알맹이기때문에 핵의 지위를 차지한다는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따라서 그 사상적알맹이가 없으면 작품에 반영된 생활은 죽어버리게 되고 형상은 빛을 잃게 된다는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지위로 보아 사상적알맹이는 작품에 반영된 생활의 생명이며 형상전반에서 핵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므로 종자만이 작품의 형상을 이루는 모든 요소를 규제하고 통일시키며 이끌어어나가는 유일한 중심으로 될수 있다. 이런 유일한 중심에 대한 옳바른 리해가 서야 그것을 생활속에서 옳게 장악하는 작업부터 심중히 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작품의 내용과 형식, 사상성과 예술성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결합시키는 기초로서의 작용을 하는것은 오직 핵으로서의 종자만이 가능하다. 그의 통일과 결합은 주제나 사상, 성격이나 갈등의 그 어느 하나를 가지고는 수행할수 없다. 이것들은 우선 종자라는 작품유기체의 핵이 선택된 다음 그를 통하여 영양소를 공급받는 창작과정을 걸쳐 생겨나는 형상요소들인것만큼 그것이 처음부터 창작을 떠밀어주는 기초로 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종자라는 요인이 있는 조건에서 형상체계내에서 그들의 호상관계는 오직 이렇게만 성립될수 있다.

그만큼 주체문학창작의 사상에술적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종자의 본질을 옳게 리해하고 종자작업에 큰 힘을 넣는것은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이밖에도 종자와 주제, 사상, 소재의 련관관계, 종자장악을 위한 현실탐구와 종자장악의 다양한 계기들 그리고 종자의 옳은 탐구와 그의 예술적가공에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다시 새롭게 심오한 해명을 주심으로써 또 한번 우리 주체문



학의 질적수준을 비약시킬수 있는 이론실천적제부를 마련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의 《생활과 형상》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우리의 문학은 사건위주의 문학으로 될것이 아니라 성격위주의 문학으로 되여야 한다는 심오한 사상을 밝히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시대의 건전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것을 직관적으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깊이 파고들려고 한다. 문학작품을 읽어도 인물의 성격에 끌려 읽지 자기자기한 사건적인 이야기나 보자고 읽는것이 아니다. 문학은 반드시 성격위주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현대적미감에 맞을수 있다.》

주체사상은 인간이 생활을 떠나 존재할수 없지만 인간과 생활은 서로 같은 위치에 있는것은 아니라는것을 밝혀준다. 인간은 생활에서 주인의 위치에 있다. 그런데 문학에서 인간을 그린다것은 결국 그의 성격을 위주로 하여 형상을 창조한다는것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문학은 사건문학이 될것이 아니라 성격문학으로 될것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선행한 문학창작에서는 인간을 물질세계의 한 부분으로 취급하면서 인간과 사건사이에 원칙적인 계선을 긋지 않았던데로부터 성격을 특별히 강조하는 문제를 창작원칙, 형상원리로 내세우지 못하였다. 사실 성격을 위주로 내세우지 않으면 문학이 인간학의 본성에도 맞지 않게 된다. 지난날 문학을 인간학이라고 하면서도 작품에 인식교양적의의가 있는 매혹적인 성격을 창조하는것보다 자기자기한 사건을 끌고가는 현상이 있는것도 인간과 생활, 성격과 사건의 호상관계를 주체의 관점에서 대하지 못하였기때문에 나타난 편향이 다.

성격과 사건의 관계에 대하여 말한다면 성격이 보다 내적이고 적극적이고 본질적인것이라면 사건은 보다 외적이고 피동적이고 현상적인것이다. 그러므로 성격문학이라고 할 때 그것은 외적이고 피동적이고 현상적인것보다 내적이고 적극적이며 본질적인것을 기본으로 내세운다는것에 귀착된다.

인간의 의식수준이 발달되면서 그들은 모든것을 본질적으로 깊이 파고들어 내적인 속성을 볼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의 참다운 문학은 인물의 성격에 끌리는 작품을 써야지 자기자기한 사건적인 이야기나 보여주는 작품을 써서는 가치가 없다. 이것은 인간의 의식발전의 요구이며 현대적미감의 요구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우리 문학이 사건문학이 아니라 성격문학이 되여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뿐아니라 성격문학으로 될수 있는 방도에 대해서도 명철한 해명을 주시였다.

그것은 성격형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며 작품의 구성을 성격발전의 력사가 되게 하는것이다.

성격의 형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실천적문제는 종자의 요구를 성격을 그리는데 집중시키는것이며 구성을 성격발전의 력사로 되게 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사건조직이 구성의 기본이 되게 할것이 아니라 감정조직이 구성의 기본이 되게 하는것이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를 세계관적기초로 하고있는 주체문학의 형상원리는 문학이 사건위주의 문학, 사건문학으로 될것이 아니라 성격위주의 문학, 성격문학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주면서 그렇다고 우리 문학이 사건을 무시해도 된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사건이 성격이 발현되는 생활의 한 요소이기때문에 그것을 무시하면 성격이 생활적인 바탕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인간성격은 생활사건과 맞닿아야 자기의 본색을 적라라하게 드러내게 된다. 이렇게 문학창작에서 사건은 큰 의의를 가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격형상과 결부되지 않고 독자적으로는 참다운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사람들이 문학작품을 통하여 사상정서적인 교양을 받게 되는것도 결국은 흥미있는 사건줄거리에서가 아니라 그의 창조자이며 담당자인 성격형상을 통하여 받게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응당 성격을 매혹적으로 형상하기 위한데 복종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심오하게 밝혀주신 성격문학창조에 관한 사상리론은 주체문학이 명실공히 자주적인 인간전형창조의 문학으로 됨으로써 그의 사상교양적기능을 가일층 제고할수 있게 하는 탁월한 지도적지침이다.

문학작품의 견인력이 어디 있으며 그의 생명력은 무엇에 의하여 담보되는가?

이에 대하여 선행문학리론에서도 이야기되지 않은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상의 진실성과 철학성에 있다는것은 명백히 밝혀지지지는 못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로작에서 형상의 힘은 진실성과 철학성에 있다고 하시면서 진실성과 철학성의 본질과 그의 구현을 위한 방도에 대하여 독창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작품의 진실성은 작품에 그려진 생활이 현실과 같은가, 같다면 어느 정도 같은가 하는 것을 재는 척도로 된다.》

문학작품의 진실성이 형상과 생활의 일치성을 재는 척도로 된다는 사상은 작가들의 현실에 립하는 자세와 태도를 규정해주는 가장 심오한 사상이다.

문학작품창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진실성문제라고 할 때 작가들은 작품에 그리는 생활이 현실생활과 같기를 지향해야 한다. 아무리 묘사가 세련되고 구성이 짜인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것이어야 사람들에게 믿음과 친근감을 안겨주지 그렇지 못하면 도리어 우환거리로 된다.

진실성은 사실주의문학의 본성적요구이다. 사실주의는 말그대로 작품에 현실을 사실과 같이 그리는 창작방법이다. 문학작품은 인간생활을 현실과 같이 반영할 때만이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인류문학사에 길이 전해지게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사실주의문학의 본성적요구로 되는 진실성의 본질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었을뿐아니라 진실성을 살리기 위한 방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명을 주시었다.

문학작품에서 진실성을 살리자면 형상에 생활의 본질을 반영하여야 한다.

작가들이 본질과 현상을 정확히 가려보고 생활에서 합법칙적인것을 선택하여 반영하는것은 진실성을 살리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본질을 골라 전형적인 형상을 창조하는 문제는 하나의 기술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실한 사람으로서의 작가의 도덕의리적문제, 작가의 창작적량심에 관한 문제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예술적형상의 진실성문제를 진실한 사람에 관한 문제로 규정하신것은 주체문학의 창조사업이 얼마나 참답고 고상한 정신적산물인가를 밝혀주는 빛나는 독창적인 사상이다. 주체문학은 오행수나 가식을 가지고는 창조될수 없는 진실한 인간학이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은 진실한 작가만이 창작할수 있으며 시대의 량심을 심장깊이 간직한 작가만이 창조할수 있다. 이것은 본질을 비본질로, 필연을 우연으로, 1차적인것을 부차적인것으로 뒤바꾸면서 전형창조를 거부해나서는 자연주의적반동작가들의 경우를 놓고 잘 알수 있다. 그들은 시대와 인민 앞에 량심을 저버리고 가식과 거짓으로 자기들의 저열한 인생관을 설교하기 위하여 아무렇게나 작품을 써낸다.

생활을 량심적으로 진실하게 반영하기 위하여서는 작가가 생활체험을 깊이 쌓아야 하며 탁상문학, 취재문학을 하는 현상을 없애야 한다. 사실상 탁상문학, 취재문학은 미리 짜놓은 구성안에 현실을 들어맞추는 극히 비량심적인 창작태도이다. 주체문학의 높은 인식교양적기능은 바로 작가들이 현실을 깊이 체험하면서 받은 강한 느낌을 생활그대로 진실하게 형상한데서 오는 힘이다.

문학작품은 진실해야 할뿐아니라 철학적깊이가 있어야 보다 견인력이 강해진다.

진실성과 철학성은 본래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면 그럴수록 철학적깊이가 더 잘 구현되게 되며 철학성이 구현되면 본질의 반영으로서의 진실성도 능히 보장되게 된다. 인간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 생활의 철학으로서의 주체의 인간학은 그 형상의 진실성과 불가분리적으로 통일되어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문학작품에서 철학성은 작가에 의하여 새롭게 발견되고 형상적으로 심화된 생활진리의 깊이이다.》**

문학작품의 철학성은 작품이 철학적인 양상을 띤다고 하여 보장되는것도 아니며 철학적인 문제를 취급하였거나 철학적인 내용을 담는다고 하여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며 더우기 《철학소설》이라는 소설형태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달성되는것도 아니다.

그것은 작가가 창작적량심을 가지고 인간의 심각한 운명문제에 옳은 해답을 주는 생활의 철학을 담기 위해서 창작적사색을 거듭하며 사람의 참된 삶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낼수 있는 깊이있는 종자를 탐구장악할 때만 보장된다. 철학적깊이가 있는 종자를 골라잡는것은 작품의 철학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인간문제의 심오성은 작품의 철학성을 담보하는 주되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구성과 세부, 대사에 이르기까지 형상의 모든 요소들이 심도있고 특색있게 가꾸어졌을 때 실현된다. 그러므로 작품의 철학성을 보장하자면 작가가 철학가가 되어 생활을 정력적으로 탐구하는 동시에 예술적언어의 능수로까지 될 때에만이 가능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형상의 견인력에 대한 심오한 사상은 주체문학의 형상이 인류문학의 력사에 하나하나가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영원히 아로새겨지게 할 길을 열어준 가장 위대한 사상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으로 작 **《주체문학론》**에서 밝혀주신 문학의 지성세계를 높일데 대한 형상원리는 시대의 요구를 심오히 통찰한데 기초하여 제시된 또하나의 빛나는 사상리론으로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문학의 지성도는 한마디로 말하여 형상세계의 이성적인 높이를 의미한다.》**

문학작품은 작가의 지적창조물이다. 문학작품은 단순히 객관세계를 수동적으로 복사하는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작가의 견해와 립장을 반영한다. 작가가 높은 지성세계를 가지고 현실을 분석하고 잘 형상하였을 때 그것은 사상에예술적으로 높은 풍격을 지닐수 있고 사람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동시킬수 있다.

문학작품이 그자체의 미학적특성으로 하여 감성적인 요소를 매우 중요시한다고 하더라도 이성적인것이 부족하면 작품의 높은 지성도를 보장할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작품의 사상예술적품위를 보장할수 없다.

특히 현대인들의 사상의식과 문화적소양이 시대와 함께 급격히 발전하고있는 조건에서 작가가 종래의 낮은 지성도를 가지고 현실을 반영하여서는 그들의 높은 지적요구에 만족을 줄수 없고 그들의 미학적요구에 대답할수 없다.

작가들은 문학의 지성도문제가 나라와 민족의 문명수준을 표현하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는데 대해서 심중한 고려를 돌려야 한다. 그 나라, 그 민족의 문명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것을 가늠하

자면 문학의 지성도가 얼마나 높은가 하는것만 보고도 능히 짐작할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학의 지성도를 높이는것이 시대발전의 합법적적요구이며 문학적형상의 본성적인 요구로 된다는데 대해서 심오한 해명을 주시면서 오늘 주체문학이 인민대중의 문화수준과 문명정도 한마디로 말하여 지성세계를 끊임없이 높여주어야 할 선도적역할로 보아서도 문학의 지성도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고 가르치시였다.

문학작품은 적어도 생활을 그리는 지적수준이 보통상식에서 훨씬 벗어나야 하고 무엇인가 지적으로 주는것이 있어야 한다. 결국 작품의 지성도가 높다 낮다 하는것은 작품에 보통사람들이 텔레비죤이나 신문, 라디오나 잡지를 통하여 알고 있는것보다 더 높고 풍부한 지식을 얼마나 주고 있는가, 사람들이 경탄하고 높이 올려다볼만한 고상한 미의 세계가 얼마나 개척되고있는가, 그 형상기교와 문화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다시말하여 작품의 세계가 얼마나 높은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총서 《불멸의 력사》의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이 지성도가 높다고 하는것은 해방직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얼마 안되는 남북의 지식인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그들의 지혜를 발동시켜 공장을 복구하고 **김일성**종합대학을 창설하신 알려진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있지만 풍부하고 감격적인 력사적자료와 원형인물들의 곡절 많은 생활에 대한 폭넓고 깊이있는 지성적인 탐구에 토대하여 높은 지성세계를 가지고 펼쳐보임으로써 알려진 세계를 훨씬 뛰어넘어서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일부 작품들은 거기에 담겨지는 지성세계가 높지 못하며 때문에 사람들이 새롭게 알고 받아들일만한 풍부한 지식이 없는것이 적지 않다. 이런 작품들은 주체문학의 인식교양적기능에서 특히 인식적기능을 약화시키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작품의 지성세계는 현대문학의 추세로서 내용과 형식의 모든 요소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표현되기때문에 내용은 물론 형식도 결코 문화수준이 낮은 저조한것이 되여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문학의 지성세계를 높이는데서 나서는 실천적인 방도에 대해서도 빛나는 해명을 주시였다.

문학의 지성세계를 높이자면 무엇보다 새로운 철학세계와 미의 세계를 개척해나가야 한다.

문학작품에 새로 발견된 생활철학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형상의 철학성과 관련되는 문제인 동시에 지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작품에 생활철학이 담겨져있다는것은 거기에 작가의 사색이 비껴져있다는것을 의미하며 바로 그 사색의 심도에 의하여 작품의 심도가 좌우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생활의 귀중한 진리를 담은 심오하고 독창적인 내용이 탐구되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작품의 높은 지성도를 느끼며 작품세계가 높다고 말한다.

문학작품은 인간생활의 미를 찾아내고 그리는 사회적의식의 한 형태이다. 그러므로 창작가들은 주체의 미학관에 서서 자주적인간들의 창조적생활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세계를 깊이 탐구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경탄을 자아낼만한 미의 세계를 개척해야 한다.

문학의 지성세계는 작품에 풍부한 인식적내용이 담겨져야 보장될수 있다.

사람들은 작품을 통하여 사상정서적으로 교양받을뿐아니라 인간과 사회, 자연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얻기를 요구한다. 이 요구는 과학과 기술이 고도로 발전된 현대사회에 와서는 더욱 커진다. 지능소실이라는 형태가 생기여 인기를 끌고 있는것도 이런 시대적추세에 기인한것이다.

그러므로 창작가들은 자기의 유식을 자랑하는 것으로써 작품의 지성세계를 높이려는 현상을 극복하면서 자기 작품에 사람들에게 인간과 사회, 자연에 작용하는 풍부한 지식을 주기 위하여 애써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인물형상에서 리지적인 성격을 옹계 살리는것도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이 실현되고 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요구에 맞게 작품의 인물형상을 높은 지적수준과 문화적소양을 가진 리지적성격으로 형상하는데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문학작품의 지성세계는 다만 거기에 담겨지는 풍부한 지적측면과 고상한 미적측면에 의해서만 담보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형상 수단과 수법, 형상기교를 독특한 재간을 가지고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활용하는것으로써 보장된다. 문학의 지성세계는 현대인들의 사상미학적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때만이 얻어지는 내용과 형식의 종합적인 표징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불후의 고전적로작 **《영화예술론》**에서 작품의 철학적깊이는 생활의 본질을 일반화하는데서 생기는것이지만 생활의 본질도 그것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일반화할 때에는 형상의 심오성은 보장될수 없고 인간성격의 본질과 사건의 깊은 내용도 다양한 시점에서 분석적으로 그럴 때 그리고 한 장면의 생활을 통해서 지난 생활과 앞으로의 생활을 다같이 생각하게 할 때 그리고 하나의 세부를 통하여 인간과 생활의 전모를 그려보게 할 때 달성된다고 가르치시였다.

문학작품에 심오한 생활철학을 안고있는 종자가 심어지고 그것이 사건위주가 아니라 성격위주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진실성과 철학성이 보장되고있으며 높은 지성도를 가진 내용을 가진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의 형상수단과 수법, 형상기교에서 높은 지성세계가 느껴지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의 사상루각이 되고만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로작 **《주체문화론》**에서 형상의 철학적심오성을 위하여 특별히 구성과 언어형상문제에 대하여 심오한 리론실천적해명을 주시였다.

사실에 있어서 작품의 심오한 형상세계는 궁극에는 구성작업에 의하여 종합되고 그 기본테두리가 확정되며 언어형상에 의하여 물질화된다. 그러므로 동서고금의 이름있는 작품치고 그 구성과 언어형상이 매혹적인것이 아닌 작품은 없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예술적 형상의 생리에 맞는 구성작업을 할데 대한 독창적인 창작리론을 밝혀주심으로써 주체문학의 형상수준을 새로운 높은 경지로 끌어올릴수 있는 뚜렷한 길을 제시해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에서는 종자의 요구에 맞게 구성의 대를 바로세우는것과 함께 구성을 예술형상의 생리에 맞게 엮는것이 아주 중요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구성을 예술형상의 생리에 맞게 엮는다는것은 인간관계, 갈등, 이야기줄거리를 모두 생활의 흐름에 맞게 짜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예술형상의 논리가 전적으로 생활의 흐름속에 놓여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창작자들은 생활적흐름속에 놓여있는 예술형상의 논리를 무시하고 구성을 주관주의적인 취미로 꾸며내도 안되며 문학의 형태상특성에 따라 그 논리가 차이나는 구성원리를 무시해도 안된다. 특히 여기서 창작자들은 종자의 요구에 가장 잘 알맞는 구성형식은 하나뿐이라는 관점을 바로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예술형상과 생리가 요구하는 생활논리와 성격논리에 맞게 인물관계와 갈등, 이야기줄거리를 엮지 않고 주관에 빠져 구성을 짜나가면 형상의 진실성, 철학성은 기대할수 없다. 또 예술형상의 생리에 맞는 작품의 구성은 작품마다 서로 다른 개성적인 형상을 창조할수 있게 하는 유력한 담보이다. 또한 예술형상의 생리에 맞게 엮여진 구성이어야 하나의 인물관계나 한토막의 일화, 세부들도 빠버릴수 없는 유기적인 요소로 될수 있다. 사람들은 이런 특성을 가리켜서 빈틈없는 구성이라고 말한다.

문학작품의 구성은 예술형상의 생리에 맞아야 할뿐아니라 깊이있게 맞물려야 한다.

문학적형상의 깊이는 구성을 깊이 짜는 작업을 떠나서 이루어질수 없다. 구성이 깨지지 못한 형상의 깊이에 대한 기대는 하나의 희망에 지나지 않으며 현실화되지 못한 깊이에 불과하다.

구성을 깊이있게 하자면 작가가 구성작업에서 잔재간을 부릴것이 아니라 인물관계를 그들의 인생관의 관계로 깊이 파고들어 엮는것이 중요하다. 오해선이나 착각을 가지고 구성의 깊이를 보장하기는 어렵다. 구성이 깊이를 가지고 짜여져 형상이 심오한것으로 안겨지게 하자면 등장하는 인물

들의 호상관계를 그들의 인생관의 대결과정으로, 생활철학의 대결과정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총서 **《불멸의 력사》**의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이 항일유격대가 엄혹한 자연과의 시련속을 뚫고나가는 이야기줄거리를 기본으로 하고있으면서도 그 구성이 결코 나무랄데가 없는 깊이를 보장하고있는것은 영웅적인 항일유격대와 야수적인 일제 **《토벌》**군이 각기 자기 나름으로 가지고있는 인생관의 대결, 자기 식의 생활철학의 대결과정으로 엮여갔기때문이다.

구성작업에 대한 이런 요구는 비록 준엄한 혁명투쟁주체의 장편소설만이 아니라 다른 현실주체의 단편소설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기된다.

단편소설 **《덕흥나그네》**는 정전직후의 한 립산사업소 객주집에 머물고있는 **《덕흥나그네》**라는 별호를 가진 인수원과 주인내외간으로부터 존대를 받고있는 **《사리원선생》**이라는 별호를 가진 손님 그리고 **《나》**셋과 주인내외의 인물관계를 그들의 인생관의 관계, 제나름으로 살아가는 생활철학의 관계로 엮음으로써 깊이있는 형상세계를 펼쳐보일수 있었다.

구성의 깊이를 보장하는데서는 이밖에도 그것을 조형미가 나게 립체적으로 엮는것이 중요하다.

원래 사람의 생활은 다양한 측면들이 동시에 립체적으로 전개되어가기때문에 그를 립체적으로 조형미가 나게 엮어야 생활반영의 진실성을 보장할수 있다. 생활을 평면적으로 보는것은 도리어 하나의 조건적인 방법이며 따라서 그것은 생활의 실질적흐름과 맞지 않는다. 이런 립체성속에서는 공부정의 인물관계를 기정사실화하거나 단순화하는것을 특히 경계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로작 **《주체문화론》**의 **《생활과 형상》** 마지막부분에서 언어형상에 문학의 비결이 있다는 심오한 사상을 천명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은 언어의 예술이다. 문학은 오직 언어를 통하여 인간과 생활을 그리며 사상감정을 전달하는것만큼 읽는 사람들이 작가의 능란한 언어솜씨에 매혹되어 한문장한문장 눈을 밝혀가며 새겨나갈수 있게 되여야 한다.》**

지금까지 언어형상에 솜씨가 없는 작가가 력사에 남는 훌륭한 작품을 써낸 실례는 없다. 아무리 큰 사상을 담고있어도 언어문장이 읽을 맛을 주지 못하는 작품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을수 없다.

문학이 언어의 예술인이상 작가는 무엇보다 언어의 능수가 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언어형상에 문학의 비결이 있다고 하는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일부 작가들의 경우에는 이런 중요한 언어형상기교에 응분의 주목을 돌리지 않고 작품을 거칠게 써내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력사적인 로작에서 언어형상에 문학의 비결이 있다고 강조하신것은

우리 문학의 이런 현실태를 깊이 통찰하시고 주신 경중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창작가들이 자기의 전투무기인 언어형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언어탐구에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 중요하다.

언어는 민족을 이루는 요인의 하나이며 민족성을 고수하고 발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자기 언어의 순결성을 지켜나가는것은 민족의 자주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분야를 이룬다.

언어형상에서 주체적립장을 견지하자면 력사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는 언어를 탐구하고 살려 써야 한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는 언어를 탐구리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문학언어가 갖추어야 할 원칙적요구를 해결하는것이다.

문학언어는 개별적인 사람들의 언어행위와는 달리 작가가 인민대중을 대상으로 쓰는 언어인만큼 손쉽게 써서는 안된다. 그것은 통속적이면서도 문화적이어야 하고 간결하고 명료하면서도 정확해야 한다.

문학언어는 작가에 의하여 다듬어진 언어이지만 인민대중이 늘 쓰는 입말을 적극 받아들여야 그 요구가 실현될수 있고 발전풍부화될수 있다.

인민대중의 입말은 우리 문학언어의 무진장한 보물고이다. 사실상 인민대중의 입말의 생동한 보물고를 풍부히 터득한 작가는 언어형상에서 막힐것이란 없는것이다.

언어형상에서 고유한 우리 말을 적극 살려쓰는것은 언어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인민대중의 입말과 고유한 우리 말의 표현은 문학작품의 형상성과 서정성을 높이는데서 큰 작용을 하며 참다운 조선식작품을 쓸수 있게 하는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를 놓고도 알수 있고 수많은 주체의 전시가사를 놓고도 알수 있다. 《샘물터에서》, 《전호숙의 나의 노래》, 《아무도 몰라》 등 전시가사들에는 고유한 우리 말만이 쓰이고있다.

언어형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외래어나 한자어를 될수록 우리말로 다듬어 쓰는것이 필요하다.

외래어나 한자어를 우리말로 다듬어 쓰는 문제는 한갓 문화어의 형상성을 높이기 위한 문제에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현시기 작가들이 민족앞에 조성된 내외형편에 비추어 매우 중요한 사회적임무로 되고있다는것을 자각해야 한다.

언어예술가인 작가들은 우리 당의 언어정책의 정당성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자기 작품에 평양문화어를 적극 살려 써야 한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민족의 자주성을 공고히 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승리를 고수할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주체문학의 언어형상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로서 사실주의원칙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여기서 기본은 언어구사에서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통일을 보장하는것이다.

생활은 작가에게 내용을 제공하고 내용은 그에 따르는 형식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심오한 사색이 안받침되지 못하고 내용이 없으며 깊은 뜻이 담기지 못한 현란한 언어형상은 형식주의이다.

정황과 대상에 맞는 언어표현을 탐구리용하는것도 언어형상의 중요한 사실주의적요구로 된다. 정황과 대상에 맞지 않는 언어표현은 그것이 다듬어진 언어라 하더라도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상을 외곡하게 된다. 그것은 말이란 때와 장소, 격에 맞아야 하기때문이다.

언어구사의 사실주의적원칙은 개성적인 참신한 표현을 탐구할것을 중요한 요구로 한다.

말은 본래 그 사람이라고 한다. 언어에는 인간의 개성이 그대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성격형상에서도 그렇고 생활묘사에서도 그렇고 문학어는 개성화될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언어형상의 개성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자기의 독특한 문제를 확립하는것이 중요하다. 작가라면 웅당 많은 어휘의 소유자, 언어구사의 명수로 되여야 하고 거기서 자기의 개성을 나타내야 하며 그를 위한 피타는 노력을 쌓아야 한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의 《생활과 형상》은 주체문학창작의 형상원리를 심오한 내용과 정연한 논리로 독창적으로 밝혀준 백과전서적인 창작리론이다.

로작의 《생활과 형상》은 인류문학의 형상리론을 심오한 원리와 빛나는 정식화로서 끝없이 발전풍부화시킨 불멸의 리론실천적보물고로 된다.

작가들은 이 지도적지침을 창작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시대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는 우리 식 문학작품을 더 훌륭히, 더 많이 창작하여 인민들을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힘있는 옹호자로 더 튼튼히 키우기 위하여 자신의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야 할것이다.

## 나의 시, 나의 삶

김철혁

### 그 시간에 살리라

어디 보자

친애하는 그이의 시선이  
아직도 머물러있는듯  
한자한자 더듬어가시던  
그 온기도 따스히 어리어있는  
한없이 소중한 나의 원고지

내리는 눈물조차 야속하구나  
침상의 영예군인이 쓴 시라고  
그렇듯 따뜻한 사랑을 담아 보아주신  
이 글줄들 얼룩질가봐

아, 어쩌면  
그 천금같은 시간의 한분 한초가  
나를 위해 바쳐질수 있단말인가  
천하를 굽어보시는 그 시선이  
이 작은 원고우에 머무를수 있단말인가

뜨거움에 뜨거움에 목이 메여서  
자꾸만 흐려지는 나의 눈앞엔  
한없이 자애로운 그이의 영상  
내 운명의 갈피를 헤아리시듯  
한장한장 원고를 번져가시는  
친애하는 그이의 모습

-나의 옛 총번호를 새겨달라!-  
옛 중대에 다시 서고픈  
나의 불타는 심정  
소박하게 적혀진 그 글줄들 넘어  
그이께서 보아주신것 무엇이던가

걸어온 길  
걸어갈 길  
내 삶의 그 모든 나날을  
천금같은 그 한초한초속에  
다 불러보시며

어제날에 혁명을 위해  
총을 잡았기에 맥박치던  
나의 삶  
이제는 시로서만 다시 살수 있음을  
천재의 예지 빛발치는 시선으로  
그 순간에 다 내다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 《김정일》!

손수 원고우에 수표해주시여  
그 크나큰 이름과  
나의 온 생애를 련결시켜주시었어라  
또다시 총잡고 참호에 선듯  
나의 시로 전투행진곡을 울리고울리라고

아, 다시 태어난 기쁨이여  
이제 내앞에  
한생이 그 몇번 다시 온다 하더라도  
언제나 그 시간속에 살리라  
그이의 따뜻한 시선이  
내 원고우에 머무시던  
그 영광의 시간속에...!

### 밤비소리

문득 잠을 깨는  
이 깊은 밤  
창문을 두드리며 내리는 밤비

내 마음도 조용히 두드리는가  
왜 이리 즐거운가

이 어둠속에서도  
한껏 푸르러질 잎새들을 그려보기가  
부풀어오른 땅우에서  
내 걸어온 병사의 길  
어제날의 자욱을 돌이켜보기가

그날의 비소리가 들려오누나  
전초선의 밤  
철갑모를 두드리던 그 소리  
풀잎을 깔고누운 숙영의 밤  
후두둑 천막우에 떨어지던 그 소리

지꽃게도 헤살쳤더라  
폭우 쏟아지던 행군의 령길에선  
걸음걸음 진창으로 발목 묻으며  
진지굴설의 폐장을 지고달릴 땐  
잔등에 흙물로 흘러내리며...

그래도 우리는 웃었다  
퇴성을 눌러닫고 노래를 불렀다  
젖은 군복에 전투장구 걸머진채로  
비물이 섞인 밥도 달게 먹을 때  
젖은 땅 마른 땅을 골라가며 디뎠으랴

내리는 비를 피해 걸어왔으랴

하기에 후송의 담가우에  
내 정신없고 누웠던 그때  
그처럼 간절히 내 넋을 흔들어깨우며  
열에 뜬 얼굴에 후둑후둑 떨어지던  
그 비방울의 차거움조차  
어느 뉘의 고마운 손길 같았나니

아, 그래서 내 추억속에선  
언제나 즐거움인 저 밤비소리  
당이 안겨준 무장을 메고  
지겨운 그 모든것 이겨온 자랑 없이야  
따뜻한 잠자리에 누워  
이밤의 저 소리 듣는 마음 어이 편하랴

해 좋은 날 걸을 때나 다름이 없이  
저 비속 먼길을 웃으며 달려온 내 청춘  
기쁘다 즐겁다  
밤비소리 그침없을수록  
내 조국과 더불어 나누는  
기쁨과 행복의 이야기도 끝이 없나니...

## 나의 어머니

고요한 밤  
미달이너머  
내 어머니 뒤척이는 소리  
그 소리에 내 잠시  
달리던 펜을 놓는다

이젠 그만 쉬라고  
이르면서도 당부하시면서도  
탁상등 불빛 당겨놓아주고  
발걸음 조심히 돌아나가지더니  
이밤도 나와 함께 잠 못드시누나

시가 무엇인지 다는 몰라도  
내 고심하는 이 병사의 시에  
도움을 주고싶은 마음  
그 어느 상상의 하늘을 날으시는가  
포화속의 쌍태머리  
옛전사의 추억을 더듬으시는가

내 부상당해 돌아왔을 땐  
눈물을 보이지 않으시던  
주름깊은 그 눈곱  
내 첫 시를 펼쳐들었을 땐  
그리도 뜨거운 이슬에 젖으시던 어머니

할일은 그때부터였던듯

모든것을 다시 시작하시였어랴  
책가방을 메워주시듯  
책장은 내 침상 가까이  
펜대와 원고지는 내 손 가까이  
다심한 그 손길이 꾸려준 이 《진지》

눈시울 뜨거워오누나  
모든것을 더 밝게 내다보라고  
창유리를 닦아주시던 그 마음을 생각해도  
내 바라는 책 한권을 안고  
비발속에  
치마자락 젖어오시던 그 모습을 그려봐도...

시가 무엇인지 다는 몰라도  
머리 흰 여생을 또 여기 바치심은  
어릴적의 내 글읽는 소리  
이 시속에 다시 들기때문이지리  
초소로 내려주던 그날의 기쁨  
이 시속에 다시 안아보기때문이지리

아, 이 나라의 어머니된 도리  
아들을 키워  
조국에 한번 바친것으로는 다할수 없어  
이제는 대공을 나는  
시의 날개를 주어  
당의 아들로 다시 내세우시려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고마워  
내 써가는 어머니에 대한 시속에선  
언제나 함께 태어나고 태어나리라

위대한 당을 어머니로 섬기는  
영원한 아들의 진정에 찬 노래들이...

## 조국과 나의 청춘

잃으면  
다시 못찾는것이  
생인줄을 몰라  
내 그 한끝으로 달려갔던가

주저없이  
원췌의 총탄을 막아  
애오라지  
병사의 의무를 지켜...

내 가슴 내대인곳  
사랑과 증오가 불길처럼 타오르던 그곳엔  
나의 조국을 지키라고 나를 부르는  
어머니당의 목소리가 있었거니

자부하노라

비뿌리던 전초선의 그밤  
내 생명보다 먼저 청춘보다 먼저  
참호뒤에 펼쳐진 그 땅  
나의 조국을 생각했음을

바친 그 젊음이 옮겨진듯  
지켜낸 이 땅의 산과 들에  
살랑거리며 하느적이며  
일새들은 한껏 푸르러...

아, 귀하다는 생  
아껴 구해도 백살을 못넘기지만  
어머니당의 부름에  
아낌없이 바치자 한번 나섰더니  
조국은 나의 젊음을  
영원한 푸르름으로 이어주었어라

## 이것이 나의 삶이다

나는 총알이 되고싶어라  
동강난 이 강토와 더불어  
타끓는 나의 분노  
총알이 되어  
원췌의 숨통을 꿰뚫리

나는 불길이 되고싶어라  
땀 흘리는 조국에  
무언가 바치고픈 나의 열망  
대건설의 거세찬 불길속에  
하나의 불씨되어 함께 타오르리

나는 붉은기아래 선서한 전사  
침상에 누웠다고 투쟁을 멈추라  
잠모르는 심장처럼  
아, 자나깨나 그 자각에 불타는 이 마음

공병삽에 불꽃튀던 전호의 밤은  
원고지를 번져가는 이밤에 옮겨왔노라  
적정천리에 번뜩이던 시선은  
돌격선을 향해 육박하듯  
여기 탐구의 글줄을 따라 달리노라

가꾸어 피운 꽃을 즐기듯  
예술의 흥취를 맛보기 위함 아니다  
내 밤새워 시줄을 토했아함은...  
당의 명령 받들어 고동치던 나의 삶  
오늘은 시줄로만 계속 이어질수 있기에

온 넋을 쏟노라

이글이글 끓고끓다  
마침내 분화구를 찾은 용암이여  
너의 그 힘 그 열정을 나에게 다오  
서리발 증오와  
불같은 사랑에 끓는 이 심장  
내 시의 분화구로 터치리니

그렇게 터쳐나온 나의 노래  
병사들의 발걸음엔  
칼벼랑을 날아넘는 날개가 되라  
원췌의 머리우엔  
멸적의 불벼락이 되라

오, 숨을 쉬면 다 삶이라  
숨을 쉬어도  
당의 숨결로 숨쉬고  
당의 위업에 열정을 바치는 동안에만  
내 삶은 빛나고  
기쁨도 행복도 차넘치거니

그래서 오늘도  
불길처럼 태워가는 삶  
총신강을 떠난 총알처럼 바쳐가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이다  
이것이 나의 삶이다



# 명제해설

《문학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서는 생활인식적기능을 높여야 한다.》

김 정 일

문학이 생활인식의 주요한 수단으로, 힘있는 수단으로 되려면 생활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정당하게 진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그것은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는 문제가 문학의 본성적요구로 되기때문이다.

문학은 생활인식적기능을 더욱 높여야 사람들로 하여금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리해하고 보다 훌륭한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떨쳐나서게 할수 있다.

문학은 인간생활에 필요한 폭넓고 풍부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통하여 사람들은 1930 년대 우리 나라가 처하였던 사회현실을 실지 체험한것처럼 폭넓고 풍부히 알게 되며 다양한 지식을 깊이있게 리해하게 된다.

작품은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이 왜 우리 나라를 침략하게 되었는가를 심오하게 보여주고있다. 또한 작품은 혁명이란 무엇이고 왜 혁명을 해야 하는가를 모르던 어머니가 남편과 아들딸의 영향하에 점차 혁명을 인식하고 투쟁으로 나아가게 되는 생활과정에 대한 진실하고 의의있는 묘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모순과 악덕으로 가득찬 당대의 사회현실에 대한 깊고도 폭넓은 인식을 준다.

이처럼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학의 인식적기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작가는 한편의 작품을 써도 그것이 생활인식적기능을 수행할수 있게 품을 들여 여러모로 심사숙고하여 창작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것은 여기서 생활을 여러 측면에서 풍부하고 다양하게 보여주는것이다.

작품에 묘사된 인물형상이 외표으로 단조롭게 되어서는 생활을 본래의 모습그대로 풍부하게 보여줄수 없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문학이 생활인식의 힘있는 수단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생활의 본질을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가령 제철소 로동계급의 생활을 그린다면 로동계급의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이 나래치는 철의 도시의 생활전경을 현실그대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제철소에 직접 가보지 않고도 제철소에서 생활하는 로동계급과 조금도 다른없는 생활감정에서 그것을 산 체험으로 받아들일수 있는것이다.

이렇게 할 때만이 생활의 본질을 옹게 밝힐수 있으며 생활인식적목적을 훌륭히 달성할수 있다.

문학의 묘사대상에는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뿐아니라 생활의 여러 분야 모든 영역이 다 포괄되며 한 작품안에서도 생활분야가 국한되거나 한정되어있지 않고 여러갈래로 복잡하게 얽혀져있다.

문학은 복잡한 인간생활을 그 본래의 모습 그대로 묘사하여야 생활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보여줄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자기들이 창작한 작품이 생활인식의 힘있는 수단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

가사

## 수를 놓아요

김정호

일 잘하고 마음고운 농장처녀들  
청실홍실 골라서 수를 놓아요  
필필이 비단천 한폭 다듬어  
군민일치 축기를 수놓아가요

일손 바쁜 모내기 도와준 병사  
한몸으로 저수지도 막아준 병사

못잇을 얼굴들 그려보면서  
한뼘 두뼘 정성담아 수를 놓아요

피줄처럼 흐르는 혈육의 마음  
축기우에 꽃글자로 피여났어요  
하나로 뜨거운 군민의 정이  
초소와 마을을 이어놓아요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에서 자기들의 광명한 미래를 내다보고있으며 당의 령도가 있는 한 주체의 혁명위업을 반드시 완성할수 있다는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고있다.》

김 정 일

수필

## 정일봉에 비낀 화폭

서봉제

무릇 모든 생각의 실머리는 단순한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제 내가 하려는 이야기도 아담한 사진관의 화강석층계에서 시작된다. 세멘트와 백두대지의 부석을 혼합가공하여 송곳망치로 보기좋게 쪼아 다듬은 높지 않은 계단으로 여러 사람의 발걸음이 오르기도 하고 드바빠 내리기도 한다. 노란 금빛문손잡이를 열고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또 나오는 사람, 사진관은 붐비고있다.

마당가에 내려선 모두의 얼굴은 이름못할 기쁨이 어려있다. 그들모두의 시선은 저저마끔 손에 받쳐든 천연색사진의 화폭에 모아진다.

《야-야》하는 탄성과 함께 어쩔줄을 모르는 그들은 혁명의 성지 백두밀영에 답사차로 온 대학생들, 소년단원들, 들끓는 로동현장과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들에서 온듯싶은 혈색좋은 청춘남녀들이다. 지금 그들은 백두밀영고향집뜨락에서 그 이름 빛나는 정일봉을 배경으로 하여 찍은 사진들을 보고있다.

아침나절에 찍은 사진을 점심결에 찾아가지고 나오는 답사생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함뿍 어렸다.

밀림의 바다우에 떠가는 함선인양 맑은 하늘에 풀색지붕을 이고 갖가지 모양의 답사숙영각과 어깨나란히 2층으로 뽕죽지붕을 한 《백두밀영 천연색사진관》에서 답사생들의 이 즐거움이 흘러나온것이다.

그들의 기쁨에 싸인 모습을 마당가에서 바라보고있던 나는 바로 이 사진관을 엄동설한의 눈보라속에서 건설한 전국당선전일군돌격대 개성시 대대장 리세현동무에게 한마디 건넸었다.

《대대장동무, 저 동무들이 이 천연색사진관의 건설자들이 누구들이었던지는 아직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있는것 같구만요.》

랑림산줄기의 장진태생으로 사람 좋고 든중한 체모의 성격적인 대대장은 넋지시 웃음을 띠우며 대답했다.

《이 사진관의 건설자들이야 모르고간들 뭐랍니까, 다만 위대한 존함이 모셔진 정일봉이 비껴있는 저 한장한장의 사진화폭에 깃들어있는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당의 은정깊은 사랑과 배려를 다 새기지 못할가봐 그것이 문제지요.》

답사자들의 웃음은 그치지 않았다.

하얀 붓나무숲의 푸른 잎새들이 혼풍에 살랑거리고 여기저기 향기를 풍기며 피여난 넓은 일정한꽃송이, 여러가지 키낮은 꽃나무와 땅에 바싹 드러누운 고산의 산꽃들이 만발한 답사숙영소의 정원에 앉아있는 그들의 즐거운 모습은 건설자들의 가슴에도 나의 마음속에도 하많은 추억들을 속삭이고있었다.

자연색 그대로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사진의 화폭에 붉은 색의 글발이 숨엄히 비낀 정일봉-

마치 고요한 호수에 떨어진 하나의 조약돌이 기슭의 숲가녁으로 잔잔한 파도를 소리없이 밀어가듯이 나의 상념은 수면우를 구울러가기 시작했다. 3년전 아늑한 내집에서 백두밀영으로 떠난 일이 문득 떠올랐다.

어둑새벽부터 나는 먼길을 떠나갈 행장을 꾸리었다. 책이며 원고지며 내의와 비옷, 군용밥통 등속을 차비하여 배낭에 차곡차곡 넣었다. 한두달, 한두해도 아닌 여러해의 살림살이를 예견하고 꾸리는 행장이었다. 사회주의건설의 주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대상건설장들에 작가들을 널리 파견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 의해 나는 혁명의 성지 백두산밀영에 3년간의 장기파견장을 받아취고 현지체험의 길을 자진하여 떠나게 되었던 것이다.

《여보, 지금 나의 마음은 백두밀림으로 찾아가는 유격대원의 심정이요. 그날의 유격대원이 된다고 생각하니 어쩐지 마음이 든든하구만.》

옆에서 거들던 안해는 나의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다.

《먼길을 결심품고 떠나는 사람의 기분이 좋다니 뻬어요.》

그때 나는 마치도 《유격대원》 같았고 배낭을 등에 지워주던 그는 유격대로 사랑하는 남편을 바래우던 안해같이 보였던것이다.

1988년 3월, 내가 삼지연으로부터 백두밀영까지 도보로 행군해가던 때는 눈석이가 한창때였다. 숲속 여기저기서 눈석이물이 흐르고있었다.

나의 행장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무어주신 《백두밀영 혁명유적유물발굴조사대》의 귀틀집에 내리워졌고 나는 발굴대원으로써 숲을 헤

치고 산밭을 넘고넘으며 한그루의 나무, 한줄의 흙, 하나의 조약돌, 하나의 웅달샘도 스침이 없이 영예로운 발굴의 나날을 보내었다.

어느날 밤엔가는 사자봉밀영지구 3 구역으로 발굴을 떠났다가 억수로 퍼붓는 비와 벼락, 우뢰로 소백수굴의 귀틀집 본대로 돌아오지 못하고 분비, 가문비나무가 짝 들어찬 원시림속에서 밤을 새우게 되었다. 바람이 불 때면 우듬지에서 비물이 쏟아졌다. 발굴대원들속에서 그중 나이가 어린 송동무는 내옆에서 조용히 숙삭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온몸이 흠뻑 젖어 우등불결에서 밤을 새우는줄을 집에서는 알거나 할가요?》

《송동무, 우리가 걷는 이 길을 항일혁명투사들이 먼저 헤쳐가지 않았겠소. 나는 좋구만. 언제 사자봉밀영에서 이런 비를 맞아보고 투사들처럼 우등불을 피우며 새워보겠소.》

《글을 쓰는분들은 생각하는것이 다르구만요. 모든걸 다 달게 여기니 말입니다.》

《달게?! ...》

그의 말이 나의 심중에 고맙게 안겨왔다. 우등불가에 다가서는 송동무의 얼굴에는 화기가 돌았다.

《송동무, 발굴대동무들과 함께 산밭을 타며 숲을 누벼갈 때 나는 늘 내가 혁명군대원이라고 생각키우는구만. 더구나 그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찾아다니니말이요.》

《유격대원! 히야... 하기가 그 말뜻이 옳지요.》...

백두산야와 끝없이 펼쳐진 밀림우에 록음이 한창 질어가던 8월 어느날이었다.

조선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탄생하신 백두밀영이 개영된후 그 언제나 문이 활짝 열려있던 력사의 고향집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친히 찾아오시였었다.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다시 찾으시여 백두밀영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발굴대원들이 나라와 후대들을 위해 아주 좋은 일을 하였다고 높이 치하하시면서 우리 발굴대원들을 불러주시였다. 부르심을 받고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은 어버이수령님께 백두산밀영지구에서 발굴한 유적유물들과 구호나무들을 보여드리게 되었다는 크나큰 걱정과 행복감으로 하여 한없이 설레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리들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고 발굴대원들이 삼가 올리는 꽃다발과 인사를 받으시며 동무들이 정말 수고했다 하시고는 감격에 흐느끼는 발굴대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였으며 고향집아래 봇나무숲을 배경으로 하여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발굴대원들은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감격에 목매여 눈물을 흘리면서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고향집프락을 오래도록 거니시면서 잊지 못할 력사의 그날들을 회고하시여 뜻깊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였다. 우리는 또다시 끝없는 격정에 휩싸였다.

2 월의 장엄한 해돋이를 맞이하던 그날에 《아, 조선아, 백두성 탄생을 알린다!》고 항일의 투사들이 목매여 터치던 환호인양 한없는 기쁨과 감격을 온 강토에 전하며 백두밀림은 끝없이 파도치며 설레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깊은 뜻을 받아안은 우리 인민의 마음은 그 순간부터 간고했던 항일혁명의 증견자로 높이 솟아 시대와 인민의 지향을 안고 그 이름 찬란히 빛나는 정일봉으로 해일마냥 달려왔다.

위대한 존함의 글발을 백두의 천연바위에 새기는 력사적인 건설이 시작되었던것이다.

인민의 다함없는 충성심은 하늘에 닿아 끝없는 마음들이 백두밀영 소백수굴로 향하였다.

1988년 11월 15일 흰눈이 내려 설경을 이룬 백두밀림의 바다우에 고무풍선들이 날고 력사의 순간을 알리는 만세의 환호가 터져올랐다.

제막테프가 끊기고 흰 가림천이 벗겨지자 눈부신 화강석대돌에 새겨진 《정》, 《일》, 《봉》의 글발이 붉은 빛을 뿜으며 온 누리를 물들이었다.

받아안은 감격을 금치 못하여 시인들은 정일봉을 우러러 뽐는 가슴들을 터치였다. 그들은 의리의 제일봉, 사랑의 제일봉이라고 구가하였으며 하늘에 새긴 저 글발은 그이의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의 온 우주라고 격조높이 노래하였던것이다.

참으로 그것은 우주가 처음으로 품을 열어 간직한 숭고한 이름이었다!

그 이듬해 8월의 록음은 백두밀림에 그윽한 산꽃향기를 풍기였고 류다른 푸르름을 장식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또다시 백두밀영을 찾아주셨던것이다.

붉은 글발로 아로새겨진 정일봉을 고향집프락에서 바라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바위에 글을 아주 잘 새겨넣었다고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짧은 기간에 건설자들이 큰일을 하였다고 높이 치하하시고는 혁명전적지답사자들이 정일봉을 배경으로 하여 사진을 찍으면 매우 좋아할것이라고 은정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이처럼 어버이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받들려 《백두산밀영 천연색사진관》은 인민을 위한 사랑의 집으로 밀림속에 솟아나게 되었던것이다.

정일봉이 우뚝이 비끼는 사진 한장한장에는 그로록 깊고 뜨거운 어버이사랑이 깃들어있기에 답사자들의 가슴은 융암을 안은듯 뜨거워지는것이며 이처럼 기쁨에 휩싸이지 않겠는가.

봄이면 연분홍빛 진달래 산정의 벼랑가에 피여 웃고 여름이면 하얀 구름국화가 벌나비를 불러들이고 가을이면 타는 단풍이 깎아세운 층층기암을 붉게 물들이고 겨울이면 푸르른 전나무가지에 축담마냥 눈꽃이 덮이는 은빛 설경에 찾아오는 사람마다 무아몽중이 되어 눈길을 못떼는 정일봉!

어찌 자연적인 의미만이 담겨졌다고 말하겠는가. 이 숭고한 화폭속에는 세월의 한끝까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길이 받들어갈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담아 항일의 력사로 빛나고 불멸의 위업으로 그 위용 만방에 떨치는 백두의 정일봉, 조선의 정일봉이 높이 솟아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나는 회억에서 깨어났다.

이야기를 듣고있던 대대장이 자못 흥분한듯 공원의 의자에서 일어섰다.

《체험이 감동적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그대로가 작품이 되지 않습니까?》

나의 이야기가 그에게 얼마나 깊은 감흥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나대로 되려 얼굴이 뜨거웠다.

《감동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작품으로 다 된다고는 말하기가 이르지요. 생활을 전형화의 원칙에서 재가공해야 하는 작가의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창작을 전투라고 일컬는 때가 있지요.》

나는 대대장에게 오늘 련대정치부에서 받아든 로동신문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정일봉을 찾아왔던 재일동포 홍영우의 감상기록이 실려있었다.

그로 말하면 백두밀영건설 전국당선전일군들 격대 전투장에서 못사람들을 잘 웃기면서 충성의 구슬땀을 바치고 간 인상깊은 해외동포의 한사람이었다.

그의 진정은 절절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정일봉을 안고살기에 주체의 기치,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정일봉은 우리 민족에게 영원한 생기와 활력을 주는 주체의 희망봉, 불멸의 봉우리다.

우리 인민은 언제나 정일봉을 우러르며 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고야말것이다.

민족의 향도성을 모시였기에 조국과 민족의 미래는 창창하다.

민족의 자랑인 정일봉은 영원히 높이 솟아 빛날것이다.》

내가 짧지 않게 돌격대의 한 대대장과 나는 이 회억의 이야기는 평범한 사진관의 높이 많은 화강석층계에서 비롯되었으나 탁월한 지도자, 희세의 위인, 혁명의 령수에 대한 이야기로 하여 우리 인민과 더불어 온 인류가 흠모의 마음으로 우러러보는 정일봉은 의리의 정수, 신념의 정수의 깊은 세계를 담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반세기의 찬란한 력사와 우리 당의 위업을 안고 인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빛나며 온 세상 인민들의 흠모의 마음속에 거연히 솟아있는 정일봉의 숭엄한 웅자는 그 어떤 역풍이 불어오고 폭풍이 불어와도 끄떡없는 우리 인민의 철석의 의지를 담고있어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것처럼 소중한 귀중한 불멸의 화폭으로 되는것이다.

그 영원한 화폭속에 다름아닌 내가 있고 우리 인민이 있고 해와 별이 찬란한 무궁조국-내 나라가 천상에 높이 머리를 들고 찬연히 빛나는것이 다!

-백두밀영에서-

## 가사

# 흙갈이전투로세

변흥영

흙갈이전투로세 풍년맞이전투로세  
밭에도 논에도 새 흙을 퍼가세나  
여보소 동무네들 이제 어떤 땅이요  
수령님 사랑 어린 소중한 땅이랴오

흙갈이전투로세 풍년맞이전투로세  
흘리는 구슬땀이 난알이 되리라

여보소 동무네들 이제 어떤 땅이요  
수령님 뜻이 어린 귀중한 땅이랴오

흙갈이전투로세 풍년맞이전투로세  
기름진 농장벌에 금나락 설레이리  
여보소 동무네들 이제 어떤 땅이요  
수령님 한평생 가꾸시는 땅이랴오

## 내나라의 모든 산들에

전찬기

### 백두산, 너로 하여

고결하여라 흰눈 이고 솟은 백두산이여  
태고연한 수해에는  
침침 무거운 정적 깃들었구나  
음영질은 너의 깊은 품속에선  
오, 차넘치는 싱그런 산향

조심스러운 산새의 길안내를 받는듯  
영킨 가지 영킨숲을 헤치고  
산양도 불기 저어할  
바위벼랑도 훨훨 넘어서가면

땀뿜은 보람으로 찾아보는  
풀송구리밑에 고이 간직된  
또 하나의 우등불자리,  
흘러간 세월의 연막 들쓰고있는  
구호나무의 소중한 글발들

백두여 사연많은 네 수해의 구석구석까지  
내 언제면 다 살펴보라  
오늘도 력력한 투쟁의 자욱자욱으로  
전설같은 이야기 전하는  
찾아찾아도 다시 또다시 있는  
고귀한 우리 혁명의 그 재부 많고많아라

항일대전의 날 투사들의 발자취 어린곳

오늘은 이끼두텁고  
송라너슬 끝없이 영킨 갈피갈피에서  
력사의 자취 찾아보게 되는 이 길에선  
언뜻 풍기는 풀내  
그날의 포연처럼도 느껴져...

오 백두산  
네 뿜어번지는 용암을 뿜어올려  
이 나라 조종의 산 되더니  
너의 밑림에서 타오른 주체의 해불은  
시대의 해빛으로 온 세상에 빛발치는가

백두산 백두산  
네 갈피갈피의 뜨거운 전설로 하여  
왜적의 손에 숨죽있던 조선이  
치욕두텁던 그 력사의 사슬을 박차고 일어나  
자기의 모습, 자기의 빛갈, 자기의 향기를  
세상에 찬연히 시위하고있나니

아, 찾으면 찾을수록  
너 안고있는 재부의 심원한 세계는  
내 조국의 어제와 오늘 래일을 다 안고  
더더욱 거룩하게 안기여와라  
내 조국의 조종의 산이여

### 내 고향 금강산

내 고향 금강산  
천하제일강산  
너의 일만경치를  
하늘도 아끼여라

봄에는 만발하는 꽃들로 수놓고

가을에는 불타는 단풍으로 물들이고  
한여름 잎새들 한껏 우거질 때도  
천태만상 네 기암들 가리우지 않더니

이 겨울날에는 내리는 흰눈도  
전설 깃든 네 바위바위의 기기묘묘한 모양

차마 덮어버릴수 없어  
곶밖에만 무독히 숨어쌓이는구나

바람도 네 아름다움 지켜 눈송이 날리는속에  
치솟아 폭풍에도 끄떡없는 금강산  
네 서슬 푸른 기상  
이 겨울날 더 돋보여 내 가슴 설레인다

아 고향의 산아 네가 주는 향취는  
가슴속에 영원히 못지으려니  
오래 몸이 뻥 향수 사람들마다 있어도  
그 모두를 잊으리 우리 금강산앞에 선 그 한  
순간에!

## 숲이 자란 그만큼

고요-  
우거진 숲의 설레임도  
고요를  
오히려 더 느끼게 하는곳

전화의 그 나날  
우리 화선병사들의 집이었던  
그 갯도며 전호에도  
고요는 깃들었다

청소한 공화국이 달려든 침략자와 판가름할 때  
위대한 수령의 령도 빛발쳐  
억센 삶과 신념의 필승을 시위한  
50년대 전승의 기념비 1211 고지

이 땅우에 덮인 년륜 마흔겹이  
불타고 뒤집힌 이 고지에 숲을 받들며

살륙의 총포탄소리 다 밀어내서  
여기 풀 한포기도 이처럼 유정한가

고요는 전쟁을 의미하지 않건만  
분계선 저 가시철조망  
원썩의 준동을 날카롭게 깨우치며  
분노로 마음의 탕개 조이거니

숲이 자란 그만큼  
원썩을 향한 증오도 커진 우리 인민,  
흘러간 그 세월만큼  
강철주먹도 더 자란 조선

고요속에 자라는 우리 힘을 온몸에 느끼며  
이름없던 이 산정이며  
영웅의 봉우리로 솟아오른 력사 생각하며  
아, 필승의 숨결로 내 심장은 뛴다

## 번개난다, 우뢰운다

번개난다  
우뢰운다  
혁신하는 쇠돌산  
땀흘리는 철산봉

방금 한교대하고나  
웃음 빙그는 얼굴들에도 작업복에도  
번쩍이는 쇠돌가루  
미더운 모습들

사랑어린 대형굴착기들은  
부지런히 퍼담고  
은정깃든 대형자동차들은  
산더미들처럼 실어나른다

예로부터 쇠돌은 캐였어도  
고역에 피땀을 뻘릴 땐

한숨소리, 울음소리만 높던 이 산정을  
누가 기적의 봉우리로 빛내였던가

고마움을 노래하며 힘차게 돌아라  
대형회착기들아  
돌아라 쉬임없이  
대형착정기들아

철산봉은 보화의 산,  
내리는 당의 사랑  
올리는 로동계급의 충성이  
백리산정에 빛발쳐넘치는 일터

보답의 그 일손에서  
번개는 난다  
보답의 그 마음에서  
끝없이 우뢰는 울리고울린다

## 묘향산의 향기

향기  
향기  
생각 깊어지게 하는  
묘향산의 이 향기

온 세상 향기 다 풍기는  
국제친선전람관  
정숙하고 승엄한 호실마다에서  
넓게 편 가슴을 진정 못하네

해빛아래 별빛아래  
풍기여 넘치는 짙은 향기, 오묘한 향기

말없는 묘향산아 말해다오  
이 향기 무엇이나

인간자주의 해발을  
가슴가슴에 안은  
온 인류의 마음의 향기  
온 세상의 녀의 향기

달아오른 내 마음  
아아 우리 수령님을 우러르네  
우리 당을 우러르네  
향기에 목메며 감격에 목메이며...

## 내 나라의 모든 산들에

이제는 다 돌아보았는가  
내 나라 모든 산들을  
밟아보니 산도 많아라  
귀기울이니 이야기들도 끝없어라

잊을수 없는 그 모습들  
다 자란 아들의 가슴에  
새삼스레 어머니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마음 간직하게 해준 정다운 모습들

땀으로 미역감으며 오르던 백마산이여  
끝짜기며 봉우리마다  
펼쳐놓은 물, 바위, 숲도 절경이더라만  
네 상상봉에 올라 한눈에 바라보던  
일망무제 간석지 이삭과도의 그 황홀경을  
내 잊을수 있으랴

산등이 뭉쳐 꺼져내린  
룡문산 오르기도 험치 않더라  
수천개의 탄을 캐는 막장들을 지나니  
산마루에서는 안겨오더라  
북창이며 순천의 수많은 굴뚝들  
그래서 너 그토록 많은 탄을 내어주는것인지

못잊어라  
태백산줄기의 지붕 황룡산에서  
풍어기 날리며 들어오는 고기배들과  
맑은 바다 출렁이는 기슭에, 바다 한가운데  
동해팔경 바라보던 그 황홀함을

찾아보는 산과 산들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취하기는 얼마였고

이끼푸른 옛성돌들을 짚고  
왜적 치던 선조들의  
활시위소리, 말발굽소리 듣기는 그 얼마였던가

다 전할길 없으랴  
로동당의 해빛이 찬란하게 비쳐  
세월이 갈수록 새 전설들 샘처럼 태어나  
나날이 빛을 뿌리고  
산은 산마다 보화의 산으로 빛나거니

어찌 다 전하랴  
칠보산, 월출봉 나팔산이야기...  
구월산, 양덕산, 구성산 이야기...  
우리 나라는 산도 많고  
가슴뜨거운 전설도 많은 나라임에

그 뜨거움속에 바라보노라  
아스름히 어려오는 저 삼각산  
그너머에 있을  
지리산, 한나산도 그려보노라

항쟁의 《호랑이》들 묻혀있는 무등산이  
이제 은혜로운 해발을 안고  
환희로이 빛발치며 키쫂굴 때  
남녘의 크고작은 모든 봉우리들도  
내 편답의 길을 이어 마음껏 노래하려니

아, 내 나라의 모든 산들아  
네 어이 스스로 빛난다더냐  
위대한 사랑의 해발을 받을 때  
산도 전설도 아름답게 빛을 뿌리더라!

# 세 멘 트

권현웅

나는 아주 어릴적부터 세멘트란 말을 머릿속에 익히며 자랐다.

탁아소에서 말을 처음 배울 때는 보육원 어머니가 우리 꼬무래기들을 빙 둘러 앉혀놓고 《어린이들은 어느 탁아소에 다니나요?》라고 물으면 《세…멘…트.》하고 떠들거리며 대답하였다.

그후 유치원에서도 《아버지, 어머니는 어느 공장에 다니나요?》라고 묻는 선생님의 그 물음에 나는 《세멘트!》하고 목청을 돋구어 대답하곤 하였다. 그렇게 익혀온 세멘트라는 이름을 나는 커가면서는 축구경기가 맹렬한 경기장의 선수들 앞가슴에서도 보았었다.

그러나 내가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후에는 노동자들이 세멘트라는 이름을 자신의 이름처럼 불러주는데 대해 높은 긍지와 만족감을 가지고 고맙게 생각하는 경우를 보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작년도에 진행된 도기술자협회의 2호소성로 로장 주병도아바이와 함께 참가했을 때였다.

《세멘트 왔소?》

회의참가정형을 료해하던 도과학기술위원회 한 지도원이 안경을 벗어 들고 사방을 두리번거리자 뒤좌석에 나와 나란히 앉았던 주병도로장이 불쑥 일어나며 《예 저워드.》하고 대답하는바람에 회의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원 아바이두 참, 세멘트가 뭐 사람의 이름인가.)

난 속으로 로장아바이를 나무람하며 게면쩍은 얼굴로 바라보았으나 그는 잔주름이 많은 눈가에 미소를 띄우며 자랑스럽게 의자에 앉는 것이었다.

그후에도 나는 년륜을 새기듯 길게 누워서 빙빙 돌아가는 소성로와 함께 일해오면서 주병도란 이름대신 세멘트로 불리워지는 것을 여러번 목격했고 이제는 그 깊은 뜻을 인차 알게 되었다.

우리의 생활에서는 세멘트를 많이 쓰면서도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는 드물다. 나는 이 기회에 권고하고 싶다.

세멘트를 한번 만져보시라.

텅텅한 먼지로 느껴지는 진회색의 세멘트는 햇볕같이 부드럽지만 일단 물에 이겨지면 세기가 강해지듯 불을 다루는 소성공들의 인간생활에도 의미깊은 이야기가 있으리라.

×

세멘트는 소성로에서부터 구워진다.

공기포를 쏘듯이 석탄로줄에서 뿜어나오는 보드라운 탄가루는 로안에서 높은 열풍에 휩싸여 불타기 시작했다.

나는 오늘도 색조화에 깊은 관심을 돌리는 미술가처럼 의자에 앉아 로안의 불빛색과 알굼기를 가늠하며 소성작업을 하고있는데 옆에 있는 3호로 키다리 소성공이 다가와 어깨를 툭 치었다.

《여, 저기 저울이 오네.》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머리에 빨간 수건을 쓴 한 처녀가 소성대로 걸어왔다.

워낙 키가 크면 싱겁다는 말이 있듯이 그 3호 소성공은 실험공들이 크링카 용중시험을 저울로 평량해서 한다고 늘 그렇게 부르곤 하였다.

나는 인차 그 처녀가 윤혜라는걸 알았다.

실험공들은 교대에 한시간씩 간격을 두고 시험을 하는데 그 시간에는 어김없이 나타나곤 했다.

바로 이 교대 담당실험공인 윤혜는 소성공들의 눈길을 끌며 시험대에 다가가서 결는 한번 팔지 않고 속눈썹이 촘촘한 까만 눈썹을 살포이 내려간채 원동채에 크링카를 넣고 빙빙 돌리었다.

이제 먼지를 제거한 크링카를 다시 꺼내서 저울에 평량하면 소성공들의 하루일 실적이 나온다. 긴장한 얼굴로 윤혜를 지켜보던 소성공들이 나를 찾았다.

윤혜가 룡말을 받아주며 시험할 때는 간혹 나를 잊곤하였지만 저렇게 앵두알같은 입술이 닫겨져있으면 오작을 내는 경우 눈을 좀 감아달라고 사정을 하기 위해서 나를 내세우곤 하였다.

지금도 소성공들은 사전방패를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나와 윤혜의 사이가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있었다.

하긴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소성공이 된 나는 어느 날 공장문화회관에서 새로 나온 영화를 관람한 적이 있었는데 우연히 그와 한의자에 나란히 앉아 보았다. 그때 같이 왔던 소성공들이 류다른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더니 그후부턴 소성대에 윤혜만 나타나면 나를 찾곤 하였다.

나도 그것이 싫지 않았다.



새과란 총각이어서 그런것도 있지만 더우기는 크링카 용중시험이 불합격으로 되었을 때는 소성공들 못지 않게 안타까와하는 윤혜의 그 마음에 끌린 련정이기도 하였다.

여늬때같으면 매 시간 만나도 싫지 않아 서둘러 윤혜의 곁으로 달려가던 나는 지금 소성공들의 부름에 자리를 뜰수 없었다. 참으로 로상태가 좋았던것이었다.

하루가 다르게 기능이 높아지고 소성조작에 익숙해진 나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대담하게 고속도소성방법으로 로조작을 해볼 마음이 불쑥 움텄다. 사실 나의 희망은 남달리 컸다.

화학전문학교 규산염공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나는 학창시절부터 미래에 건재공업계를 뒤흔들 유능한 기술자가 되려는 포부를 안고 우리나라 기술서적은 물론 외국의 수많은 소책자도 다 읽었다. 그것이 밑천이 되어 소성공이 된 나는 세멘트생산을 높일수 있는 몇가지 기술혁신안을 혼자서 모색하고있었다. 육십팔아서는 주병도로장이 깜짝 놀랄 소성법을 도입하여 이룸도 날리고 발전의 디딤돌도 마련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오늘은 기회가 좋았다.

윤혜가 게시판에 시험결과를 써놓고 돌아가자 나는 다음시간까지 고속도소성을 해보고싶은 결심이 확고해져 탄량투입과 소성로 회전을 후미온도에 가당게 한 다음 산업텔레비존화면을 주의깊게 살피었다.

열이 바짝 오른 로안은 이글거리는 불길이 확산되어 보라색물감을 풀어놓은 물속처럼 맑게 비치였고 밤톨같은 크링카는 동체를 따라 무지로서서히 미끄러져내렸다.

들쭉날쭉한 안불임은 불빛에 조화되어 천년 동굴이 나타난것 같이 보였다.

나는 흥이 나서 코노래를 부르며 석탄량을 조절하려고 돌림대를 잡는데 웃충 송입기 계단쪽에서 짹 소리가 들려왔다.

《석탄은 왜 줄여?》

와플 놀란 나는 고탍소리가 난곳을 겁질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 크지 않은 중키에 광대뼈가 푹 두드러진 주병도가 계단우에 기둥처럼 서있었다.

주병도는 큰 변이라도 난것처럼 황겁히 계단을 내려오더니 내 손에서 돌림대를 나꾸쳐서 제자리에 놓고 세모진 눈으로 흘겨보는것이였다.

말은 안해도 왜 로조작을 승인없이 하는가 하는 엄한 추궁이였다.

원래 주병도의 성미는 자기 승인없이는 그 누구도 로조작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것이였다.

뜻밖의 나무람을 당한 나는 먼구스러워 얼굴이 붉어진채 조종반실로 자리를 피했다.

좁 있어 주병도가 조종반실로 들어왔다. 그는 내가 써놓은 운전일지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나직이 물었다.

《후미온도는 파동이 없었나?》

《예.》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한 주병도의 좁아졌던 미간에 잔주름이 쭉 퍼지고 입귀가 빙글썩 열렸다. 그날 퇴근후 나는 좋은 기회를 놓친 아쉬움을 안고 바다가로 나왔다. 공장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나는 일이 끝나면 버릇처럼 해변가로 나오곤하였다. 락조가 한껏 비낀 바다가엔 갈매기들이 끼룩끼룩 푸른 물결우를 훨훨 날고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멍청히 갈매기를 바라보았다. 이때 그리 멀지 않은곳에서 《뽕뽕!-》하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물우에 돌을 던진것이였다.

뒤를 돌아보니 윤혜가 얼굴에 웃음을 머금은채 허리굽혀 바다물에 손을 씻고있었다.

나는 윤혜를 보자 일시에 무겁던 마음이 바다물에 풀리듯 가벼워졌다.

《아니 명훈동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소성대에서 시험할 때는 늘 땀방하던 윤혜는 가끔 내앞에서 어린애처럼 어리광을 부리듯 말을 건네곤하였다.

《생각은 무슨 생각이겠소. 난 오늘 로장아바이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쳤소. 고속도소성법시험이 랑패로 끝났거든...》

나는 아직도 섭섭한 생각이 좀처럼 풀리지 않아 손에 든 수첩을 흔들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윤혜, 내 기어이 멋진 새 기술혁신을 성공하겠소. 이제 두고보라니까...》

그날 나는 학창시절부터 생각해오는 여러가지 기술혁신안을 적은 수첩을 윤혜에게 보여주었다.

그 수첩을 본 윤해도 봉긋이 나온 앞가슴에 손을 올리며 환성을 올렸다.

《명훈동무, 이 수첩을 우리 아버지에게 보이자요.》

나는 놀라며 그 수첩을 빼앗았다.

《아니 그럼 로장아바이가 윤혜동무의 아버지란말이요?》

《네, 그래요.》

나는 그날 주병도로장이 윤혜의 아버지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며 수첩에 적힌 《비밀》이 공개될가봐 그에게 신신당부했었다.

《아직은 나의 희망에 불과한것이니 누구한테도 말해서는 안되요.》

다음날 아침이였다.

출근길을 다그치던 나는 공장정문앞에서 걸음을 멈춘채 눈이 화등잔만해서 속보판을 바라보았다.

바탕색을 조화롭게 칠한 이동속보판에는 붉은 색깔의 대서특필로 내가 기술혁신을 했다고

요란하게 소개했고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달려와 꽃목걸이며 꽃다발을 안겨주고 목마까지 태웠다.

일생에 처음 받는 축하였다.

내가 목마에 올라 오색테프를 꿰으며 구내길을 지나 직장에 다달으니 주병도로장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명훈이가 기술혁신을 하니 온 공장이 기뻐해, 정말 큰일을 했어.》

주병도로장은 만족한 눈길로 바라보는 것이었다.

나는 자그마한 기술혁신을 두고 주병도로장이 이렇게 기뻐할 줄은 생각지 못했다.

그후 나는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 오랜 소성공들이 참가하는 기능공협회의회에도 자주 참가하게 되었고 직장을 대표하여 공장기술자회의에도 참석하게까지 되었다.

주병도로장의 나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때로는 남이 다 자는 깊은 밤에도 나를 불러내어 소성로의 이상한 상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라고 과업을 주었고 힘든 일이 제기되면 앞장서기를 바랐다.

며칠전에는 공장기술발전과에서 또 나에게 《고압로줄에 의한 크랭카생산》이라는 기술과제가 분공되었다. 그 기술과제까지 받아안고보니 생각이 복잡해졌다.

(내가 꽤 해낼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나는 2 교대에 나와 소성로를 인계받고 미분탄송풍관에서 바람이 새는것 같아 인조숨을 물에 이겨 구멍을 막고있는데 도면말이를 손에 든 주병도로장이 다가왔다.

《내 기술발전과에 잠깐 갔다오겠네.》

소성대를 떠나기앞서 주병도는 습관적으로 로안을 살피고 마음이 놓이는듯 충계를 내려서 종합청사쪽으로 사라졌다.

그의 뒤모습을 바라보던 나는 어제 퇴근길에서 윤혜를 만났던 일이 떠올랐다.

공장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종업원모임에 참가했던 나는 회의가 끝나자 윤혜와 함께 돌아오고 있었다.

사택마을에 들어서니 파릿한 형광등불빛이 집집 창가에 비쳐 마을길을 흰히 비추주었다.

몸매가 날씬한 윤혜는 처녀들이 애용하는 가는 멜끈이 달린 자그마한 가방을 메고 내걸을 나란히 걸었다.

그는 다정다감한 처녀였다.

윤혜는 퍼그나 길을 건도록 말이 없었다.

나는 답답해서 먼저 입을 열었다.

《윤혜 뭐야, 전번에 그만큼 수첩의 〈비밀〉을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로장이

바이한테 이야기하고... 난 칭찬은 받았지만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오?》

나의 그 말에 윤혜는 고개를 가로흔들었다.

《전 아버지한테 말한적이 없어요. 오히려 먼저 아시더군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아버지 식사를 하시면서 별로 기뻐하지는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고 물으니 글썽 명훈이가 낮에 누구도 모르게 기술혁신을 하했는데 내가 그만 짹 소리를 질러... 그래서 명훈이가 퇴근한후에 내가 그 조작으로 소성해보니 능력이 1.2 배로 높아지더라 말야 하시며 공장기술과에도 보고했다고 했어요.》

《그럼 로장이바이가?! ...》

불현듯 나는 그날 로안을 들여다볼 때 알릴듯 말듯 기쁨이 스쳤던 로장아바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주병도로장은 정말 소성로의 동음이나 불빛색만 보고도 로상태를 흰히 꿰뚫는 능력이 높은 소성공이었다.

나는 주병도로장이 참으로 고맙게 생각되었다.

아직은 나라에 보탬도 주지 못한 자그마한 성과를 두고 그토록 기뻐하다니...

이때 윤혜가 나를 빠끔히 쳐다보며 졸전의 기분과는 달리 낮은 어조로 말했다.

《명훈동무, 요즘 아버지가 동무때문에 얼마나 근심하는지 아세요?》

《뭐 나때문에? ...》

나는 그 말이 너무 뜻밖으로 들리어 눈을 홑떴다.

《새 소성법도입을 무척 힘들어한다구말이에요.》

나는 그만 피식 허구픈 웃음이 터져나오는걸 참았다. 별치 않은 말을 무겁게 꺼내는 윤혜까지도 천진스럽게 느껴졌던것이다.

《명훈동무, 애로가 있으면 아버지에게 서슴치 말고 다 이야기하세요.》

나는 그때 로장의 마음이 고마와 고개를 끄덕이었다.

각지킨 두손으로 턱을 고인채 깊은 생각에 잠겨 윤혜의 말을 되새겨보고있던 나는 새로 설치한 고압로줄을 리용하여 소성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시간도 못되어 갑자기 소성대에 붕-붕-하는 다급한 신호종소리가 고막을 때렸고 빨강고 파아란 신호등이 켜져 펄쩍거렸다.

삽시에 산업텔레비죤화면이 먹물을 칠한듯 새까맣게 되었다.

(아, 열이 떨어졌구나.)

용수철에 튕기듯 의자에서 벌떡 일어난 나는 재빨리 소성로안을 들여다보았다.

들쭉날쭉한 안불임사리로 뱀의 혀끝처럼 날름거리며 밀려나오는 원료가루가 소결대구간을 쭉 넘어선것을 발견하지 못했던것이였다. 로머리에선 탄연기가 물씬물씬 타래쳐올랐다.

얼굴빛이 까맣게 질린 나는 최선을 다해 죽어 가는 불을 살려보려고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그러나 때는 늦었다.

나는 맥빠진 소리로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2호 소성로…세우라.》

비오듯 흐르는 땀에 석탄먼지, 세멘트먼지가 범벅이 된 얼굴을 수그린채 앓은 나는 눈앞이 캄캄했다.

좁 있으니 소성로밑에서 먼지를 뒤쫓은 운전공들이 뒤통수박이 일어난듯 입을 싸쥐고 킁킁 기침을 하면서 모여들었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열을 떨구었어?》

《이건 사고야, 월말을 눈앞에 두고 소성로를 세우면 계획은 어떻게 해.》

《잘한다구 칭찬받더니 이제 소성로까지 세워…》

날카로운 눈초리들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사방에서 욱욱 하는통에 나는 한마디 변명도 못한채 굳어진듯 수궁하고 앉아있었다.

그러나 내가 처음부터 걱정할것은 주병도로장의 엄한 추궁이었다. 주병도로장은 운전공들이 한결같이 분개하듯 월계획수행이 뿔뿔하니 소성로를 한순간에 세워서는 안된다고 자주 강조해왔는데 이렇게 자기 로에서 사고가 났으니 립장이 난처하게 되었다. 주병도로장은 자기 승인도 받지 않고 로조작까지 바꿔 소성하다가 로를 세운 나를 보면 《시라소니같은놈. 저런걸 소성공이라고 믿구 다녀? 당장 소성대에서 사라져…》 하며 불벼락을 내릴것이다. 소성로의 온도를 표시하던 사망시계모양인 자동화계기들의 눈금바늘이 0상태로 떨어져 까막하지 않았다. 나는 그 계기의 바늘이 궁지에 빠진 자신의 처지로 생각되었다.

이제라도 주병도로장이 나타나기전에 열을 다시 올려보려고 석탄공급기의 스위치를 넣는데 어드나 그가 서술이 퍼래서 달려왔다.

주병도는 운전일지부터 집어들었다.

나는 당장 떨어질 불벼락을 기다리며 고개도 못들고 벌받음 애처럼 꾹꾹이 서있었다.

운전일지를 찬찬히 훑어보던 주병도로장은 주눅이 든 나를 바라보며 목에 걸었던 수건을 내주었다.

《자, 얼굴이나 씻게.》

《?!》

단단히 욱을 들을줄 알았던 나는 그의 《관용》이 너무 뜻밖이어서 선뜻 수건을 받아들지 못했다.

두눈에서 눈물이 솟구쳐 고개를 돌리던 나는 무심결에 옆에 있는 세멘트가루를 한웅큼 움켜쥐었다. 보드라운 세멘트가루는 햇숨같이 포근했다.

작업이 끝나자 소성로를 세운 나는 피로운 마음으로 혼자 함속으로 돌아오고있었다.

외나무다리를 놓은듯 공장과 사택마을을 뒤흔칠 방과제우를 걸고있는 나는 낮에 있던 일들을 잊으려고 애썼지만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그럴수록 주병도로장의 인정이 가슴후덥게 안겨졌다.

(성공하면 몰라도 오늘처럼 사고나 내면…로장아바인 나때문에… 립장이 웅색하게 뒤흔. 새로 받은 기술과제는 못하겠다고 주병도로장아바이한테 말할가…)

착잡한 생각으로 걸고있는데 뒤에서 터벅터벅 뛰어오는 발자국소리가 들리더니 《명훈이-》하고 찾았다.

나는 목소리만 듣고도 주병도로장임을 대뜸 알았다.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니 그가 숨가쁘게 달려오고있었다.

《원 사람두, 함속에 꼴단지라도 물어왔나. 난 이렇게 떠난걸 모르고 휴게실에서 기다렸지…》

좁해서는 룡을 모르는 주병도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기분이 썩 좋았다.

《아니 저를요?》

《그럼! …》

주병도는 짐짓 정숙한 표정을 짓더니 돌돌 말아서 열구리에 끼였던 종이말이를 빼여 내놓았다.

《내가 좀 생각해본거야, 새로 받은 기술과제에 도움이 되겠는지…》

그 도면은 펄 낮이 익었다. 아침에 주병도가 기술발전과에 들고갔던 그 종이말이었다. 손때도 묻고 보풀이 진 그것은 노끈으로 돌돌 말아서 팽팽하게 동여매기까지 하였다.

도면을 준 그는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며 나의 등을 가볍게 떠밀어주었다.

《피곤할텐데 어서 가보게.》

주병도는 온길을 되돌아 터벅터벅 걸어갔다.

다부진 몸매에 흰머리카락이 머리에 다불린 그의 뒤모습을 이윽히 바라보던 나는 눈길을 도면에 주었다.

주병도로장이 딱 집어 말은 안했어도 이 도면은 고압로줄에 의한 크렁카생산을 계속 연구하라는 지령이기도 하였다.

나는 주병도로장이 리해되지 않았다.

오늘 사고로 자신의 립장도 웅색하게 되었는데 기어이 하라고 떠미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날 주병도로장과 헤어져 함속에 돌아온 나는 저녁을 먹기가 바쁘게 침대우에 벌렁 누웠다. 낮에 있던 일때문에 뛰어다녀서 그런지 온몸이 땅속으로 잦아들듯이 나른해졌다.

나는 주병도로장이 준 도면생각이 떠올랐다.

마음같아서는 그대로 자고싶었으나 도리상 그럴수가 없었다.

그래서 몸을 일으킨 나는 책상우에 올려놓았던 도면을 끄당겨서 배게통우에 퍼놓았다.

정성들여 그려놓은 소성로는 길이를 몇군데 나누어 구간마다 온도를 써놓았고 또 어떤 구간은 수해화로 불빛색까지 섬세하게 채색하였다.

한참 도면을 보느라니 자기도 모르게 정신이 혼몽해지며 두눈이 스르르 내려감기는것이였다.

줄음을 쫓아버리려고 주먹을 이마에 대고 툭 쳤으나 이미 잠에 취한 나는 끝내 침대우에 두 팔을 쭉 뻗치며 홀렁 드러눕고말았다.

깊은 잠에 들었던 내가 복도에서 떠드는 소리에 다시 잠을 깰 때는 벌써 날이 밝았다.

나는 서둘러 아침식사를 하고 합숙을 나섰다.

취다실이 직장에 달려오니 다행히도 지각은 아니었다. 마침 모임을 하려고 반원들이 직장건물 맨끝에 있는 교양실로 모여들고있었다.

《음 이제 나오나?》

교양실문앞에 서서 파아란 비로도천으로 보호안경을 닦고있던 주병도로장이 기다린듯 반기였다.

그리고는 기대를 담은 눈길을 보내며 말을 이었다.

《그래 도면을 보고 좀 생각해봤나?》

나는 대답을 하자니 막상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리가 나지 않았다. 어제밤 도면을 성의를 다해 보지 않은것이 랑심에 찔려 당황해지기까지 하였다.

나는 주병도로장이 이처럼 기대를 가지고 기다릴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 그렇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여 주병도로장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싶지는 않았다.

선뜻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던 나는 주병도의 안색을 살피며 떠듬거렸다.

《어제밤 도면을 보고 꼼꼼히 생각해봤는데… 내 생각도 로장아바이 생각이나 같습니다.》

나는 뭘수록이면 주병도로장의 마음을 좋게 해주려고 얼굴엔 일부러 미소까지 지었다.

그런데 나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주병도의 얼굴이 대뜸 분기로 번뜩이더니 뒤통수를 후려치듯 성난 목소리가 그의 두툼한 입에서 튀어나왔다.

《뭐라구? 4 급공인 자네 생각이 8 급공인 내 생각과 어떻게 같아? 보지 못했으면 솔직하게 말하게지… 뉘덜 녀석…》

이렇게 소리를 지른 주병도의 얼굴은 경련을 일으킨 환자처럼 해쓷한채 무들무들 떨렸다.

순간 먹살을 잡히는 사람처럼 뜻하지 않게 당하는 봉변에 나는 그만 자제력을 잃고말았다.

《로장아바이, 너무합니다. 나는 그래도 하느라고 했습니다.》

《뭐? 하느라구? 자네가 어쩔… 그런 사람… 어! …》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 아연해 서있는 그의 얼굴빛이 꺼묵하게 변해버렸고 쟁그린 이마에는 발고랑처럼 주름살이 깊이 패었다.

아쉬움에 못이겨 한동안 서있던 그는 환멸을 느낀듯 쓰겁게 입맛을 다시며 지그시 두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허탈을 만난 사람처럼 땅이 꺼지게 《어허!》하고 신음소리를 내는것이였다.

보호안경을 부서뜨릴듯 주먹을 부르짖고 피로와하던 그는 기가 꺾인채 스펙스적 석탄직장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주병도는 석탄직장에도 오래 있지 않았다.

그의 기상이 얼마나 험했던지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목덜미에서 진땀이 쭈룩 흘렀다.

조금후에 소성대에 나타난 주병도는 땅에 폴썩 주저앉아 담배를 피워물었다. 빗장을 지른듯 두툼한 입술은 열려지지 않은채 진종일 생당썩물부리만 끼워져있었다.

나는 주병도로장이 나때문에 저렇게 피로와한다고 생각하니 뒤늦게나마 미안한 마음을 어쩔수 없었다. 생각같아서는 당장 《로장아바이, 제가… 용서하십시오.》하고 잘못을 고백하고싶었지만 그렇다고 쉬이 너그러운 웃음을 보일것 같지 않았다.

마음이 조금해진 나는 안절부절 못하고 교대시간만 기다리게 되었다. 어느때는 아침에 인계받아 조금있으면 점심때가 되고 잠간사이 퇴근길에 오르곤했는데 지금은 한초가 하루맞잡이로 시간이 흘렀다.

드디어 교대를 마친 나는 답답한 가슴을 바다바람에 식히면 마음이 후련해질것 같아 공장변두리해변가로 나왔다. 흰모래불에 발자국을 찍으며 정신없이 걸었다.

한낮이 지나서부터 날씨가 흐려지며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잔잔하던 바다가 파도를 일으키며 설레이기 시작했다.

나는 기슭을 세차게 들부시는 바위우에 걸터앉아 설레이는 물결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썩- 처절썩! -》

그전날같으면 이 파도소리를 사나이의 기상을 키우는 랑만으로 감수했으면만 지금은 주병도로장의 준절한 웨침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멀리서 우뢰소리가 들려왔다. 한소나기 퍼부으려는지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수평선 끝엔 검은 구름이 짙 차있었다. 잠간사이에 주위는 어둡속에 잠겨버렸다.

울적한 마음을 저 넓은 바다에 몰어버리려고 해변가로 나왔던 나는 오히려 가슴이 터질듯 답답해지기만 하였다.

그럴수록 작업이 끝났을 때 로장아바이에게 잘못을 사죄하지 못한것이 후회되었다.

(이제라도 로장아바이를 만나자.)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투덕투덕 떨어지던 비방울은 점차 우-소리를 내더니 인차 소나기로 변해버렸다. 억수로 퍼붓는 비는 아랑곳하지 않고 뽕얇게 휘뿌리는 비발속을 뚫고 사택마을을 향해 부지런히 걸었다. 측백나무, 분홍꽃아카시아나무들이 규모있게 늘어선 마을 한끝에 남향으로 앉은 주병도의 집에 다달은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가볍게 나들문을 두드렸다.

《누구예요?》

방안에서 윤혜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인차 나들문이 열렸다. 줄무늬 뜨개옷차림으로 나타난 윤혜는 우산도 없이 비를 함뱍 맞으며 문

밖에 서있는 나를 보자 반기면서도 어딘가 의혹이 짙은 어조로 물었다.

《아이 이 밤에 어떻게?! ... 들어오세요.》

《아버지 계시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아직 안들어오셨어요. 아이참 비내리는데 들어와요.》

윤혜가 거둬 끌어당겨서야 나는 전실에 들어섰다. 윤혜는 서둘러 세수수건을 꺼내다 주었다.

《무슨 급한 일이 있었어요?》

《아니...》

나는 로장아바이를 윤혜앞에서 만난다는 것이 어딘가 쑥스러워 인차 되돌아나왔다.

비가 억수로 퍼붓는 신작로 한복판에 서있던 나는 주병도로장의 행처를 알수 없었다.

(어딜 갔을가? 혹시 공업시험소?)

나는 공업시험소에 있는가 달려가보니 그곳에도 없어 다시 소성대에도 와보았지만 주병도로장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기진맥진해 힘없이 직장을 나섰다. 비물이 얼굴과 목덜미에 떨어져 옷속으로 스며들었으나 흠칠념도 없이 구내길을 걷는데 앞에서 웬사람이 다리를 절룩이며 마주 오고있었다. 그역시 우산도 쓰지 않았는데 옆구리에는 무엇인가 끼여져있었다.

《아!-》

가로등밑을 지나칠 때 불빛에 흰히 드러난 모습은 주병도로장이었다.

《로장아바이! ...》

나는 목이 멘 소리로 찾았다.

주병도도 우뚝 섰다. 옷자락은 후줄근히 젖었고 피로인지 아니면 피로움때문인지 눈확이 폭겨진 주병도의 얼굴을 보자 나는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다.

《제가 그만...》

《알았으면 됐어.》

주병도는 짙막하게 한마디 던지고는 그냥 지나쳤다. 나는 고개를 번쩍 쳐들고 원망에 찬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 한마디를 듣자고 찾아다녔단 말인가? 섭섭했다.

아무리 노했던들 이렇게 무정할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가슴을 허비였다.

처음에 주병도를 찾아 떠날 때만 해도 나는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면 너그럽게 리해하여주리라 믿은것이 이렇게 뻥뻥할줄은 몰랐다.

지나쳐서 한참 가던 주병도가 걸음을 멈추고 나를 찾았다. 그리고는 비에 젖을가봐 비옷으로 몇겹질 싼것을 주었다.

《명훈이, 이제 직장에 가서 이 도면대로 뿔각기용수를 큰것으로 교체하게.》

작업지령 하듯이 한마디 하고는 그냥 가버렸다.

억이 막혔다. 그러나 나는 내색하지 않고 소성대로 가서 일손을 잡았다.

용수교체를 끝내고 스파나로 나트를 조여가던 나는 얼핏 짙이는것이 있었다.

뿔각기 용수의 튜성이 높으면 로회전이 빨라지는데 따라 생산되는 크링카를 지체없이 운반할수 있지 않는가.

도면을 주의깊게 살피며 로안의 온도를 계산해보았다. 정상 온도였다.

(아! 나의 기술혁신을 완성해주려고...)

나는 주병도로장이 주었던 도면을 대충 본것이 후회막급했다. 시들던 나무가 밀거름의 덕으로 살아나듯이 주눅이 들었던 나는 활기에 넘치기 시작했다.

나는 새기술도입의 열쇠를 쥔 순간부터 성공할수 있다는 기쁨으로 가슴 들먹이며 주병도로장을 찾아가려는데 마침 그가 찾았다.

《어딜 가? ...》

《로장아바이를 찾았습니다. 난 그런것도 모르고...》

나는 낮에 있는 일이 되살아 죄스러운 마음에 얼굴이 붉어져 말끝을 채 맺지 못했다.

주병도로장은 나의 그 심중을 환히 꿰뚫어보듯 내손을 다정히 잡아당기며 콩크리트바닥에 앉았다.

《원 소성공 대장부가 뭘...》

나는 주병도로장이 이끄는대로 그의 곁에 나란히 앉았다. 주병도로장은 담배 한대를 꺼내여 불을 붙여물고는 내 손에 들려진 보풀일은 도면을 의미깊게 바라보았다.

《명훈인 이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리게 됐어.》

《예?!》

내가 흠모의 마음을 안고 떠엄떠엄 울리는 주병도로장의 말뜻을 진작 알지 못해 어리둥절해하자 그는 타이름조로 말하는것 이었다.

《명훈이, 우린 기술혁신을 하고싶으면 하고 힘들면 그만뒀서는 안돼. 지금 어떤 사람들은 기술혁신을 자신의 명에나 보수를 바래서 하기때문에 쉽게 중도에서 걸어치우는데 그것은 다 로동계급의 자세가 아니야. 우리 로동계급은 누구든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크든 작은거든 기술혁신을 해야 해. 그것이 지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리는 길이구 나라를 번영하게 하는거네. 자네도 알다싶이 지금은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나라가 발전하는 시대가 아닌가.》

점점 주병도로장의 높은 정신세계에 심취되어가던 나는 강한 충격에 그만 눈물을 쏟고말았다.

《로장아바이! ...》

고개를 끄덕인 그는 나의 등을 떠밀며 《저녁을 못먹었지... 자.》하면서 꽃보자기에 싸들었던 밥그릇을 내앞에 펴놓았다.

3 단밥통의 뚜껑을 여니 한그릇은 기름기가 찰찰 도는 흰쌀밥이었고 또 한통에는 구수한 냄새가 풍기는 노란빛갈의 닭알, 두부지짐, 콩나물, 고기볶음이 짝 차있었다. 밀그릇은 김이 문문 나

는 고기국이었다. 울구리뼈를 힘들게 움직이며  
숟가락을 들었으나 끝내 먹지 못하고 눈물만 삼  
키었다.

후에야 나는 그날 주병도로장이 나의 기술혁  
신을 성공시키려고 30 리가 넘는 규산염 연구소  
까지 찾아갔다왔다는걸 알게 되었다.

드디어 마지막 공업화 시험을 하는 날이 왔다.

밤늦게 시운전 준비로 돌아치던 나는 함속에  
들어갔으나 온밤 흥분으로 잠들수 없어 뒤척이다  
가 끝내 어뜩새벽에 소성대로 달려나오고말았다.

일렬횡대로 나란히 누워서 빙빙 돌아가는 소  
성로 사이를 걸어가던 나는 그만 자석에 붙은듯  
우뚱 섰다. 주병도로장이 소성로의 대메달 기  
름뚜껑을 열어도 보고 긴 망치자루를 귀에 대고  
동음도 가려보고있었다.

그는 지금 시운전 준비를 재검토하고있었다.

나는 늙은 몸을 돌보지 않고 저렇게 나를 위  
해 애쓰는 그 마음이 송구스럽게 느껴졌다.

어제도 주병도로장은 긴장한 세멘트 생산문  
제를 놓고 일부 일꾼들이 혹시 실패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시운전을 계획이나 끝내고 래달에 하자  
고 하는걸 《내가 책임지겠네.》이 한마디로 일  
축해버렸었다.

나는 주병도로장의 명예까지 안고 진행되는  
이 시운전을 꼭 성공하리라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있는데 《벌써 나왔나?》 하는 로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점검을 끝낸 주병도로장이 다가왔다.

《내 한바퀴 다시 돌아봤는데 소성로 계통은  
다 좋아. 이제 한번 해보라구... 너무 긴장하지는  
말구...》

《로장아바이, 이제 그만 쉬십시오.》

나는 억지로 주병도로장을 휴게실에 앉혀놓  
고 소성대로 나왔다. 교대를 인계받고 소성대에  
서니 마치 백메터 달리기 경기의 출발선에 나선  
선수처럼 긴장해지고 가슴이 울렁거렸다.

나는 작업에 착수하자 헛는 한번 팔지 않고  
산업텔레비존 화면을 주시하며 로상대를 살피었  
다.

이미 기술적담보를 받아 계산한대로 후미온  
도를 700 도 되게 고정해놓고 원료와 탄량을 조  
절하니 크링카가 무지로 쏟아져내렸다.

모든것이 성공적이었다.

조종반실에서 나온 나는 다시 승강기결으로  
다가서 바가지를 타고 운반되는 크링카를 흡족한  
마음으로 내려다보았다.

이제 주병도로장이 이 크링카를 보면 무척 기  
뻐할것이다. 왜 그렇지 않으랴. 오늘의 새기술 도  
입의 성공을 위해 주병도로장이 얼마나 아글타글  
고심했던가.

이 순간 윤혜가 빨리 왔으면 하는 생각이 간  
절하였다. 윤혜 역시 나와 주병도로장 못지 않게  
성공의 그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중의 하나였다.

나는 연신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늘 윤혜가  
들어오는 계단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시험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다.

흥분을 누르며 마지막 테프를 끊는 그 시각을  
기다리는데 윤혜가 소성대에 나타났다.

진회색작업복을 단정히 입고 빨간 수건을 쓴  
윤혜의 모습은 류달리 아름다와보였다.

나는 신심에 넘친 얼굴로 윤혜를 바라보며 어  
서 시험하라고 눈짓을 했다. 마주 바라보던 윤혜  
도 보조개가 두볼에 패운 밝은 얼굴에 미소를 머  
금으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승강기 바가지는 크링카를 함뿍 담아 쉬임없  
이 운반해가고있었다.

윤혜는 제일 잘 구어진 크링카를 뜨려고 승강  
기에 바투 붙어서 흐르는 물결처럼 지나가는 바  
가지들에 눈길을 주었다. 이 용중시험에서 크링  
카무게가 한키로 오백그램 이상이 돼야 한다.

윤혜는 밤톨같은 좋은 크링카가 나오자 얼른  
떠서 시험을 했다. 시험수치는 바랐던대로 나왔  
다. 성공이었다. 그 수자를 바라보는 나는 기쁨으  
로 눈언저리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

《성공이에요. 명훈동무.》

시험수치를 흰종이우에 써놓고 돌아서는 윤  
혜의 얼굴도 기쁨으로 빛났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순간이었다.

뒤이어 쏟아져나오는 크링카는 생가루가 다  
분히 섞인 좋지 않은것들이었다.

(웬일일가?)

나는 물론 윤혜까지 놀라운 눈길로 그 생가루  
가 섞인 크링카를 원망에 차서 바라보았다.

아무리 기다렸으나 종시 좋은 크링카는 나오  
지 않았고 윤혜는 할수없이 생가루가 섞인 시료  
를 떠서 시험하였다. 불합격이었다.

시험을 마친 윤혜는 낮빛이 어두운채 낮은 목  
소리로 혼자 중얼거렸다.

《처음에 나온 크링카는 모두 좋았는데...》

나는 눈앞이 캄캄했다. 안타까움으로 가슴이  
타돌고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성공의 소식을 기다리며 승입기에 있을 주병  
도로장의 얼굴을 그러보니 그앞에 뿔뿔이 나설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더욱 난감했다. 이런 수치를  
어떻게 아바이앞에 내놓을수가 있단 말인가.

그때까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한채 나를 바라  
보고 서있던 윤혜가 두손에 든 종이를 한참 들여  
다보다가 먼저 적어놓은 수자를 내앞에 쓱 내밀  
었다. 나도 이왕이면 합격된 시험수치를 보일 결  
심에서 손을 내밀었다.

첫 수치는 성공을 의미하였으며 불비한 원인  
은 찾으면 되는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아찔하고 심장의 박동  
이 멎는듯한 감각이 들면서 경련을 만난 사람처  
럼 손이 떨렸다. 희미한 정신은 그 종이를 쥐라고  
명령했으나 나는 끝내 다른 손에 들려진 불합격  
수자가 적혀진 종이를 움켜쥐었다.

어떻게 되어 나는 그런 결심이 내려졌는지 나  
자신도 알수 없었다. 다만 주병도로장아바이앞에  
량심을 속일수 없다는 그 한가지 생각이 나를 그  
렇게 하였는지 모른다.

윤혜는 아연실색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나를 멍청히 쳐다보았다.

나는 불합격수치가 적혀진 종이를 움켜쥐고 주병도로장이 있는 송입기쪽으로 스적스적 가는데 기다린듯이 주병도가 마주 달려왔다.

《그래 시험수치가 어떻게 나왔나? 성공인가?》

나는 차마 그앞에 불합격이 된 수자를 내보일 수 없어 고개를 떨구고말았다. 주병도로장은 어서 보자고 재촉하며 나의 손에서 종이쪽지를 빼앗듯 집어서 들여다보았다. 뒤따라 달려온 윤혜는 성공적인 시험수치가 적힌 종이쪽지를 든채 오도커니 서있었다. 그러자 주병도로장은 모든것을 알아차린듯 윤혜의 손에 들려진 종이쪽지에는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한동안 서서 나를 바라보던 주병도로장은 어느때 볼수 없던 흥분으로 기쁨에 싸여 말하는 것이었다.

《명훈이, 성공이네. 성공했단 말일세... 다... 기술혁신두...》

나는 그의 말뜻을 인차 알아차릴수 없었다.

(아, 로장이바인 내가 실망할가바 위안하나라구 저러실가?)

나는 주병도로장이 기뻐할수록 바늘방석에 앉은것 같은 송구한 마음에 끝내 문을 박차고 소성대로 뛰어나왔다.

《아니 저사람이 왜 저러니? 자기자신두 모르고...》

나는 멀리서 들려오는 주병도로장의 목소리에 《성공》이란 말이 재차 섞였지만 곧이 듣지 않았다.

(실패가 성공으로 될수 없지 않는가.)

그날 저녁 또다시 시험에서 실패한 나는 주병도로장에게 미안한 심정이라도 이야기할가 망설이다가 그냥 직장을 나섰다.

울적한 마음에 한결음한결음 천천히 걷고있는데 원료탕크우에서 급속성 맞부딪치는 소리가 여운을 끌며 들려왔다.

《땅!- 땅!-》

두줄로 늘어져있는 수송관밑으로 세멘트먼지가 푸실푸실 날렸다.

나는 혹시 주병도로장이 그곳에서 일할수 있다는 예감이 들자 망치소리가 들려오는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서둘러 원료탕크에 련결된 콩크리트 계단을 뛰어오르기 시작했다.

한단 두단... 탕! 탕... 발걸음과 망치소리의 음향이 엇바뀌며 들려왔다.

잠간사이에 탕크우에 올라와 보니 예측대로 주병도로장이 윤혜까지 데리고 세멘트먼지를 뒤집어쓴채 수송관을 일일이 망치로 두드리며 점검해나가고있었다. 그들은 내가 뒤에 와있는것도 전혀 느끼지 못한채 도간도간 다정히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었다.

《아버지, 난 아까 불합격품을 합격이라고 환성을 올릴 때 아버지의 속깊은 그 사연은 전혀 모

르고 오해했어요. 아마 명훈동무도 아버지의 그 말뜻을 모를거예요.》

《모르면 뭘하나. 난 아까 그가 낮은 수자가 적은 종이를 내앞에 보일 때 로동계급의 깨끗한 량심을 지닌 명훈이를 본게 성공이란 그 소식보다 더 기뻐구나. 생각해보렴.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은 량심앞에 부끄러운줄 모르고 가장 높이 나온 수자를 꺼리낌없이 흔들었을것이다. 허허, 난 명훈이가 그렇게 잘 익은 크렁카가 된줄은 몰랐구나.》

그들의 이야기를 깨치고싶지 않아 뒤에 우두커니 서있던 나는 믿음이 어린 주병도로장의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하였다.

(아 주병도로장은 로동계급의 깨끗한 량심을 바쳐 나라를 받들어가는 세멘트였구나.)

몇시간을 관우에서 헤매인듯 주병도의 망치를 든 손은 후들후들 떨렸다. 힘껏 망치를 들어서 차단기를 내리쳤다. 했건만 망치는 차단기를 맞힌 것이 아니라 그의 왼손을 내리쳤다.

(아 손이...)

이때 깜짝 놀란것은 윤혜보다 뒤에 서있는 나였다. 나는 황급히 달려가 그의 손에서 망치를 빼앗아 들었다.

《아바이, 주십시오. 제가...》

나는 주병도의 손에서 망치를 나꿔채여 한옆에 놓고 그의 손을 만져보았다. 다행히도 두툼한 장갑을 끼여서 상처는 나지 않았다.

나는 로장의 앞에서 관을 점검해나갔다.

《명훈이, 서둘러 말구 차단기가 고장나지 않았는가 잘 살피라구.》

《예-》

이렇게 대답하고도 나는 그때까지 주병도로장이 왜 이리 애쓰는지 다는 몰랐다. 한참 앞으로 나가던 주병도로장은 원료수송관의 한 차단기를 잡고 기쁨에 넘쳐 말하는 것이었다.

《이사람 찾았네 찾았어.》

《예? ...》

《오늘 용중시험이 마지막에 낮게 나온것은 바로 이 차단기가 고장나서 원료공급을 균일하게 보장하지 못한 원인이었어.》

순간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주병도로장이 이토록 나를 위해 남모르게 애쓰는 것이 아닌가.

《명훈이, 여기 앉으라구.》

주병도로장은 나의 손목을 잡고 공장구내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탕크우에 나란히 앉았다.

소슬한 바람이 땀흐르는 우리들의 얼굴을 식혀주었다. 주병도는 온통 땀방울을 뒤쓴 얼굴을 수건으로 문대고나서 담배를 붙여물었다. 그리고는 한모금 깊숙이 빨았다가 후- 하고 내뿜었다. 휘뿌연 담배연기는 두툼한 입가에서 어리광치듯 흩어지는 것이었다.

이윽하여 주병도로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명훈이 자기가 만드는 세멘트를 놓고 생각해 본적이 있나?》

얼핏 들으면 쉬운것 같으면서도 신뜻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이었다. 무슨 의미에서 묻는것인지 내가 대답을 미처 못하고 머뭇거리자 그는 송수관옆에 소복히 쌓인 세멘트를 한줌 쥐여 손바닥에 펴보며 명상에 잠기는것이였다.

《정말 세멘트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거야. 그래서 세멘트를 만드는 우리의 공지는 높아. 어떤 때는 내 이름보다 세멘트로 불리울 때가 더 기쁘거든...》

주병도로장은 마치 늙은이가 시를 읊듯이 감정이 담긴 어조로 속삭이듯 말했다.

그 말을 새겨들으며 나는 주병도로장을 의미깊은 눈길로 바라보았다.

(아 조국을 받드는 고임돌처럼 한생을 세멘트 기초와 같이 변심없이 나라를 받드는 오랜 로동계급의 그 마음을 나는 이해하지 못했구나.)

웅심깊게 들려오는 주병도로장의 그 말은 나를 자신보다도 조국을 위해 참되게 살도록 일깨워주는 명언처럼 들렸다.

나는 깊이 생각했다.

세멘트! - 그래서 주병도로장은 부모들이 지어준 이름보다 세멘트라는 물질의 대명사로 불리워지는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것이 아닌가,

공장구내에 저녁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주병도로장과 나, 윤혜 세사람은 시험의 실패 원인을 정확히 찾고서도 미진한것이 있을세라 원료탱크우를 올라가고있었다.

나는 주병도로장의 뒤를 따랐다.

세멘트로 콘크리트를 쳐서 만든 계단은 수없이 길어 한참이나 올라가야 했다.

한단 두단... 끝없이...

나는 이날 일생을 땀아야 할 그 콘크리트 계단을 힘있게 내딛으며 생활의 충계를 한층한층 오르코있었다.

## 그 웅심깊은 가슴에서 울려나는...

서진명

내 얼마나 많은 말을 듣고싶어했던가  
철산봉의 로천채굴장  
회작기앞에서 만난  
그 나이지숙한 광부에게서

하지만 그는 제 한일에 대해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들끓는 거창한 일터에서  
언제나 말보다 행동을  
앞세워온탓인듯

다만 그것도 한마디  
돌가루 묻은 손으로  
머리우 하늘을 가리키며  
눈빛을 빚내며 말했을뿐  
-내가 제대되어 왔을 땐  
저바루가 모두 산이었지요

나는 새삼스러운 눈길로  
흰구름 비낀 하늘을 보았다  
그가 스무해를 바쳐  
청춘을 바쳐  
쇠돌을 털어낸 그 크나큰 공간  
그 새 하늘을

뜨거운 마음으로 끌어보고 또 끌어보고

안아보고 또 안아보았다  
우리 당의 부름에  
언제나 쇠돌로 큰 대답을 해온  
광부의 빛나는 생이 비낀 하늘을

아 하늘, 그 하늘에서  
얼마나 많은 쇠돌이 쏟아져내렸고  
그 쇠돌 하나하나에 떠실려  
얼마나 뜨거운 광부, 로당원의 말이  
온 강산에 울려가고 또 울려갔을것인가!

강철로 웅위하는 우리 당  
강철로 받드는 우리 당의 높이를  
쇠돌을 털어낸 그 하늘가에서 보며  
오늘도 젊어사는 로광부  
언덕으로 내려앉은 산이  
다시 평지로 된대도  
제 한일을 가볍게 입에 올리지 않으려니

묻고싶던 그 하많은 말을 잊은듯  
나 또한 그앞에서 말수가 적어졌다  
언제나 우리 당의 부름에  
충성으로 대답해온 로광부  
그 웅심깊은 가슴속에서 울려나는  
천마디 뜨거운 말을 들으며...



《작가, 예술인들이여!

당 의 문예로선을 철저히 구현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구호에서)

평론

## 90년대 로동계급의 리지적성격을 옳게 살려 소설의 지성도를 더욱 높이자

김선려

오늘 90년대 로동계급의 형상을 창조하는 소설문학에서 로동계급의 리지적성격을 깊이있게 파고들어 작품의 지성세계를 높이는것은 중요한 현실적요구의 하나로 나서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의 지성세계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인물의 리지적인 성격을 옳게 살려내야 한다. 이것은 현대의 인간을 그리는 경우에 더욱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요구이다.》

형상세계의 리성적인 높이를 말하는 문학의 지성도와 인물의 지성도는 밀접한 련관을 가지고 있다.

물론 작품의 지성도를 높이는 문제와 어떤 형의 인간을 형상의 대상으로 삼는가 하는 문제는 어느 경우에도 일치되는것이 아니다.

문학작품에는 지성이 높은 인물도 그럴수 있고 지성이 낮은 인물도 그럴수 있다. 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진정으로 시대에 충실하고 생활의 철학세계를 깊이있게 파고드는 작가들은 지성세계가 높은 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중요한것은 어떤 형의 인간을 등장시키며 형상하는가 하는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작가의 평가와 분석, 정신세계의 높이이다. 그러므로 지성이 낮은 인물을 그려도 작가가 그를 높은 지성세계에서 관찰하고 형상해낸다면 작품은 충분한 지성도를 보장할수 있는것이다.

작품의 지성세계를 높이는데서 결정적인것은 작가의 지성적준비정도이며 생활에 대한 심오한 리해와 높은 철학적안목에 기초하여 인물의 성격과 생활을 분석적으로 깊이있게 파고드는 형상세계의 리성적인 높이이다.

그렇다고 하여 인물선택과 작품의 지성수준이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수는 없다. 작가가 자기 주위를 둘러싼 생활세계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며 그 모든것을 높은 정치적안목에서 볼줄 아는 리성적인 인물의 시점에 서서 생활을 그리고 주제를 밝히려한다면 그 작품의 지성도는 옳당 높아지게 될것이다. 더우기 주체사실주의문학은 작품에 시대의 전형을 내세울것을 요구한다.

오늘 우리 시대의 전형은 지난날의 시대적전형들에 비하여 그 지성적인 면모에 있어서 비할

바없는 높이에 이르고있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사상,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고 근로인민대중의 사상문화수준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있는 현실은 주체문학이 내세워야 할 시대의 전형을 근본적으로 변모시키였다. 우리의 주체문학은 옳당 변화된 현실에 맞게 우리 사회의 본질적특징을 체현하고있는 새로운 시대적전형을 탐구하여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때문에 시대의 특징과 사회의 본질적면모를 체현하지 못한 비전형적인 인물을 내세우는 그 자체가 벌써 작가의 저조한 관점과 무식을 의미하며 작품의 지성도에 치명적인 손실을 주게 된다.

자기 작품의 중심에 그 시대를 대표할수 있는 전형적인 인물을 내세우고 그의 리지적인 측면을 옳바로 그려주었다면 그것은 벌써 작가의 높은 정치사상적식견과 미학적준비정도를 뚜렷이 보여주는것으로 된다.

그러면 오늘 로동계급형상소설에서 어떤 인물을 90년대의 시대적전형으로 내세울것인가.

그것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과 온 사회의 인테리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인테리화되어가는 로동계급,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이 비할바없이 높아진 새형의 로동계급이어야 할것이다.

해방후 민주건설시기에는 단편소설 《로동일가》나 《탄맥》에 나오는 김진구, 남일과 같은 인물이 그 시기 로동계급의 전형이였고 전후 사회주의건설시기에는 장편소설 《시련속에서》나 단편소설 《백일홍》에 나오는 김유상, 현우혁 같은 인물이 그 시기 로동계급의 전형이였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 세대가 교체된 80년대나 90년대 로동계급의 전형은 김진구나 김유상, 현우혁과 같은 인물보다 훨씬 높은 의식수준과 기술문화적소양을 갖춘 지성적인 인물로 되여야 한다.

시대적높이에서 이러한 로동계급의 전형을 옳바로 찾고 그와 성격의 리지적인 측면을 섬세하게 파고들어가 잘 그려준다면 로동계급형상소설의 지성도는 높아지고 사상예술적품위도 훨씬 돋구어질것이다.

여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90년대 로동계급이 지닌 높은 혁명성, 당과 수령에 대한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된 충실성의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것이다.

지금 우리는 앞선 세대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자고 한다. 백두의 혁명정신, 천리마의 정신으로 살자는 구호는 우리 당 사상사업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있다.

그렇다고 하여 오늘 90년대의 로동계급이 지난날의 로동계급보다 떨어졌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내세우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눈부신 현실속에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더욱 성장하였고 그들의 혁명성, 충실성은 더욱 열렬하고 굳세고 아름다운것으로 되었다. 그것은 더욱 순결하게 정화되고 완성되었고 더욱 리지적으로 세련되었다.

때문에 우리 당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할데 대한 보다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그 맨 앞장에 혁명적로동계급을 내세우고있는것이다.

로동계급의 이와같은 성장, 리지적면모의 기초에는 중요하게 3대혁명과 온 사회의 인테리화가 더욱 추진된 자랑스런 현실이 놓여있는것이다.

대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전후복구건설시기 로동계급의 시대적전형으로서 우리는 장편소설 《시련속에서》의 김유상, 유갑석을 들수 있는바 그들은 확고한 로동계급적립장에 서서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우리 당의 로선을 지켜 건결히 투쟁하는 영웅적로동계급의 빛나는 형상들이었다.

김유상은 오랜 로동경력을 가진 성실하고 근면하고 강직한 평로공이며 청년로동자 유갑석은 그 시기 새 세대 청년로동계급의 대표적인물로 등장한다.

그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맡겨주신 과업이라든 어떤 역경속에서도 기어이 수행하고야마는 강 의한 의지를 가지고있었기때문에 현장정리작업을 비롯한 모든 일에서 언제나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 한몸을 내대고 사람들을 고무했으며 일신의 위험도 무릅쓰고 불발탄을 제거하였다.

그러나 종전의 50톤평로를 100톤로로 개조 확장하며 강철생산계획을 기어이 초과완수해야 했을 때 그들은 새로운 정신적시련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100톤로의 개조는 용해공들에게 고도로 높은 선진기술의 도입과 새로운 기술기능수준을 요구하였다.

《평로에서 50년 묵은 구렁이》로 불리우는 용해경험과 로동년한을 가지고있었지만 그 낡은 경험을 버리고 처음부터 일을 새로 시작해야 함을 자각한 김유상은 일시 고민도 하면서 어떻게든 배워야 하겠다고 결심했고 유갑석은 전문학교

과정을 마친 분석공 영옥에게서까지 허심하게 배우며 남이 30년 배운것을 3년에 해치울 드높은 열의로 충만되어있었다.

혁명적열정은 높으나 지식이 받은것으로 하여 그들이 겪게 되는 정신적시련은 당시로서는 어쩔수 없는것이였다. 바로 이것때문에 로동계급과 지식인의 인간관계설정에서 일련의 특성을 낳게 하였다.

확실히 이 시기 로동계급들은 의욕은 높았으나 리지적측면에서는 지식인에게 뒤지였다.

그러나 80~90년대의 로동계급은 새로운 지성적면모를 가지고 지식인의 관계에서도 령도계급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지켜나가고있다.

오늘의 로동계급은 그들 자신이 기사로 되고 기술관리일군으로도 되어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주동적으로 사색하고 전망을 설계하며 자신만만하게 발언하고 행동한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형상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때문에 오늘 로동계급의 형상이라고 할 때 순수 로동자의 형상만을 넘두에 들수 없다. 장편소설 《야금기지》의 주인공처럼 일하면서 배워 기사가 되고 중편소설 《해빛은 넘쳐라》의 주인공처럼 나중에는 기술관리일군으로 성장한 사람들도 로동계급의 형상으로 보아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인테리화되어가는 로동계급가운데서 남먼저 인테리화된 로동계급의 선구자들을 로동계급대렬내에서 떨어져나간 사람으로 볼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룡양의 영웅소대 로동계급들이 한낱한시에 공장대학을 마치고 기사로 되었다고 하여 그들이 로동계급이 아니고 그들을 그린 작품이 로동계급형상소설이 아니라고 할수야 없지 않는가.

이러한 현대의 로동계급은 확실히 그전날의 로동계급보다 생각하고 말하는 품도 다르며 그들이 행동하는 모습도 달라졌다.

장편소설 《야금기지》의 주인공 강기석의 말을 들어보라.

《나는 공장지구에서 자랐고 이 제강소에서 생활을 시작했소. 로동하면서 공부했고 기사가 됐소. 지금 여기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당중앙의 커다란 관심속에 거창한 사업이 벌어지고있는데 이 뜻깊은 사업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기사이고 내 생활의 보람과 긍지를 어디 가서 찾겠소.》

이것은 마련된 생활을 누리는데서 만족과 보람을 찾기보다 당의 뜻과 구상을 꽃피워가는 창조적인 투쟁속에서 보람과 만족을 찾고싶어하는 주인공 강기석의 진심의 고백이다.

용해공으로 일하면서 공장대학을 나온 회전로의 현장기사 강기석은 야금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는 일을 다른 그 누가 아니라 바로 기사이며 로동계급인 자신들이 해야 함을 자각하고 남다른

열의를 기울여 회전로 야금을 연구해왔으며 생산공정을 개선하고 혁신해보려고 고심한다.

확실히 그는 모든 사고와 실천에서 높은 지성적면모를 갖추고있으며 야금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위한 투쟁에서 주인다운 위치를 확고히 지켜가는 인테리화된 로동계급의 새로운 면모를 체현하고있다.

이처럼 오늘 인테리화되어가는 로동계급은 주체사상과 현대과학지식으로 확고히 무장되고 보다 리성적인 안목으로 생활을 대하는 높은 경지에 오르고있다.

이것은 그들이 지닌 혁명성, 충실성을 지난날보다 훨씬 높은 경지에서 새롭게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마디로 말하여 그것은 높은 지성이 안받침된 혁명성, 충실성이다.

현시기 로동계급의 형상에서 이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지 못할 때 여러가지 본의아닌 편향을 범할수 있다.

한때 우리 문학에서는 로동계급형상에서 사상과 기술의 준비정도의 차이를 《갈등》으로 설정하는 도식적경향이 있었다. 그리하여 직접적으로 로동자와 기술자와의 대립을 공부정관계로 설정하는것과 같은 무리를 일으켰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어느 한 영화를 지도하시면서 명철하게 지적해주신바와 같이 그 영화에서는 우리 로동계급이 지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강조하려는 주관적의도밑에 공칭능력과 기술적담보를 주장하는 기술자들을 부정인물로 규정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을 무시하는 현상을 발로시켰다.

그 작품에서는 로동계급의 형상을 열성에 비해 지성이 뒤떨어진 사람으로 그림으로써 로동계급형상에서 전형성의 요구를 보장하지 못하였다.

또 일부 작품들에서는 현시기 로동계급의 성격묘사에서 그들의 소박한 생각, 투박한 말투, 뭐라고 말할지 몰라 《가슴을 두드리는》형상도 내놓았다.

그전시기에는 그런 성격들이 독자들의 열렬한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오늘에는 그런 성격들이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할뿐만아니라 오히려 실망을 안겨주고있다.

이에 대하여 창작가들은 응당 관심을 돌려야 한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거의 모든 로동자들이 여러가지 형태의 고등교육체계에 망라되어 공부하고있다. 오늘 우리 로동계급에게 있어서는 철학이나 정치경제학이나 고등수학같은것이 전혀 생소한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로동생활과 떼어놓는 불가분리의 부분을 이루고있다,

이것을 작가들은 망각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물론 우리는 로동계급이 아무리 인테리화되어가고있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인테리들과는 성격적차이가 있으며 과학리론분야에서는 수준상 차이도 존재한다는것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의 리지력은 눈에 띄게 높아졌으며 앞으로는 그들이 다 인테리화되고 또 지식인들은 다 로동계급화되어 로동자와 지식인간의 본질적차이가 없어지고 다같이 자주적인간으로서의 뚜렷한 풍모를 소유한 새 시대의 주인들로 되리라라는것은 명백하다.

이러한 인식에 토대하여 로동계급형상소설들의 지성세계를 높이자면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지성적준비정도에 맞게 인간관계에서 그들의 격을 높이고 성격창조에서 그들의 리지적측면을 살려낼수 있는 형상방법을 적극 탐구하여야 한다.

우리 시대 로동계급이 보다 높은 지성적인 면모를 갖추었다는것은 그들이 우리 당의 령도밑에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자주적인 인간의 본보기로 훌륭히 자라났다는것을 말한다.

오늘 우리 사회의 다른 계급, 계층들과의 관계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지위는 더욱 확고한것으로 되었고 3대혁명의 현실속에서 그들이 노는 주도적역할은 더욱 뚜렷한것으로 되였다.

이러한 객관적요구에 맞게 90년대 로동계급의 형상에서는 인물관계조직에서 그들의 격을 높이고 성격형상에서 그들의 리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인간관계조직에서 그들의 격을 높인다는것은 주인공으로 설정된 로동계급이 지도일군들이나 지식인들과의 관계에서 리지적측면에서도 응당한 수준을 가지고 혁명의 주인, 사회의 령도계급답게 자기의 지위를 지키고 역할을 다하게 묘사한다는것이다.

해방후 민주건설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의 로동계급의 형상들과 달리 80년대나 90년대의 로동계급은 훨씬 높은 의식수준과 기술문화적소양을 갖추고 품위있게 발언하고 사색하며 모든 면에서 주인답게 행동하는 보다 지성적인 인물들로 그려져야 한다.

지도일군들이나 기술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정당하게 리치를 따져 말하고 품위있게 처신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다 사색적이고 격이 있게 그릴 때 로동계급의 형상은 시대의 전형으로 생동하게 부각될수 있는것이다.

최근에 출판된 김봉철의 장편소설 《환희》에 등장하는 평범한 소성공 김성호는 중학을 졸업하고 공장에 진출한 청년으로서 자기가 일하는 소성로에서 소성공 없이도 생산할수 있는 완전한 원격조종으로 소성로의 가동을 수행할수 있도록 하는 원격조종화를 실현한다. 여기에는 천리마시대에 커다란 혁신적위훈을 세우는 서철성이와 같은 창고고안자들이 만들어낸 콘베아식비력운반기 창안과는 비할바없이 높은 수준의 과학적 사색과 탐구와 노력이 응결되어있다.

그는 세멘트를 생산하는 소성로의 소성공이면서도 소성로를 과학기술적으로 개조할 꿈을 안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줄도 아는... 자신의 의무를 훨씬 초월한 고상하고 강렬한 지향과 열정, 지혜와 기능을 소유한 인간이다.

이러한 성호이기에 소성로의 내화벽돌 축조물구간에 균열이 생긴것을 알면서도 화입을 지지하는 직장내 기술간부들의 그릇된 지시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설득시키기도 하고 당당히 맞서기도 하면서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추호도 양보하지 않는 것이다.

소성로의 축조물에서 그쫘한 쓸림은 1,500 도열에 저질로 융합된다는 자신없는 말로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려드는 기사장을 그는 이렇게 납득시킨다.

《안됩니다. 그런 우연적인 위안을 얼마나 큰 값으로 치려야 하는지 난 잘 알고있습니다. 오전 중이면 축조를 다시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로 안됩니다.》

또한 그는 소성공은 지시를 집행할 의무밖에 없다, 소성로를 멈추고 돌리고 하는건 동무의 권한밖이니 책임은 동무가 지지 않아도 된다는 부기사장의 강요에 소성로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것, 설사 부기사장이 책임을 진다고 해도 소성로가 망가지는 판인데 그런 책임을 백번 진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고 항변함으로써 지배인을 비롯한 직장기술간부들을 뜨겁게 감화시킨다.

드디어 화입에 앞서 소성로의 쓸림부분에 대한 축조전투가 시작되자 기뻐하는 성호의 모습을 지켜보는 지배인 리충현의 심정을 소설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있다.

《그처럼 안하무인격이었던 싸움군같은 청년의 눈이 순간 젖어있음을 충현은 조용히 지켜보았다. 자기 소성로를 무척 그야말로 제품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서만 볼수 있는 맑은 눈물이었다. 충현은 말없이 돌아서서 기사장과 주위사람들을 돌아보았다. 화입이 세시간이나 다섯시간 늦는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것때문에 수백톤의 세멘트를 손해보는것도 문제가 아니다. 순결한 정신과 순결한 랑심 그리고 순결한 사상으로 자기 위치를 고수하는 그것이 더 값나가는 것이다.》

이만치 우리의 로동계급은 발언권이 몇몇하고 과학기술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위치에도 당당히 서서 대중을 이끌고있다. 말을 해도 그들은 지지 않는다.

이에 대한 뚜렷한 실례로 역시 최근에 출판된 중편소설 《해빛은 넘쳐라》를 들수 있다.

소설은 자동화가 실현된, 어느 한 제철소에서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이 현대과학기술을 체득해나가면서 최신형전자계산기를 도입함으로써 자동화의 본보기공장으로서의 면모를 지켜나가는 자랑스러운 모습을 형상하고있다.

소설의 주인공인 라근수는 제철소의 권양기 작업반에서 전공일을 하며 공장대학을 졸업한 일꾼이다. 그러던 그가 당의 신입으로 자동화의 앞장에 서서 많은 일을 하고 부기사장의 직책까지 맡게 되었다.

그는 제철소의 자동화사업을 단순히 기술혁명이라고 생각하는것이 아니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령도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여가는 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제일 발전된 나라에 가봐두 용광로는 우리의것과 같다고 하면서 흥타령을 부르며 제발로 더 멀리 걸어가려 하지 않고 앉아서만세만 부르는 일꾼들의 그릇된 사상관점과 추호도 타협함이 없이 공장내 기술일꾼들과 야금로동자들을 전자계산기화 실현으로 힘있게 이끌어줌으로써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추세에 맞게 자동화수준을 더욱 높은 단계에 끌어올리는데 성공하는 것이다.

라근수를 비롯한 제철소 로동계급들이 한결같이 바라는것은 모두가 기사, 준기사로 되어 용광로를 비롯한 모든 공정을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추세에 맞게 전자계산기화, 로보트화하여 우리당의 업적을 더욱 빛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문학의 화폭에 이와 같이 자동화된 일터에서 인테리화되어가는 로동계급의 생활적화폭을 민감하게 반영한 작품이 창작된것은 반가운 일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 작품들에 그려진 로동계급의 형상들을 통하여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혁명을 끊임없이 전진시킬 때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그들의 역할이 더욱 확고히 믿음직하게 담보되며 앞으로 그것이 더욱더 공고화될것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로동계급의 형상을 격이 높게 그리려면 그들의 리지적측면을 깊이 파고들어 보여줄수 있는 형상방법을 탐구해야 한다.

인테리화되어가는 로동계급의 성격창조에서 리지적측면을 강조하여 묘사하려면 그들의 내면심리세계를 깊이 파고들어가 높은 리성적사유능력을 가지고 생활의 의미에 대하여 깊이있게 사색하는 모습을 잘 그리는것이 중요하다.

지성도가 낮은 인물을 선택하여 작품의 지성도를 보장해야 하는 경우에 주로 그 인물자체의 시점에서 생활을 분석평가하여 그리는 대목보다 작가의 시점이나 상대적으로 지성이 높은 다른 인물의 시점에서 생활을 분석평가하여 묘사하는 대목에 더 많은 비중을 돌려온것이 일반적인 통례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로동계급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창작에서는 이러한 수법보다도 직접 로동계급의 리지적인 성격을 그대로 파헤치는 과정을 통해서도 작품의 지성도를 훌륭히 보장할수 있다.

등장인물의 지성적높이가 작가의 지성을 대변할수 있게 되어감에 따라 바로 그 인물의 시점에서 생활에 대한 체험과 사색의 세계를 깊이 파헤쳐 그려보여줄 때 자연히 작품전반의 지성도가 보장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인테리화된 로동계급을 주인공으로 했을 때 전적으로 그의 시점으로 일관시켜 그려도 작품의 지성도를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로동계급형상소설들의 지성도를 높이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부정인물의 경우에도 그들이 가

지고있는 리지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격이 있게 그려내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대생활을 그릴 때에는 부정인물에 대해서도 그들이 가지고있는 리지적인 측면을 강조하여야 하며 교양개조과정을 보다 진지하고 격이 있게 그려내야 한다.》**

부정인물형상에서도 지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것은 사회발전과 더불어 부정인물들 자신도 변해가고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로동계급속에서 나타나는 오늘의 부정 90 년대의 부정이 지난날의 부정과 다른것이 무엇인가.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천리마시기의 부정인물인 서만덕(장편소설 《시련속에서》), 박상수(단편소설 《애착》)들은 주관적으로는 당에 충실하겠다고 하지만 《몰라서》 과오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단편소설 《새로운 기슭에서》 부정인물로 등장하는 신철이와 단편소설 《변함없는 모습》의 부정인물 림애를 놓고볼 때 우리는 그들이 《몰라서》 과오를 범하게 되는 그런 인물들로만 생각되지 않는다. 잘못을 범한 그들에게도 자기 식의 《리론》이 있고 《주장》도 있다.

《변함없는 모습》의 부정인물인 림애는 가정 부인이 되자 살아가는데 편리한 자리로 옮겨왔으려는 자기를 그토록 만류하는 주인공 정순반장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런 식으로 따지지 말어. 네앞에 서니 숨김없이 말한다면 나는 이미 내 몫을 하고도 남았다구 생각해... 그리구 이제 는 더 올라가지 못해...

그렇바치고는...좀 달리 살자는거야... 내 갈길은 내가 알고있으니 더 막지 말아.》

사상혁명이 심화되고있는 격동적인 오늘의 현실속에서 나타나는 부정인물들은 바로 이렇다. 그들은 지난날의 부정인물에 비해 훨씬 더 《고급하게》 사색하고 변민하며 요령의 조향륜을 틀어잡고 타격을 피해 에돌줄도 알며 자기를 합리화하는 량심의 《피신처》도 마련해둘줄 안다.

따라서 이들을 교양개조하기 위한 긍정인물들의 투쟁에서는 훨씬 더 큰 리지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부정인물들의 형상에서 그들의 리지적측면을 강조하면서 교양개조과정을 보다 진지하고 격이 높게 그려내야 상대인물로 된 긍정의 지성적품격도 올라가고 작품전반의 지성세계도 높아지게 된다.

우에서 지적된 작품들은 이런 측면에서 작가들의 진지한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작품전반의 지성도가 한결 높아지게 되었다.

로동계급형상소설의 지성도를 높이는 문제는 많은 탐구와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인물의 지성도를 높이는 문제에 대하여 실지 리론적으로 말하기는 쉬워도 창작실천에 구현한다는것은 쉽지 않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더 많은 탐구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아쉬운것은 우리가 이런 글을 쓰면서도 본보기로 내세울수 있는 작품이 그리 많지 못하다는것이다.

실례로 들끓는 현실속에서 일하면서 배워 기사로 자라난 룡양의 광부들의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대비해 보여주면서 인테리화된 로동계급의 참모습과 위력을 시위하는 그런 지성세계가 높은 작품들이 창작된다면 얼마나 좋을것인가를 생각해 된다.

## 가사

### 병사가 거리를 지날 때

남병우

병사가 거리를 지나갈 때에  
행복의 창문들은 밝게 열리네  
병사의 구슬땀이 바쳐진 거리  
꽃잎을 그날들이 안기여오네

병사가 거리를 지나갈 때에  
사람들은 정답게 인사를 하네

병사의 모습을 새겨둔 거리  
그날에 떨친 위훈 빛나고있네

병사가 거리를 지나갈 때에  
행복의 노래소리 높이 울리네  
조국의 초소를 지켜선 병사  
불타는 맹세를 안고간다네

# 협의회가 끝난뒤

리석

## 1

유리연단로 개조문제를 놓고 진행된 협의회는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좀처럼 끝을 못내고있었다.

제관직장장 김영식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현재 있는 로를 허물고 그자리에 쇠기둥을 세워 새로 쌓자는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공장대학을 나온 임상철을 비롯한 젊은 축들은 언제 그렇게 한가스러이 허물었다 쌓았다 하겠는가, 아예 통채로 들어올리자는 안을 내놓았다.

두안이 다 일리가 있으나 쉽사리 결정해버릴 문제가 아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받들고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40 돛을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당회의 결정대로 연단로는 어차피 개조하되 생산은 생산대로 내밀면서 해야 하기때문이었다.

유리직장에 있는 현재의 연단로를 흐름선에 맞게 2미터 높이에 들어올려 설치만 하면 지금보다 생산을 세배로 꺾충 끌어올릴수 있었다.

그런데 건물내부가 낫다나니 천정기중기나 권양기를 설치할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하루가 새로운 때에 로를 며칠간 세워놓고 다시 쌓는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공장당위원회에서는 며칠전부터 모든 직장과 작업반들에서 이 개조안을 군중토의에 붙이었다. 또 기술과에서는 기술과대로 기술혁신현상모집도 조직하였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고 월말이 가까이 다가오고있었으나 아직 이렇다할 안이 제기되지 않았다. 그렇다 하여 속수무책으로 앉아있을수만 없었다.

그래서 오늘협의회에는 당원들뿐만아니라 사로청원들과 직맹원들까지도 참가시켰다.

그리고 엇그제 공장대학과 전문학교를 졸업한 준기사들까지 참가시키는것도 잊지 않았다.

침묵, 침묵, 침묵이 오래동안 흘렀다.

그때 앞에서 누가 석실히 목소리로 말하였다.

《아까도 말했지만 공장적인 기술력량과 로력을 총동원하여 짧은 시간안에 로를 허물고 다시 쌓는 일밖에 없습니다.》

알고보니 김영식이였다. 오랜 로동기간 습배였다고 할가 무게있는 목소리는 그 무슨 위압감이랄도 가진듯 회의장안의 팽팽한 기운을 더욱 짓누른듯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맨뒤에서 청청한 목소리가 울렸다.

《제가 의견을 제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약속이나 한듯 일시에 그쪽으로 쏠리였다.

《아니? 저애 금실이가?》

아직 애터를 벗지 못하고있는 얼굴, 동그스름한 얼굴에 류달리 새까만 눈, 사람들에게 생기를 느끼게 하는 인상을 주는 저 처녀.

지난해 전문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공장에 들어온 처녀였다.

《우리 직장장동지를 단 며칠간이라도 휴양소에 보냈으면 합니다.》

《영?》

《아니 저 처녀가 제 정신인가?》

《이 바쁜 때에 제관직장장을 휴양소에 보내다니...》

어떤 사람들은 철딱서니가 없다고 한마디씩 하였다.

그러거나말거나 회의집행석에 앉아있던 초급당비서 리인국은 빙그레 웃으며 물었다.

《처녀동무, 왜 직장장을 휴양소에 보내자고 합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제가 마치 금실이라도 대변하듯이 그옆에 앉아있던 교수머리청년이 벌떡 일어섰다.

《우리 직장장동진 지친것 같습니다. 막 보기가 딱합니다.》

《그으래? 지쳤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금실이가 일어나 대답하였다.

리인국은 얼굴에 미소를 가득 담고 머리를 끄덕이였다.

《돌격대장이 지쳤단 말이지?》

그 말도 그럴듯하였다. 제관직장장 김영식으로 놓고 말하면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였다.

공장에서 어려운 일이 제기되면 그가 도맡아 나섰었다.

청정기작업도, 보이라공사도 그리고 준비직장 확장공사도 다 김영식직장장이 주동이 되어 하였다.

이 공장 어느 설비, 어느 현장 구석구석이 김영식의 땀방울이 스며있지 않는데가 없었다.

그러다나니 언제한번 남들처럼 변변히 휴식하지도 못했다.

오죽이나 그랬으면 탁아소 보육원으로 일하는 그의 안해가 유모들앞에서 그 언젠가 명절날 한밤중에 들어온 령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아 반시간이나 밖에 세워놓았다고 말하였겠는가.

너인들의 앞에서 웃으며 하였다는 말이였지만 스쳐지날수 없는 심중한 말이였다.

그래서 인국은 올해에는 꼭 가족들과 함께 경치좋은 휴양소에 그를 어떻게 하나 보내야겠다고 은근히 원심을 쓰고있었다.

《어떻습니까? 지배인동무.》

지배인 림명섭도 반대가 없었다.

《지배인동무도 찬성이라는 말이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결정서의 한 조목에다 제관직장장동무를 휴양소에 보내는 문제를 넣읍시다.》

《유리연단로개조문제를 토론하는 회의에서 제관직장장을 휴양소에 보내는 문제가 결정되다니?》

사람들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회의실을 나섰다.

어쨌든 영식은 어리다고만 생각하였던 젊은이들한테서 단단히 한대 얻어맞은 격이 되였다.

그는 어처구니가 없다고 할가, 병어리 랭가슴 앓듯 공공 갑자르기만 하면서 벗어들었던 모자를 머리에 올려놓으며 맥빠진 사람처럼 맨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나섰다.

## 2

멀리 산봉우리들을 불그스레 비치던 저녁해 빛마저 사라지자 땅우의 모든것이 삽시에 어둡속에 잠겼다.

아침까지만 하여도 쌀쌀하던 날씨가 저녁이 되자 푸근하기 시작하였다.

그 어느 집에선지 너인들이 밥상앞으로 놀음에 정신이 팔린 아이들을 불러들이는 소리가 들려온다.

공장살림집마을은 구수한 냄새로 퇴근길에 오른 사람들의 걸음을 재촉하는듯하였다.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집뜨락에 들어선 영식은 인기척도 없이 방문을 열었다.

벌써 로친네가 들어와 부엌에서 동자질에 여념이 없었다.

《오늘따라 당신이 웬 일이슈?》

그러거나말거나 영식은 웃웃을 벗었다. 안해는 김이 물물 피어오르는 더운물을 파아란 비닐소랭이에 찰찰 넘치게 담아들고 부엌문을 열었다.

《여보 쏘아지겠소.》

젊었을 때 살갗이 희고 얼굴도 쪽 빠진축이여서 남자들이 줄을 서서 따라다녔다는 순녀는 시치미를 떼고 령감의 마음을 핑겨보았다.

현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로부터 낮에 있었던 일을 들었던지라 우정 모른체하였다.

《그래 언제 떠나려우?》

《당신도 알고있었수다레.》

《당신은 우리 탁아소안테나가 높다것을 모르슈.》

김순녀는 룡이 섞인 말로 눈을 곱게 흘기며 즐겁게 웃었다.

령감이 방안에 들어오자 순녀는 시원한 맥주 한병을 가지고 들고들어왔다.

순녀는 당위원회결정으로 령감이 휴양소로 가는것이 결정되였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은근히 기뻐다. 언제 한번 남들처럼 편안히 잠을 잔 때가 별반없는 령감이였다.

전쟁때에는 미국놈들의 폭격때문에 공장을 지키느라고, 전후에는 마사진 공장을 복구하느라 그래, 오늘은 큰 직장책임자라 공장에서 벌어지는 크고작은 일을 다 안고 씨름질을 하였다.

그럴 때마다 나이는 속이지 못한다고 자기몸을 돌보지 않는 령감이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위구심도 없지 않았다.

순녀는 령감이 부어놓은 맥주를 다 마실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다.

영식은 맥주고뿌를 다 비우자

《여보, 그 말이가 가져온 카-가 있지?》 하고 가져오라는 시늉을 하였다.

《그건 왜?》

《내가 마실라고 그래.》

순녀는 령감이 마시겠다는 말에 그 언젠가 기계공장에서 설계원으로 일하는 말이가 가져온 《인삼술》을 찬장밑에서 꺼내놓았다.

병마개가 붙어있는 빨간 비닐을 떼려고 하자 영식은 입에 담배대를 문채로 빼앗아들었다.

그리고는 일어섰다.

《아니 어디로 가려구 그러시우?》

《응, 창길이네 집에.》

창길이란 도랑건너편에 있는 공장자재공급소장 리용근 아들을 말하였다.

리용근을 놓고말하면 영식이와 공장에서 잔뼈가 굵어온 사이이다. 언제 어느때 보아도 용근이가 있는데 영식이가 있고 영식이가 있는데는 용근이가 있었다.

그래서 지배인이나 기사장이 영식을 가끔 찾  
을 일 있어 직장에 전화를 걸다가 없다고 하면 통  
계원에게 자재공급소장의 방에 가보라고 한다.

《창길이 아버지 있소?》

주인의 승인도 없이 나들문을 열자 용근이가  
방금 저녁상을 마주하고있었다.

《마침 잘 오셨수다.》

용근의 처가 반색을 하며 맞아주었다.

《내가 이거 령감로친이 재미나게 앉아있는데  
온게 아닌가?》

용근은 주춤거리는 영식을 끌어다 밥상앞에  
앉혔다.

영식은 가지고왔던 《인삼술》을 상에 놓았  
다. 그리고는 용근의 안해 정순에게 잔을 가져다  
달라고 하였다.

《여보게, 내 휴양소에 떠나기는 떠나겠네. 그  
런데 아무래도 미타하단 말일세. 저 젊은 녀석들  
의 욕욕하는 성미에 꼭 무슨 일을 칠것 같아서 마  
음을 놓지 못하겠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래도 자  
네가 도와주어야겠네.》

《걱정말구 떠나게, 내가 언제 〈모자직장장〉  
의 명령을 어긴 일이 있나.》

《그래, 그래. 그래서 내 자네를 예비주머니라  
고 하는거지.》

영식은 껄껄 웃었다. 이렇게라도 하니 좀 마  
음이 놓인듯하였다.

영식이가 용근을 《예비주머니》라고 한 말  
은 거짓이 아니었다.

무슨 일이 제기될 때마다 용근은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자재를 어김없이 보장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속에서 가끔 용근을 제관직장  
장의 《예비주머니》라고들 하였다.

《그럼 이번에도 자넌 믿고 떠나겠네.》하고  
영식은 상우에 놓여있는 술병을 곁을 내지 않은  
채 일어섰다.

《마저 들고 가야지요.》

《됐소. 오늘은 마시지 않아도 마신거나 다름  
없소.》하고는 영식은 훌쩍 일어섰다.

### 3

영식이가 청진행급행렬차에 오르던 그날밤.

유리직장현장에서는 《4. 15 기술혁신돌격  
대》원들과 공장안의 기술자들, 기능공들이 모여  
앉았다. 아귀를 짓지 못했던 유리연단로를 통채  
로 들어올릴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밤이 이슬하  
도록 론쟁하였다.

여기서 고수머리청년 임상철이가 내놓은 안  
이 참가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군대때 방어공사장에서 큰 물통을 들어올리  
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자동차를 수리할 때  
쓰는 유압자끼를 가지고 한메터높이까지 떠올렸  
다는것이였다.

그의 이 기발한 제기는 즉시에 기술자들과 기  
능공들의 환상을 펼치게 하였다.

종이장도 여럿이 마주들면 가볍다고 진지한  
론쟁끝에 유압자끼를 하나가 아니라 네개를 동시  
에 설치하고 뜨기로 하였다. 그러되 모든 전투원  
들이 한사람의 지휘밑에 움직여야 한다는것이 첨  
부되였다.

그 시각부터 전투장은 활기를 띠였다. 임상철  
은 한손에는 붉은기를, 한손에는 흰기를 그리고  
입에는 호각을 물고 지휘하였다.

그가 기발을 팔아래로부터 우로 주춤주춤 흔  
들 때마다 제관공들은 이미 둥그런 자리쇠모양으  
로 준비한 손바닥두께만한 철판들을 날쌔게 자끼  
밑에다 받쳐넣었다.

한장, 두장...

연단로는 서서히 우로 올랐다. 이렇게 되자  
이런 희한한 일이 있는가고 위구심을 가지던 측  
들도 소리치며 바빠 돌아쳤다.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하였다. 어느덧 로가 1  
메터 높이까지 올라갔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되  
여 며칠간 움니암니하던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  
었던가를 돌이켜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운수직장장 김현덕이 기사장  
의 팔을 끌었다.

《기사장동무, 이 자끼로 1 메터까지는 들어올  
릴수는 있어도 그이상 들다가는 자끼가 터질수  
있습니다.》

《뭐요?!》

생각만해도 끔찍한 일이었다. 그는 누가 말릴  
사이도 없이 고수머리청년의 손에서 기발을 빼앗  
아들고 작업을 중지시켰다.

《글쎄 그럴줄 알았다니까.》

여기저기서 말들이 구구하였다. 현장의 분위  
기는 팽팽할대로 팽팽하였다.

지금까지 먼발치에서 이 작업광경을 지켜보  
던 자재공급소장 리용근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  
였다.

### 4

흰 백사장에 다복술이 다문다문 있고 합각지  
붕이 하늘을 날아갈듯 정갈한 휴양소는 정말 아  
늑하였다.

나라에서 우리 노동자들을 위하여 무상으로  
이런 혜택을 돌려주고있다니, 생각할수록 꿈만갈  
은 일이었다.



휴양소에 온것이 무슨 죄라도 지은것 같아 영식은 매끼마다 푸짐히 차려주는 음식이 목에 걸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모두 어떻게 하고있는지.)

오늘따라 문화지도원이 호실별로 진행되는 노래경연에 참가하라고 여간만 독촉하지 않았었다.

손발이 근질근질거리고 오금이 쏘아 하루가 열흘 맞잡이었다. 영식은 참다못해 닻새째 되는 날에는 끝내 휴양소 소장을 찾아갔다.

자초지종 그의 말을 다 들던 소장은 요구조건을 들을념도 하지 않고 두마디안팎으로 딱 잘라 버렸다.

《누구나 다 여기 와서는 그런 오그랑수를 쓰지. 갔다가 온다구? 마치 저만 나라를 위한 애국자인듯이.》

말하나마나 하다는것이였다. 영식은 이런 위인과는 의사소통이 될리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무슨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하겠다고 마음 한구석으로 생각하였다.

어느새 그의 이런 속내를 꿰뚫고보았던지

《직장장동무, 이 휴양소에 오면 누구나 휴양소가 제정한 규률과 제도에 복종해야 합니다.

간부건 로동자건 여기서는 통하지 않소.》하고는 제할 일을 하였다.

영식은 괜히 찾아왔다고 생각하였다.

×

산세가 험한 골짜기와 골짜기를 지나 굽이굽이 달리던 열차는 씨앗뿌리기로 분주한 농장별 복판으로 달리였다.

가볍게 불어오는 들바람이 두엄냄새를 구수하게 실어왔다. 겨우내 땅속에서 잠을 자던 새싹들이 저마다 경쟁적으로 파스한 해빛을 받으려고 고개를 뽀죽히 내밀었다.

보도랑을 찰찰 넘쳐흐르는 시내물도 들까불며 어리광을 부리는 이른봄.

휴양소에서 남몰래 《도망》을 하여 열차에 몸을 실은 영식의 마음은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자기를 찾아 소동을 부리고있을 휴양소의 형편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어찌되었을가. 이 사람들이 연단로를 제대로 들어올렸을가?)

이런 생각으로 가슴을 옥죄이니 시간당 120킬로메터로 달리는 열차마저 오늘은 굼뜨것 같았다.

그래서 괜히 지나가는 열차안내원에게 왜 오늘은 열차가 이리 굼뎡이처럼 꾸물거리는가고 푸념까지 하였다.

속에 불이 달아올라 편안히 앉아있기가 오히려 고통스러울 지경이었다.

시원히 승강대에 나와서 바람이나 쏘이자고 생각하고 출입문쪽으로 다가갔다.

《아니 저게 누구야?》

그는 열결에 저쪽 칸 출입문가턱에 서있는 자재공급소장을 알아보았다.

그는 바람처럼 건너뛰였다.

《여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아니 이거 직장장이 아닌가?》

《그래 로가 어떻게 되었나?》

용근은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였다.

《내 그럴줄 알았지. 녀석들갈으니라구. 그래서 내 복선을 친게야.》

영식은 이런 일을 예견하고있었기때문에 용근을 찾아가 예비주머니를 든든히 채워놓으라고 한것이 얼마나 옳은 처사인가고 생각하니 마음이 놓였다.

《그래 내성내화물공장에 갔던 일은?》

영식은 다그쳐물었다.

《그 공장에서도 지금 내화물생산공정에 흐름선을 도입하느라고 보름전부터 생산공정을 뜯어고치고있었네.》

《그래 한다 하는 자네가 빈손으로 돌아온단 말인가?》

《넌들 공장이 켜는데 재간이 있소.》

《에잇 사람두, 믿는 도끼자루가 부러진다니.》

영식은 더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을 해야 무슨 소용이 있으랴. 빨리 공장에 가보는것이 상책이었다.

그는 옷단추를 열어놓고 입에 담배를 붙여물었다.

5

열차가 정거장에 머서서기 바쁘게 나들이차림 그대로 공장에 도착한 영식은 연단로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현장은 쥐죽은듯 조용하였다.

어떻게 된노릇인가. 이 사람들이 분명히 주저앉은 모양이라고 생각하였다.

채광창이 환히 비친 유리직장 현장어귀에 다달은 영식은 그자리에 못박혀섰다.

자재공급소장의 말과는 반대로 2미터높이에 유리연단로가 네개의 철기둥에 덩실하게 떠받들려있는것이 아닌가.

지금 마지막용접작업이 한창이었다. 용접의 푸른 섬광을 구름처럼 날리며 용접면을 벗었다 썼다 하는 용접공들, 연단로위에 올라선 청년기사 임상철이가 붉은 기발을 한손에 들고 입에는 호각을 물고 지휘하고있었다.

《주의, 내 신호에 따라 움직이시오.》

그리고는 붉은 기발을 아래로부터 우로 올렸다내렸다하였다.

그럴 때마다 용접공들과 제관공들과 조립공들이 임상철의 표정, 몸짓하나 농칠세라 바라보며 하나같이 움직여나갔다.

그 모습은 마치 돌격선에 나선 지휘관의 얼굴을 방불케 하였다.

그렇게 생각하니 지금까지 철이 없다고만 생각하였던 임상철이 오늘따라 돋보이였다.

(얼마나 미더운 젊은이들인가. 그런데 지금껏 저 사람을 탐탐히 보지 않았지.)

이렇게 생각하니 영식은 저도 모르게 자신이 시대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있는가 하는 생각으로 얼굴이 뜨거워졌다.

지금껏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임상철, 선망과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 얼굴, 내 언제 저런 얼굴로 젊은이들에게 기대와 관심을 가지게 했던가.

오죽했으면 저 금실이까 직장에 배치되어오던 날 통계원에게 직장장아바이가 인상이 무섭다고 했겠는가.

성미가 무뚝뚝해서일가. 그는 자기의 이 인상을 가리우기 위해서 그때부터 기름때가 묻고 용접불꽃이 튀어 구멍이 숭숭 뚫어진 모자를 눈섭가까이에까지 바투 쓰고다니였다.

그래서 공장로동자들은 물론 공장지도원들로부터 가끔 《모자직장장》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영식은 그 말이 싫지 않았다.

로동자들이 자기를 이렇게 부르는데는 여러가지 리유가 있을거라고 오늘따라 새삼스레 생각하였다.

언제나 근심에 싸여있는 얼굴, 무슨 파업을 받으면 어떻게 뚫고 나가겠는가 하는 방도보다 만약 이 파업이 지연되거나 집행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말하자면 방도보다 타산부터 먼저 앞세웠다.

그러다나니 어떤 때는 혼자서 모지름을 쓰느라고 공공거리기도 하였다.

이럴 때면 그의 곁으로 일꾼들도, 로동자들도 찾아오지 않았다.

바로 이번에 유리연단로개조문제만 놓고봐도 그러하였던것이다.

(처음부터 청년들과 무릎을 마주하였더라면 일은 쉽게 풀렸을터인데. 독불장군같은것, 속이지가 덜때먹은놈.)

그는 자기가 휴양소에 가지 않고 그냥 여기에 있었더라면 아직 저 연단로가 하늘높이 오르지도 못하고 땅바닥에서 주저앉아있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면서 저런 믿음직한 청년들을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깊이깊이 후회하였다.

영식은 이제라도 락오자가 되지 말고 젊은이들속에 들어가 배워야 하겠다고 속다짐하였다.

이런 자책속에 멍하니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있는데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이게 제관직장장동무가 아니요?》

소리나는쪽을 바라보니 당비서 리인국이였다.

《비서동무, 그사이에 수고가 많았겠습니다.》

《내 그럴줄 알았소. 동무 성미에 휴양소에 일주일도 불박혀있지 못할거라고, 그래서 어제 전화로 휴양소 소장을 찾았더니 동무가 출행량을 놓았다더군. 원 사람두, 도망을 치다니... 하하.》

인국은 즐겁게 웃었다. 인정미가 흐르는 말에 영식은 눈곱이 뜨거워졌다.

《비서동무, 제가 저런 청년들을 곁에 두고있으면서도...》

《됐소, 됐소. 알면 되었소. 청년들이 여기를 보고있소.》

그러면서 인국은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추려서 간단히 말하여주었다.

×

연단로가 1미터높이까지 올랐던 그때 사람들은 기사장의 꺼먼 얼굴을 보고 대뜸 사태를 짐작하였다. 것처럼 기세 좋던 전투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그러나 청년기술자들은 진지한 협의끝에 8톤 이상 들수 있는 《자주》 호화물자동차의 유압자끼에 생각이 미치였다.

그리하여 운수직장과 후방파에 있던 《자주》호의 유압자끼 4개를 모아다가 즉시에 교체해보니 아주 리상적이었다.

이렇게 되어 막혔던 고리가 또다시 쉽게 풀려졌다. 이런 사연을 알리 없는 공급소장 용근이가 영식에게 어떤 말을 했다는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곁에서 초급당비서의 말을 들은 용근은 머리가 수그러들었다.

《사람두 원, 똑똑히 알지 못하면서두...》

영식은 용근을 바라보며 곱지 않게 두눈을 흘기었다. 용근은 아무말도 못하고 덤덤히 서있었다,

《직장장동무, 전투마당에서 전사들은 지휘관의 얼굴부터 먼저 본다는것을 동무도 알겠지요. 역량상 아무리 힘겨운 전투도 지휘관이 신심이 있어하면 전사들도 싸움에서 신심을 가지거든요. 역시 우리가 오늘 하고있는 사회주의대전설전투도 같소.

남이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데 왜 곤난과 애로가 없겠소.》

영식은 그 언젠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일군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없이 무슨 과업을 주면 조건타발하면서 책임을 우에 밀고 아래에 밀고하는 현상들은 패배주의와 같다고 하던 말씀이 떠올랐다.

(아, 결국 내가 저도 모르는새 패배주의자가 되었구나.)

자신이 얼마나 시대에 멀리 떨어져있고 위험한 길에 굴러떨어져있는가. 전진의 체동기가 된 것이 뼈아프게 폐부에 저머들었다.

《비서동무, 저도 이제부터 짐이 되지 않고 시대의 기수답게 일해보렵니다.》

《알았으면 되었소. 직장장동무, 연단로도 제대로 되었는데 도로 휴양소에 가보아야 하지 않을까?》

《예? 비서동무두 참...》

영식은 즐거운 마음을 안고 연단로쪽으로 걸어갔다. 자재공급소장 리용근도 역시 그의 뒤를 조용히 따랐다.

## 이해의 봄

리종덕

봄

꽃은 해마다 피던  
그 꽃만같지 않구나  
향기도 봄마다 터치던  
그 향기만 같지 않아라

이해의 봄

광풍을 이겨낸 이 땅에 피는 꽃이어서  
이토록 아름답고  
찬서리 이겨낸 이 땅에 넘치는 향기이어서  
이토록 가슴 젖어라

바로 이 봄

불속에서도 변치 않은 애국의 불사조  
신념의 그 진달래 향기 안고  
기어이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기여  
천만가슴 걱정을 터뜨린 봄

봄이여라

사랑과 의리와 화목 속에  
사회와 집단을 위해  
청춘도 사랑도 다 바치는 사람들  
이 땅에 아름다운 꽃으로 더욱 붉게 피여난봄

봄이여라 봄이여라

우리를 놀래우려는 원수들에게  
일심단결의 노래로 봄우뢰를 터쳐  
전쟁의 핵구름도 날려버린 봄이여  
전민족대단결 10 대강령으로  
통일의 앞길에 밝은 빛을 뿌려준 봄이여

오, 우리의 사회주의를 질식시키려

원수들은 독설을 뿔었어도  
한점 찬서리도 얼씬할세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인민을 지키시여  
만발하게 꽃피워주신 봄이여

력사는 빛나는 년대를 새기고

인민은 또 한돌기 충효의 나이를 새기는  
이해의 봄하늘에  
한점 그늘없이 해빛은 눈부시고  
한점 티없이 바람결은 맑아라

오, 이 땅에 해가 바뀌고 세월이 갈수록

사회주의화원은 더욱더 만발하는 봄이이어서  
친애하는 그이를 모신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한 행복의 꽃망울이 더욱 붉게 피어나는  
조선의 봄이여

#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를 높이 발휘하여 우리 사회를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으로 꽃피워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구호에서)

수필

## 좋은 날에

박영이

립추가 지나간 일요일이어서 대동강변은 제법 서늘한 기운이 돌았다. 나는 건너편에 높이 솟아오른 주체사상탑을 이윽도록 바라보며 유보도를 거닐고있었다.

푸른물이 유유히 흘러가는 강심에서 장쾌하게 솟구쳐오르는 쌍기둥분수, 하늘과 땅을 건너 지른 황홀한 무지개들, 흰 물갈기를 일으키며 달리는 러객선의 은은한 배고동소리... 한마디로 대동강변의 풍치는 절경이었다.

주체사상탑을 배경으로 하여 펼쳐진 이 아름다운 화폭을 사진에 새겨두고싶었다. 그것은 나 한사람의 심정만이 아니었다.

김일성광장으로 향한 돌층계우에는 벌써 술한 사진기렌즈들이 해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리고 있었다. 렌즈앞에 선 대다수가 신랑신부들이다. 쌍쌍이 팔을 끼고 찍는가 하면 둘러리며 친구들과 한데 어울리어서도 찍는다.

표정들도 형형색색이다. 행복감을 그대로 함박꽃처럼 피워올리는 신부, 노상 입을 다물지 못해 빙글거리는 신랑, 그런가 하면 어떤 신부는 일부러 새침한 기색을 지었으나 눈동자속의 기쁨만은 감추지 못하고있다.

《신랑, 너무 히죽거리지 말아...》

《얼굴을 좀 틀라구요 신부님-》

둘러리들과 사진사의 희떠운 소리, 짹자그르터지는 녀인들의 웃음소리... 나는 저도 모르게 빙그레 웃었다.

하늘은 가없이 맑고푸르다. 참으로 좋은 때, 좋은 날이었다. 하긴 나역시 20년전 바로 오늘같이 좋은 날에 여기서 결혼기념사진을 찍었었다.

즐겁게 웃고떠드는 젊은이들의 명랑한 모습들에서 나의 청춘시절이 련상되였다. 인생에서 가장 보람차고 행복한 시절이었다.

추억은 어느덧 나를 화강석계단으로 한단 두단 끌어올렸다. 흘러가버린 청춘시절이 그리워서인지 아니면 구김살없이 좋은 날을 보내는 젊은이들이 부러워서인지 발걸음은 그쪽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이때 광장후미의 주차장에 맵시있게 생긴 소형빠스가 미끄러지듯 들어섰다. 역시 결혼식차였다.

먼저 대여섯명의 젊은이들이 내리고 마감에 신랑신부가 내려서는데 웬일인지 신부와 둘러리가 신랑을 부축하는것이였다.

(? ...)

신랑을 눈여겨 살펴보니 두 다리가 다 의족이였다. 흑곤색양복저고리를 입은 청년의 앞가슴에는 영예군인휘장이 반짝거렸다.

나는 몽클해지는 가슴을 달래이며 저도모르게 계단을 마주짚어 내려갔다. 나뿐이 아니라 대계단우의 모든 사람들이 한발, 두발 마주내려오다가 랑옆으로 갈라서며 요란한 박수소리를 터치였다.

《축하합니다.》

《영예군인부부를 축하합니다.》

뜻하지 않은 환영군중과 열렬한 박수속에 휩싸인 영예군인 신혼부부는 당황한듯 멈춰섰다. 연한 노을빛의 조선치마저고리를 입은 신부의 건너처럼 고운 얼굴은 금방 피어나는 장미꽃처럼 빨갭게 상기되었고 잘 생긴 신랑은 순박한 눈길을 어디에다 돌지 몰라 두리번거리고있었다.

《어서 올라가자구.》

신랑의 팔을 끼고있던 둘러리가 깨우쳐서야 그들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박수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다.

영예군인부부가 폭우에 올라서자 한쌍의 젊은이들이 달려나오더니 그들에게 자기네가 들고있던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그러자 열쌍 가까운 신랑신부들이 줄지어 밀려나가 영예군인신혼부부에게 꽃다발들을 안겨주었다.

두팔로 아름이 벌게 꽃다발을 안은 영예군인의 안해는 소곳이 머리를 숙여 좌중에 감사를 표시하였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이슬로 반짝이는 그의 그윽한 눈동자는 이 세상 그 무엇에 비길데 없이 아름다웠다.

영예군인 신랑이 부축임을 받던 두팔을 뺏으며 저절로 한발 앞에 나섰다.

《여러분, 혁명동지들! 감사합니다. 진정에 넘친 그 축복을 저희들은 일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가지 요청하고싶은것은 오늘 이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과 신혼부부들이 저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줄수 없겠는지? ...》

그러자 함성같은 대답이 여기저기서 터져 올랐다.

《좋습니다. 찬성이요.》

나는 불시에 눈굽이 뜨거워졌다. 영예군인 신랑신부를 가운데 세워놓고 여러쌍의 신랑신부들과 군중들이 계단에 나란히들 섰는데 그 모습들은 대화원을 이룬 아름답고 청신한 꽃송이들이었다.

막을수 없는 충동에 떠밀리워 나도 그들과 함께 사진기의 렌즈앞에 섰다. 뜻깊은 기념사진이었다.

신혼부부들이 서로 축복의 인사를 주고받으며 헤어져 간지도 이속했으나 나는 좀처럼 계단을 내려서지 못하였다. 선뜻 그자리를 뜰수 없었다.

머리우에는 햇빛 찬란한 조국의 하늘이 가없이 펼쳐져있다. 저 맑고푸른 조국의 지붕아래서 방금 만사람의 축복을 받던 노을빛치마저고리의 신부만이 아닌 무수한 영예군인의 안해들이 시대의 축복속에 보람찬 삶의 길을 걷고있을것이었다.

어찌 그들뿐이라.

너도나도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며 거기서 생활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 전사들의

생명을 위하여 서슴없이 폭발직전의 수류탄을 가슴으로 덮은 젊은 지휘관, 때아닌 석수로 하여 막장이 위험에 처하였을 때 한목숨 내대여 술한 혁명동지들과 탄광재산을 구원한 영웅탄부...

세상에는 나라가 많고 수십억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살고있지만 우리 나라에서처럼 동지와 집단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는 그런 생활기풍은 없을것이다.

나는 물밀듯 차오르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었다.

그렇다, 오늘과 같이 좋은 날, 좋은 때가 그처럼 쉽사리 우리에게 차례진것은 아니다. 오로지 인민의 행복과 기쁨을 위하여 그 누구보다도 마음을 많이 쓰시는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를 보살피고 이끄시기에 사람마다 만복을 누리는데것이 아니겠는가!

그 한없이 자애로운 사랑의 품속에서 너와 나 우리모두가 친혈육으로, 하나의 대가정으로 살아가는 사회주의 내 나라, 그래서 맑고푸른 저 하늘처럼 사람들의 마음속도 언제나 창창히 개여있는 것이다.

이렇게 없이 좋은 때, 좋은 날에 생각도 깊어지는 일요일이었다.

## 벌에서 살고싶은 계절

한정규

씨뿌리는 봄도 좋고  
거두는 가을도 좋지만  
그보다도 나는 여름이 좋아  
푸른들을 키우는 재미가 좋아

들에 나서면  
사방에서 들려오는  
기쁨의 소식처럼  
다정한 속삭임처럼  
포기포기 아지치는 소리  
곡식들이 우쩍우쩍 키쫓구는 소리...

아침 첫이랑 김멜 땀  
논물에 얼굴비치더니  
저녁 마지막 이랑을 땀 땀  
어느새 끓이 메여  
손도 제대로 나들지 않소

오곡을 한껏 자래우느라  
태양도 해종일 땀흘리오  
한벌깎에 정당 쌀 열가마니 더 난다고

한번 비료주기에 스무가마니 더 난다고  
뜸부기도 듬뿍-듬뿍-재촉하니  
일욕심만 부쩍나  
지는 해도 서산에 붙잡고싶소

나는 중소  
아기가 커가는 기쁨에  
백가지 수고를 잊는 어머니같이  
푸른들을 자래우는 재미에  
땀 철철 벌의 시중들기

오! 여름, 여름은  
오곡만을 자래우는가  
만풍년 기쁨을 키우고  
농민들의 충성을 자래우는 뜨거운 계절

곡식을 키우는 재미가 세상좋아  
들에 땀을 바치는 맛이 세상좋아  
여름은 중소 여름은  
홍일홍일 코노래도 절로  
벌에서 살고싶은 계절이라오

## 지도에 새겨진 별 외 2 편

김형준

내 찾아간 집은  
남강기슭 아담한 집  
물과 그 무슨 인연이 깊은듯  
강바투 나왔은  
공훈수력건설자의 집

활짝 열어놓은 창문으로  
남강의 물소리 정답게 흘러들고  
창문 저 멀리엔 우뚝솟은 언제  
아늑한 벽에는 우리 나라 지도  
지도엔 무수한 붉고 푸른 별...

수문같이 무거운 입을 열어  
그는 나에게 말하네  
...제가 무슨 큰 일을 했대구...  
강줄기마다 언제를 세워놓고  
지도에 별을 그려놓는 재미로 살았을뿐인데...

강파른 몸을 돌려  
벽에 걸어놓은 지도를 바라보는 그의 가슴에  
천만강줄기 흘러드는듯  
천천히 별을 더듬는 그의 손은  
내 눈앞에 일어서는 또 하나의 언제인가

아, 가정의 가보인양  
벽에 걸어놓은 한장의 지도여  
이 세상의 명화도 무색할

우리 나라 지도에 빛을 뿌리는  
발전소표식 오각별의 은하여

생각나라 어릴적 내  
하늘의 별을 보며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둘...  
나를 꿈나라로 이끌어가던 그 별을  
건설자들이 저 지도에 내려왔힌것 아닌가?!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  
강은 강마다 별을 실었고  
수풍, 운봉, 서두수, 남강...  
언제는 언제마다 불꽃 쏟으니  
별은 하늘에만 무수한것 아니구나

별! 별이 많은 내 나라  
군모의 별인듯  
위훈많은 가슴에 빛나는 금별인듯  
조국의 지도 강줄기마다 새겨진 별  
수력건설자 위훈의 상징이여!

나는 보았네  
지도를 바라보는 그의 모습에서  
성좌마냥 빛을 뿌리는  
지도에 새겨진 저 별에서 보람을 찾는  
전력건설자들의 참된 삶의 모습을!

## 로동 레찬

참으로 그대들은  
귀중한 손을 가지고있다  
물과 모래와 돌이면  
지구도 빛을수 있는 거인의 손을  
늘 물탈에 젖어있는 그 손이  
자동화의 노래를 짓는다  
참으로 신비롭더라  
그대들이 흘리는 귀한 땀  
고이면 생명수 뿌리면 불  
그 귀한 땀 방울방울에  
먼 후날 우리 후대들이 흘릴  
그날의 땀마저 모두 담겨져있다

그대들의 발자국  
시작부터 끝까지 몰탈속  
허나 부디 찾아보려하지 않아도  
언제되어 하늘가에 빛나는 성스런 자욱  
그 발자국은 오늘과 래일을  
가장 가깝게 줄여주는 발자국  
그대들의 담력 그 무엇에 비기랴  
-자 저기로! 그대들 구령치면  
저기로 물과 불은 네굽안고 달리거니  
그대들은 주었다 조국에  
영원히 꺼질줄 모르는 열과 빛을!

## 수력건설자 안해들에게

인정이란 참으로 별스러워  
그대들과 함께 처마잇대고 살지 않았어도  
만나는 너인들마다  
내 어머니 내 누이 같은  
그런 다감한 너인들입니다

흐르는 물을 보면  
그대들의 맑은 정 어린것 같고  
산악같은 언제를 보면  
언제나 말없이 바치던 그대들의 정성이  
언제의 초석으로 고여진듯합니다

그대들은 함께 살자 결혼했건만  
남편들과 헤어져 산날도 있었지요  
머나먼곳 새 건설장으로 떠나는  
남편들을 배려하기를  
그 몇번이었던가요

남편들과 함께 일터로 가고  
남편들과 함께 일터에서 돌아와도  
건설자 남편들을 위해 무엇인가 더 하고싶어  
남다자는 밤에도 일감을 잡는것이  
습관이란 말이 가슴을 찡니다

나는 그대들의 모습에서 그려봅니다  
눈비가 쏟아지는 건설장에서  
그대의 남편들이 눈비의 차거움을 모름은  
그대들이 펼쳐든 마음의 우산

남편들의 머리우에 펼쳐져있기때문

그대들의 행군로는 멀었습니다  
수풍, 운봉, 서두수, 남강...  
그대들이 풀어놓던 소박한 려장엔  
산악같은 언제도 가지고왔던가요  
바다같은 호수도 이고왔던가요

무정한 세월이 그대들의 고운 용모  
강물에 실어보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편들이 쌓은 언제 하도 높아 넘지를 못했으니  
언제와 입맞추는 푸른 물  
그것이 그대들의 젊음이 고인것 아닙니까

송가를 바칩니다  
건설자들의 수고를 사람들이 헤아릴 때  
잊지 않습니다 언제에 고인 산중의 바다  
그것이 건설자 남편 위해 바친  
그대들의 사랑인줄 진정한줄

언제우엔 언제나 무지개 쉽니다  
그 한끝은 남편들의 마음속에  
그 한끝은 안해들의 마음속에  
하여 무지개에 비껴오는 풍산주의 아침노을  
그대들 선참보는 영광 지닌게 아닙니까

-남강발전소건설장에서-

## 우리 나라 역사유적소개

### 검은모루유적

검은모루유적은 구석기시대전기의 동굴유적이다. 검은모루유적은 100 만년전의 유적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오늘까지 알려진 유적들가운데서 가장 오랜 시기를 대표하는 유적이다.

검은모루유적은 평양시 상원군 상원읍에서 서쪽으로 3km 남짓한 거리에 있는 검은모루마을(흑우리) 동쪽산봉우리인 우물봉(해발 높이 117,58m) 남쪽비탈 천연동굴에서 발견되었다. 그곳에는 100 만년전 사람들이 쓴 석기와 짐승들을 잡아먹고 버린 뼈의 화석들이 쌓여있었다.

검은모루동굴은 길이 약 30m, 제일 넓은곳의 너비는 2.5m이다. 이 유적에서 나온 동물화석들은 쥐토끼, 해리, 산뿔쥐(작은등줄쥐), 집쥐(큰등줄쥐), 습들쥐, 간단이발쥐, 갈발쥐, 큰갈발쥐, 북쪽갈발쥐, 상원갈발쥐, 상원큰갈발쥐, 검은모루

땅쥐, 오소리, 이리, 큰곰(갈색곰), 동굴곰, 짧은턱히에나, 범, 코끼리, 큰쌍코뿔이, 상원말, 메돼지, 큰꽃사슴, 누렁이, 넓적큰뿔사슴, 상원큰뿔사슴, 물소, 옛소, 원숭이 등 29 종이다. 뼈화석이 발견된 이 짐승들가운데서 10 여종은 이미 사멸된 종이다.

짐승뼈무지가운데서 나온 대표적인 석기는 주먹도끼모양의 석기, 제형석기, 뿔족끝석기, 쪼각석기 등이다.

검은모루유적은 우리 나라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적으로 인류의 가장 이른 단계의 역사를 연구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유적이다.

검은모루유적은 오늘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소중하게 보존관리되고있다.

## 위원장어머니

제 1 부

문병익

가없이 펼쳐진 푸른 논벌을 가로질러 뻗은 포장도로를 따라 까만승용차 한대가 달리고있다.

차안에는 귀밑머리가 희숙한 중년녀인이 운전사옆좌석에 앉아있다. (삼일군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리은정이다.) 그는 시야에 점차 가까워오는 나지막한 야산을 등지고 규모있게 들어앉은 읍소재지를 정겨운 눈길로 바라보고있다.

### 역사앞 네거리

길가의 고장난 갱생차 옆에서 한 처녀가 승용차앞으로 뛰어들며 손을 쳐든다.

아츠러운 소리를 내며 급정거하는 승용차.

운전사 태봉이가 차문을 와락 열며 소리친다.

《뭐야? 동무 죽자고 그래?》

《아이, 운전사동무, 미안합니다. 결혼식차가 고장나서 그러는데 배전기뚜껑 예비하나 없습니까?》

《배전기뚜껑?》

《네, 글썄 오후 3시에 큰상을 받기로 약속한 신랑신부가 길가에서 저렇게... 야 좀 도와주십시오. 운전사동무.》

《여 처녀동무, 차를 똑바로 보구나 말을 하오. 동무네 차야 갱생차인데 이 차의 부속품이 맞을 것 같소?》

《네? ...》

처녀는 그제야 차를 번갈아보며 아연해진다.

《어마나... 아이 이걸 어쩌나... 운전사동무 미안합니다. 제가 그만...》

《헛참,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처녀군, 음...》

투덜대며 차문을 쾅 닫는 태봉에게 은정이가 웃으며 말한다.

《태봉동무, 아무래두 동무가 저 동무들을 태워다주구 와야겠구만.》

《아니 위원장동지는 그럼 어떻게 하구요?》

《나야 바람두 쏘일겸 좀 견지워. 그렇게 하자구 응?》

은정이 차에서 내려 고장난 갱생차로 다가간다.

《이거 일생에 한번밖에 없는 뜻깊은 날에 길가에서 고생을 해서 안됐구만. 그래 신랑네 집은 어텐가?》

차수리를 하고있는 운전사옆에 서있던 가슴에 꽃을 단 청년이 자세를 꽃꽂이 하며 대답한다.

《구룡리입니다.》

《구룡리?... 구룡리에서 본 생각이 만나는데...》

《군대에서 제대되어 한달전에 산림보호원으로 배치받았습니다.》

《오, 제대군인이구만. 우리 운전사동무가 동무들을 태워주겠다는데 어서 저 차를 타라구.》

《예?!》

신랑이 황송해하는데 차를 세웠던 처녀가 저쪽에서 들고 달려와 은정의 손을 덥석 잡는다.

《아이 그게 정말이에요?! 야,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인사야 우리 운전사동무한테 해야지.》

《네. 야 뭇들해요? 빨리 차를 옮겨타지 않구.》

처녀는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하며 갱생차안에 앉아있는 새색시와 둘리리를 채촉한다.

고마와 어쩔줄 모르며 신랑이 은정의 손을 잡고 말한다.

《어머니, 초면에 이거 안됐습니다. 저희집에 함께 가십시오.》

《글썄 함께 가서 축하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구만. 자 어서 차를 타라구.》 하며 은정이 그의 등을 떠밀어 차를 태운다.

《그럼 저녁에라도 잠봐서 오십시오.》

《음 가지.》

승용차가 서서히 떠난다.

다시금 신랑이 차문을 열고 소리친다.

《어머니, 꼭 오셔야 합니다!》

머리를 끄덕이며 바래워주는 은정의 얼굴에 정겨운 미소가 어린다.

《어머니, 나 이걸 좀...》

뒤를 돌아보던 은정이 놀란다. 방금전에 차를 세웠던 처녀가 배낭을 들고 서있지 않는가?

《아니 처녀는 같은 일행이 아니었나?》

《네, 전 평양서 온 식료연구사 주연희라고 합니다.》

《그래요?! ...》

하며 은정이 그의 배낭을 받아 지워준다.

《배낭이 무겁구만.》

《책이에요. 어머니 도소재지에 사시나요?》

《아니 ...》

《그럼 어머니두 평양서 오시나요?》



《호… 난 여기 사람이야.》

《아이, 어머니 군사람같지 않은데요. 어느 큰 간부의 부인같은데… 내 말이 맞지요. 어머니?》

《간부의 부인? 호호…》

《아니 왜 웃습니까?》

《동문 참 재미있는 동무구만. 그 가방이나 벗어 날 달라구. 들어다주지.》

《아니 일없습니다. 그냥 가자요.》

### 동독길

읍소재지가운데로 흐르는 강 동독길로 은정과 연희가 나란히 걸고있다.

《그러니 연희동문 신랑신부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구만.》

《네, 신랑이 군사복무까지 했다는데 좀 줄난 것 같아요.》

《신랑인들 어찌겠나. 차가 고장인데 새색실 데리구 걸어서 갈수두 없구.》

《걸어서라도 갔어야지요 뭐, 글썄 집에선 큰상을 차려놓고 신랑신부가 도착하길 눈이 빠지게 기다릴텐데 길가에서 세시간씩이나 멍청하니… 난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가슴에서 불이 일어 못견디는 성미예요. 호호… 정말 우습지요?》

《우습긴… 남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구 걱정하는거야 좋은 일이지. 그래 우리 군엔 무슨 일로 오나?》

《강냉이기름내기에서 실수률을 높이기 위한 몇가지 방도에 대한 문문을 썼는데 여기 량정사업소기름공장에 도입해보자구요.》

《그래?! … 아니 우리 량정사업소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나?》

《아니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이예요. 시끄러워하지나 않겠는지…》

《시끄러워하다니? 세상에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복덩이를 마다할 사람이 어데 있겠나. 꼭 성공시키라구. 그럼 내 연구사동물 업구 다니지.》

《호호… 어머니 정말 좋은분이군요. 참 어머니, 여기 행정위원장동질 좀 아시나요?》

《행정위원장을…》

《네 들은 말에 의하면 아주 젊어서 남편을 잃구 혼자 사는분이라는데 아무래두 성격이 좀 피뻐하겠지요?》

《글썄… 그럴수도 있겠지…》

《야, 난 내 이 팔랭이같은 성격이 그분의 마음에 들지 않을가봐 정말 걱정이예요.》

《걱정말라구, 아 동무같은 훌륭한 연구사를 못알아보는 위원장이라면야 나쁜 사람이지.》

《아니예요. 그분은 참 훌륭한분이라요. 어떻게 하나 그분의 마음에 꼭 들도록 해야겠는데…》

《동문 위원장의 마음에 꼭 들거요.》

《정말 그럴가요?》

《그렇지 않구.》

《호호… 어머니 정말 좋은분이에요.》

이때 모래를 실은 화물자동차가 그들의 옆에서 멎어선다.

《위원장어머니!》 하며 적재함우에 탔던 처녀들이 와그르 쏟아져내려와 은정이를 둘러싼다.

《어마나!》 연희가 그만 깜짝 놀라 어쩔바를 몰라하다가 읍거리쪽으로 황급히 달아난다.

《아니 연희동무…》 은정이 멀어져가는 연희를 보며 웃는다.

처녀 1 이 묻는다.

《누구나요?》

《우리 군에 내려오는 식료연구사동무예요.》

《그렇습니까?! …》

처녀들이 은정의 팔을 잡고 저마끔 떠들썩하며 묻는다.

《차는 어떻게 하구 걸어서 옵니까?》

《이번엔 왜 그렇게 오래 계셨나요?》

《않지는 않았습니까?》

《도에서 계속 회의만 했나요?》

은정은 처녀들에게 손을 맡긴채 웃고 서있다.

《호호…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나?》

《아이 선생들은 좀 가만 있어요.》 하며 처녀 1 이 은정의 귀가에 대고 말한다.

《위원장어머니, 우리 학교건설조가 드디어 문화회관건설조를 따라앞섰습니다.》

《그래요?! 그거 정말 반가운 소식이구만. 어떻게 그렇게 한주일어간에 혁신을 했나?》

《위원장어머니가 도에 회의가면서 말하지 않았어요. 일이란 마음먹기탓인데 기어코 한번 문화회관건설조를 디디고 올라서보라구요. 그래서 모두 이를 악물고 전투를 벌렸지요 뭐.》

《그래요?! 그러니 문화회관건설장에서두 불이 붙었겠구만.》

《그 동무들은 지금 점심시간두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합니다. 호호…》

《방학기간에 선생들이 정말 수고해요. 그래 앓는 학생들은 없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 새학기전에 학교개축공사를 끝내야 할텐데… 참 내 선생님한테 보여줄게 있어요.》

은정이 삼면가방에서 큼직한 봉투를 꺼내준다.

《어마나 사진이구나.》

《아니, 이건 평양제 1 고등중학교가 아니예요?》

《어디 나두 좀 보자요.》

사진봉투를 둘러싸고 떠들썩하는 처녀들을 보며 은정이 말한다.

《평양제 1 고등중학교의 외부와 내부설비들을 찍은거예요. 동무들이 지금 개축하고있는 학교를

그렇게 꾸러보자는건데 선생들은 어때요. 자신 있어요?»

《합시다! 자신있습니다!》

《우리 군엔 이제 학교와 문화회관만 번듯하게 현대적으로 건설해놓으면 정말 도소제지거리 부럽지 않을거예요.》

《야! ...》

처녀 2가 감동어린 눈길로 은정을 보며 묻는다.

《위원장어머닌 도에 회의갔다가 이것때문에 일부터 평양에까지 가셨잖아요?》

《아니, 대학에 가있는 우리 애한테 부탁했드랬지. 그랬더니 내가 도에 와있는걸 어떻게 알구 인편에 보내어왔더구만.》

《남철동무가요?!》

처녀 1이 사진을 보고있는 영미의 등을 툭 친다.

《영미선생한테 온 편지엔 그런 말 안썼어요?》

《어마나 이 선생은...》

영미가 부끄러운듯 은정을 피해 화물자동차 뒤로 달아난다.

처녀들이 까르르 웃는다.

은정이 웃으며 처녀 1을 나무란다.

《옥금선생, 총각한테서 받은 편지는 그렇게 공개하는 법이 아니야. 더구나 미래의 이 시어머니앞에서 그러면 쓰나?》

《잘못했습니다. 위원장어머니.》 하며 처녀 1이 군대식으로 거수경례를 하자 처녀들은 또다시 허리를 꺾고 웃어댄다.

### 읍거리

랍식건물들과 현대적인 살림집들, 봉사망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거리로 처녀들이 탄 화물자동차가 달리고있다.

### 학교개축공사장

해묵은 수양버드나무들이 총총히 선 유원지를 방불케 하는 양어장을 사이에 두고 군중문화회관건설장과 학교개축공사장이 나란히 있다.

서로 키돋움하며 올라가는 벽체, 바람에 펄럭이는 오색기발들, 건설자들이 승벽내기를 하듯 와와하며 기세를 돋구고있다.

여기로 처녀들이 탄 화물자동차가 들어와 멎는다. 은정이가 운전칸에서 내리자 여기저기에서 건설자들이 반기며 인사한다.

모래와 세멘을 실은 따찌까들이 연방 들이닥치는 몰탈혼합기옆에서 은정이 걸음을 멈춘다.

《수고합니다. 아바이, 일이 잘됩니까?》

나이 지숙한 운전공이 반긴다.

《아니 위원장이 돌아왔구만, 한 2~3일만 다 그치면 벽체조립은 끝낼것 같수다.》

《그러니 개학날까지는 문제없다 그 소리군요.》

《아 그러문요. 하하...》

은정은 만족해서 돌아서며 따찌까를 물고오는 청년을 보고 알은체를 한다.

《아니 이거 기름공장에서두 나왔구만.》

따찌까를 물던 청년이 인사를 하며 볼부는 소리를 한다.

《체 공장이 섰는데 건설장에라두 나와 땀을 뺏아야지요.》

《아니 공장이 서다니?》

《그 버겨보이라가 또 말썽이 생겼습니다. 도 위생방역소에서 보이라굴뚝으로 버겨재가 날아난다구 운영중지표쪽을 붙였습니다.》

《운영중지표쪽을?》 뜻밖인듯 놀라는 은정.

### 군량정사업소 기름공장 보이라

여기저기 널려있는 궁구들과 싸늘하게 식은 보이라실 《운영중지》표쪽이 붙은 전원스위치함.

작업장을 돌아보는 은정의 뒤를 따르며 보이라궁아바이가 말한다.

《사흘째나 기름을 짜지 못하고있지요.》

《방인철연구사동문 뭘하고있습니까?》

《도위생방역소에서 왔다간 다음부턴 공장에 영 나타나질 않수다. 하긴 보이라굴뚝에서 날아나는 버겨재가 공해라는데야 그 사람두 할 말이 없지요.》

《공해요?》

《예, 그 뭐 외지에서 출장을 왔던 사람이 눈에 그 버겨재가 들어가 눈병을 줌 앓은 모양입니다.》

《눈병을요?》

《예... 어이구 저기 마침 지배인동무가 옵니다.》

은정이 출입문쪽을 돌아보는데 탄실 들어선다.

《위원장동무가 돌아왔구만요. 이거 정말 야단났습니다. 보이라가 죽으니 당장 기름두 기름이지만 건조로때문에 마른국수까지 뽑질 못해서 식당, 려관 다 걸리는구만요.》

《...》

《위원장동무, 아무래두 량부위원장 말대루 석탄보이로를 놓고말던가 해야지 버겨보이란 안될것 같애요. 원 이렇게 말썽이 많아가지구야...》

《량부위원장동무가 지금 공장에 나와있는가요?》

《어제 평양에 올라갔습니다.》

《평양엘요?》

### 평양, 석탄공업부의 어느 한 사무실

량수환이 책상을 마주하고 앉은 지도원에게 사정한다.

《지도원동무, 그러지 말고 우리 군에 석탄 한 몇방통만 주구래. 당장 기름공장이 멎어서 그런 다질 않소.》

전자수산기를 놀려대며 무엇인가 계산하고 있던 지도원이 짜증을 낸다.

《아니 부위원장동무 몇번을 말해야 알겠습니까? 자체탄광을 가지고있는 군들엔 국가에서 석탄을 주게 되어있질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글쎄 그건 그런데 우리 당장 목이 걸려서 그런다질 않소. 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여기하구 합의를 보면 지령을 떨어주겠다는데 어떻게 사정을 좀 봐주구래. 아 독톱에두 용수가 있다는데 그까짓 석탄 몇방통이야 새발에 피가 아니요.》

《석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규정의 요구가 그런 걸 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됩니다.》

《아니, 지도원동무...》

량수환이 의자를 당겨앉았는데 지도원 벌떡 일어서나.

《부총국장동지...》

방에 들어와 그들의 말을 듣고있던 주영준이 지도원에게 손짓한다.

《아-앉소. 아까 부탁한 통계가 어떻게 땀는가 해서 왔소.》

《예, 이제 잠간이면 됩니다.》

지도원이 량수환을 마뜩지 않게 힐끗 보고나서 전자수산기를 계속 놀려댄다.

주영준이 한쪽 쏘파에 앉으며 량수환에게 묻는다.

《동무 어느 군에서 왔소?》

《예, 삼일군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량수환입니다.》

《아, 삼일군에서 왔소. ... 앉으시오. 내가 석탄공업부에 새로 오다니니 아직 지방일군들을 잘 모릅니다. 동무네 위원장이 리은정동무이지요?》

《예, 우리 위원장동무 잘 아십니까?》

《예 내 좀 압니다. 그 동무가 거기서 이젠 근 30년을 위원장사업을 하지요.》

《예, 정말 우리 위원장동무같은 사람은 쉽지 않지요. 남편두 없이 혼자몸에 한개 군살림을 맡아안구 한생을 늙었지요.》

《부위원장동무가 잘 도와드려야겠습니다.》

《예, 그러느라곤하는데... 이젠 우리 군두 천지개벽을 해서 어느 군 부럽지 않게 삽니다. 헌데 석탄 나오는데가 없다니니 늘 이렇게 석탄때문에 골탕을 먹군하지요. 부총국장동무가 좀 도와주십시오.》

《허허... 도와드려야지요. 가만 지도원동무, 삼일군같이 석탄매장지가 없는 군들은 국가에서 보장해주게 되어있질 않소?》

전자수산기를 두드리던 지도원이 머리를 쳐든다.

《삼일군두 자체탄광을 가지고있습니다.》

《아, 자체탄광이 있다...》

주영준이 알겠다는듯 머리를 끄덕인다.

량수환은 이때라고 주영준의 앞에 바짝 다가앉는다.

《부총국장동지, 사실 우리 군은 그 자체탄광이 문제가 있습니다. 군에서두 한 200리 떨어진 외딴곳에 있는데다가 탄발까지 씨원칠 않아서 정말 애를 먹습니다. 그런대루 군에 공장이 한두개 있을 때는 근근히 수요를 충족해왔는데 지금은 크고작은 공장이 20여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문제 아직까지 국가계획위원회에 상정하질 않았습니까? 날을 따라 군내살림살이는 늘어나기마련인데 그래가지구야 되겠습니까?》

량수환이 한숨을 쉰다.

《우리 위원장동무야 어떻게 하나 국가에 손을 내밀지 않자구 해서 버겨보이라까지 해보느라구 했는데. 그제 이렇게 말생을 일굴줄이야...》

《글쎄 버겨보이라가 성공하면 좋은건데... 나라의 귀중한 석탄을 쓰지 않구말입니다.》

《버겨보이라는 결정적으로 안됩니다. 위원장동무두 이젠 단념했습니다. 부총국장동무, 이거 정말 도와주십시오. 우리 군은 석탄때문에 늘 이렇게 목이 꼭 메군합니다.》

《하여간 내려가서 위원장동무와 다시 토론해 보십시오. 나두 힘자라는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정말 고맙습니다.》

《지도원동무, 문건이 다 되면 내 방에 가지구 오시오. 그럼 난...》

주영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간다.

량수환이 지도원에게 묻는다.

《저 부총국장동무가 여기에 오기전엔 어데 있었소?》

《군인출신이요.》

《그렇소?! ...》

량수환이 머리를 기웃거린다.

달리는 열차.

차창으로 량수환의 모습이 보인다.

### 삼일군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방

량정사업소지배인 탄실과 자체탄광지배인 병수, 그리고 파장들과 지도원 몇몇이 앉아있다.

은정이 수첩을 들고선 파장에게 말하고있다.

《...량정사업소에서 벌써 나흘째나 주민들에게 마른국수를 교환해주지 못하고있는데 상업과 장동무야 누가 말하지 않아두 대책을 세웠어야지요.》

《예, 제가 미처... 당장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군내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진 호주라고 말만 해선 될합니까?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이란 우리 당의 구호는 그렇게 말이나 번지르하게 하자는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파장동무?》

《알겠습니다. 오늘중으로 가내반을 한 멧집 더 나오겠습니다.》

《좋아요. 늦어도 래일부턴 국수를 바꿔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 1 나간다.

《그럼 저두 가보겠습니다.》

과장 2 가 일어선다.

《도시경영과장동무, 저녁에 내가 한바퀴 돌겠습니다.》

《예, 적정마십시오. 비가 새는 살림집들은 오를까치면 다 퇴치됩니다.》

《그리구 목재때문에 립산사업소에 간 치삼동무한테서 연락이 오면 곧 알려주세요.》

《예...》

과장 2 와 지도원 몇이 나간다.

전화종이 울린다.

은정이 수화기를 드는데 량수환이 들어선다.

《아, 위원장동무 오셨구만요. 평양에 갔다오는 길입니다.》

《앉으세요.》

은정이 쏘파를 가리키고 수화기에 대고 말한다.

《뭐라구, 도위생방역소가 안나와?... 가만 교환수동무, 내 지금 급한 일이 있어 그러는데 미안한대루 한번만 더 찾아봐달라구 응?... 그럼 기다리겠소.》

은정이 수화기를 놓는데 량수환이 묻는다.

《거 버겨보이라문제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 문제라면 전화를 하지 마십시오. 아 그 사람들이 얼마나 팡팡 으르는줄 압니까? 여기 이 량정사업소 지배인과 방인철연구사를 법무위원회에 넘기겠다고 해서 내가 손이야 발이야 빌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내가 평양으로 뛰었겠습니까. 그 버겨보이라에 대해선 이젠 더 미련가지지 말구 아예 석탄보이라루 개조하구맙시다.》

탄실이가 이때라고 나서며 한마디 한다.

《그렇게 하자요. 위원장동무.》

은정이 탄실을 보며 묻는다.

《그렇게 하면 기름공장이 생산정상화될것 같애요?》

《그야 여기 이 탄광지배인동무가 석탄만 제때에 대주면야...》

병수가 무슨 소릴 하느냐듯 손을 내젓는다.

《아니, 난 자신없수다. 그러지 않아두 지금 석탄수요가 뻗뻗해서 그러는데 나한테 기름공장까지 걸머지우자는거요.》

《아니 탄광지배인동문 기름을 먹지 않소?》

《허... 기름이야 먹어야지.》

《그럼 먹는 문제부터 풀어야 할게 아니요?》

《하, 이거 또 드살센 탄실동무한테 걸렸군.》

《에그 남자가 왜 그리 속통이 좁소? 차라리 그 바질 집에 아주머니하구 바꿔입으랴요. 쯔쯔.》

《그럼 나한테 석탄 내란 소리 안하겠소?》

《안하겠수다.》

《정말?》

《정말 아니구.》

《하하...》

량수환이 얼굴을 찌프리며 나무란다.

《아아, 머리 큰 사람들이 위원장동무앞에서 무슨 쓸데없는 소리들이요. 쯔쯔...》

그러자 탄실은 량수환에게 하소연한다.

《야, 부위원장동무, 난 이거 정말 안타까워 하겠습니다. 글쎄 이제 상점들에 나간 기름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날보고 뭐라구들 하겠어요? 저건 량정사업소에 기름공장만 세우면 매달 기름을 팔구지 않겠다고 떡먹듯이 약속하드니 두달을 넘기지 못하구 나가넘어졌다구 욕할게 아니나요.》

《체 기름이 떨어지긴 왜 떨어져? 국가에서 주는 기름두 있잖아.》

《그것하구 우리것하구 같애요?》

《됐소. 됐소 그렇게 대책을 세우자는게 아니요. 위원장동무, 내가 이렇게 말하면 탄광지배인동무가 좀 섭섭해할수 있는데 내 생각엔 아무래두 군내 석탄수요를 보장하지 못할바에는 우리 자체탄광을 아예 국가에 들여놓는게 어떨가 하는 겁니다.》

은정이 의아해서 량수환을 본다.

《아니 자체탄광을 국가에 들여놓다니요?》

《내 이번에 국가계획위원회, 석탄공업부, 중소탄광관리국 다 다니면서 알아봤는데 자체탄광이 없는 군들에선 중앙공업에서 탄을 받으면서 평평거리며 삽니다.》

병수가 발끈해서 볼부는 소리를 한다.

《중수다. 체길 그렇게 하면 나두 어데가 무슨 일을 해먹던 발편잡 자겠수다.》

《여보, 이진 병수동무가 발편잡 자는게 문제가 아니라 군의 명줄이 거기에 달려있어 그러는 거요.》

《그러게 내가 뭐랍니까? 까짓거 타곳에 술한 사람들을 보내놓구 조건보장해주기두 시끄러운데 차라리 콧 없애치우구말잔말입니다.》

《아니 동문 무슨 말을 그렇게 하오?》

《제가 없는 말을 했습니까? 부위원장동무처럼 그런 관점을 가지고는 자체탄광을 더 유지하지 못합니다.》

《체체... 이 동무가 정말... 지금 우리가 동무네 탄광 조건보장문제 토론하오?》

《...》

은정이 사업수첩을 덮으며 말한다.

《부위원장동무, 그 문제 후에 따로 토론합니다. 탄광지배인동무 동발목지도서는 받았지요?》

《예.》

《래일중으로 인수원을 보내서 받아오도록 하세요. 세탁비누하구 당과류는 상업관리소에 이야기했습니다. 가보세요.》

《예.》

병수가 무엇인가 더 말하려다 나간다.

량수환이 나가는 그를 보며 혀를 찬다.

《헛참. 그 사람 성민 아주 개차반이라니까...》

은정이 탄실에게 묻는다.

《방인철연구사동문 어떻게 된거예요?》

《우리 생산지도원한테 꼭 찾아서 보내라구 했는데요...》 하며 탄실이 창밖을 본다.

이때 문기척소리.

《네 들어오세요.》 하며 은정이 출입문을 보는 데 이마가 벗어진 중년사나이가 들어선다.

탄실이 반기며 묻는다.

《아니 방인철연구사동문 안와요?》

《연구사동문 떠나갔습니다.》

《아니 떠나가다니요? 어데루요?》

생산지도원이 이마의 땀을 훔치며 말한다.

《아, 글썸 려관에 가서 연구사동문 찾으니 방금 짐을 싸들구 정거장으로 나갔다질 않습니까? 그래서 무작정 정거장을 향해 뛰었지요.》

그의 말이 화면으로 펼쳐진다.

### 삼일역

차표를 찍는 나들문으로 붐비며 나가는 사람들의 머리위로 《연구사동무!》 하는 다급한 목소리가 날아든다. 배낭을 지고 려행가방을 든 한 청년이 주춤하며 뒤를 돌아본다.

한 억센 손이 그의 팔을 잡고 무작정 사람들 밖으로 끌어낸다.

《왜 이러요. 지도원동무?》

《행정위원장동무가 지금 연구사동문 찾수다.》

《무엇때문예요?》

《그야 난들 알겠소. 사람이 가면 간다구 말이 나 하구 떠나야지 이런 법이 어데 있소?》

《난 동무네 행정위원장동무한테 아무 할말도 없소. 가서 명백히 말하오. 이 방인철은 두번 다시는 이 삼일군땅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말이요!》

《아니 근 반년동안이나 같이 고생을 하다가 그건 또 무슨 마지막소리요?》

《됐소. 내 할 말은 그뿐이요. 잘 있소.》

방인철이 그의 손을 뿌리치고 나간다.

《아니 연구사동무...》

### 다시 은정의 방

량수환이 마뜩지 않아 두덜댄다.

《흥, 시어미역정에 개열구리 찬다더니 그 사람 참 어처구니가 없군 음...》

《전 그럼 가보겠습니다.》

지도원이 나간다.

은정은 심각해서 탄실에게 묻는다.

《혹시 그 동무에게 감정 거슬리는 일이라도 있는게 아니예요?》

《글썸요. 그뉘...》

탄실이 량수환을 본다.

《감정 거슬릴게 뭐 있습니까? 우리한테 더 있어봐야 일이 점점 더 복잡해지거나 했지 얻어먹을게 없겠으니 꿈무니를 뺏거지요.》

《아니 난 그 동무를 그런 사람으로는 보질 않았는데요. 방인철연구사야 부위원장동무가 데려오질 않았나요?》

《그 동무에 대해선 제 후에 따로 얘길 하겠습니다.》

버겨보이라는 더 이상 기대를 가질게 없습시다.》

《...》

《참 석탄공업부에 새로 온 부총국장이 위원장동무와 잘 아는 사이라고 합디다.》

《새로 온 부총국장이요?》

《예, 군대에서 후방부사단장까지 하다가 제대되었다는데 사람이 인품도 있고 아주 서글서글합니다.》

《그래요? ... 난 잘 모르겠는데...》

《한번 전화해보십시오. 아 그만한 연줄만 있으면야 석탄 걱정할게 없지요. 하하...》

《호... 부위원장동무...》

《위원장동무 결심하십시오. 당장 기름공장두 문제이지만 앞으로 종이공장두 또 건설해야겠는데 공연히 사서 고생할거야 있습니까?》

은정이 자세를 바로하며 생각깊은 어조로 말한다.

《글썸 우리가 손을 내밀면 국가에서는 중앙공급체계에 따라 석탄을 보장해주게 되어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자체탄광을 내오고 버겨보이라를 시도한건 날로 규모가 커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나요. 당에선 지금 자기 지방의 자원과 내부원천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해서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한계단 더 높일것을 요구하고있어요. 이번 도당전원회의에서두 바로 이 문젠 가지구 또 토의했습니다.》

《하여간 위원장동무가 결심하십시오. 나로서는 더 다른 방도가 있을것 같질 않아서 그렇니다.》

이때 문기척소리가 나더니 연희가 들어온다.

《어마나, 회의중입니까?》

은정이 반기며 일어선다.

《아니 아니예요. 어서 들어와요.》

《위원장동지, 아깐 미쳐 알아보질 못해서... 정말 안됐습니다.》

《무슨 소릴 하나. 난 그 덕에 동무의 성격을 더 잘 알게 되구 좋은거지. 마침 잘 왔어요. 인사 하라구. 여기 이분은 공업담당부위원장동무이구. 그리고 동무가 앞으로 사업해야 할 량정사업소 지배인동무, (량수환과 탄실에게) 우리 군에 강냉이기를 짜는걸 도와주겠다구 평양식료공업연구소에서 온 연구사동무예요.》

량수환은 심드렁해서 머리를 끄덕이고 탄실은 《그래요?!》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연희의 손을 덥석 잡는다.

《이거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평양에서 어떻게 이런 빨빠진 군에까지 찾아왔나?》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며 연희가 웃으며 인사하는데 량수환이 시무룩이 웃으며 한마디 한다.

《그런데 연구사동무가 오긴 때마침 왔구만. 보이때문에 기름공장이 서있으니 어떻게 한다?...》

《아이, 그야 뭐... 기름이야 군내 인민들의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식품인데 공장을 오래 세워두지야 않겠지요 뭐.》

《하긴 그래. 오래 세워둘수야 없지. 하하...》

《저 위원장동지, 저의 연구소에서 보내는 문건입니다.》

하며 연희가 은정의 책상위에 문건봉투를 내놓는다.

《오 연희동무를 우리 군에 파견한다는... 그래 러관호실은 잡았나?》

《네, 그럼 전 돌아가겠습니다.》

연희가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데 태봉이 들어온다.

《위원장동지, 시간이 됐습니다.》

은정은 그제서야 생각난듯 시계를 보며 놀란다.

《아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가만 연희동무, 잠깐만 있으라구. 량부위원장동무, 이젠 퇴근시간두 퍼그나 지났는데 우리 같이 잔치집에나 갔다옵시다.》

《잔치집이요?... 허... 잔치집같은 소릴 다합니다. 난 지금 내 당조카가 장가를 가는데두 가볼 생각을 못하구 이러구있습니다.》

《아니 오늘 부위원장동무네 조카두 결혼식을 합니까? 집이 어디게요?》

《흥, 얼어지면 코당을데지요. 구룡리에 우리 형님네가 있질 않습니까.》

《아니 그럼 군대에서 갓 제대되어 산림보호원으로 배치를 받았다는 청년이 아니예요?》

《위원장동무가 그 애를 어떻게...》

《호... 세상은 넓고도 좁다더니... 내가 오늘 가겠다구 약속한 동무가 바로 그 동무예요.》

《예?! ...》

량수환이 병병해서 은정을 쳐다본다.

《우리 이 연희연구사동무하구 길가에서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어요.》

연희는 그제서야 알겠다는듯 손뼉을 친다.

《어마나 어쩌면...》

《연구사동무랑 우리모두 함께 가자요.》

《아이, 전 그만두겠습니다.》

하며 연희가 황황히 밖으로 나간다.

량수환이 머리를 긁으며 허거프게 웃는다.

《허허... 그거 정말...》

(다음호에 계속)

## 8 월의 노래

(총련) 김두권

8 월이 오면  
언제나 8 월의 노래를 부른다

지금도 선히 떠오르거니  
피약별이 사정없이 내리쬐는 날  
논두렁길을 쏜살같이 달려  
학교운동장으로 가던 그 모습이

해마다 8 월이 오면  
감격의 그날을 생각하거니  
이 마을 저 마을에서  
구름처럼 달려나온 남녀로소가  
환희에 겨워  
노래하고 춤추던 그날을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렸는가  
얼마나 많은 겨레들의  
뼈아픈 력사가 흘러갔는가

흘린 피땀 헛되지 않았더라

흘려간 력사 헛되지 않았더라  
이젠 평양과 서울에  
그리고 해외에서  
서로 만나 이야기하고  
통일축제를 벌리게 되었으니

근 반세기에 걸친 분단의 치욕을  
깨끗이 씻어버리려는 력사의 흐름  
이젠 그 누구도 막을수 없고  
멈춰세울수 없나니

8. 15 선똥을  
통일원년으로 맞이하려는  
온 겨레의 불타는 가슴  
그날의 태양과 같이 이글거린다

8 월이 오면  
언제나 8 월의 노래를 부르리  
또하나의 참된 8 월을 불러

## 고개길에서

박해란

화물자동차는 눈내리는 고개길에서 그만 발동소리를 멈추었다. 위도와 경도를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종횡무진 뻗어가던 두사람의 대화도 그 바람에 몽청 끊어지고말았다.

《거 조화다.》

성우는 고개를 기웃거리며 운전칸문을 벌컥 열었다. 찬바람이 운전칸안으로 눈송이들을 몰고 들어왔다. 기관실에 머리를 틀어박고 한참동안이나 부시럭대던 성우는 끝내 우거지상을 하고 허리를 폈다.

《어디가 잘못되었습니까?》

뒤따라 내린 3대혁명소조원청년이 작업등을 넘겨받으며 물었다.

《변속기치차 하나가 나갔수다.》

성우는 후-하고 길게 한숨을 내그었다.

《예비는 없는가요?》

소조원의 물음에 성우는 입을 찹찹 다시더니 마지못해 대답했다.

《우리 간간한 부지배인이 직접 타다주기까지 한걸 글썽 한 친구가 급한 소릴하더라니 년똥 쥐버렸구려. 원, 이럴줄이야 알았겠소.》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여 물며 혼사소리로 말을 잇는다.

《지나가는 차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밤이 깊어와서 ...》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별수 있소? 기다리는수밖에... 로상에서 밤을 새우게 됐수다.》

소조원은 더 말이 없었다. 무척 난감해하는 표정이 어둠속에서도 알렸다. 그럴수밖에 없을것이다.

그는 약 한시간전에 달리는 차를 맞받아 길복판에 불쑥 나타나서 손을 흔들어들었다.

성우는 급제동을 하고나서 짹 소리쳤다.

《죽자고 그러오?》

《좀 태워주십시오.》

청년은 크지 않은 키에 갱뽕한 체격이었다. 등에는 커다란 배낭을 지고있었다.

《오늘 밤중으로 꼭 가야 할 사정이 있어 그러합니다.》

전조등에 비친 그의 얼굴은 온통 땀으로 즐벅한데 어조는 매우 절절하였다.

성우는 턱으로 옆좌석을 가리켰다.

《타오.》

알고보니 청년은 차가 지나가는 길옆에 있는 기계공장 3대혁명소조원이었는데 기술혁신에 필요한 주물점토를 채취해가지고 가는 길이었다.

차를 얻어라는 사람은 대개 수다를 떠는것이례사인데 이 소조원은 말이 없었다.

답답해진 성우는 끝내 제먼저 말을 시키었다.

《동문, 어제 텔레비존을 보았소?》

《텔레비존이요?》

《아, 그 있잖소. 〈자유화〉와 그 후파에 대한 ...》

《예, 보았습니다.》

소조원은 시원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작 말꼭지를 떼니 복을 멘 사람이 복채를 다루듯이 말을 얼마나 차근차근 재미있게 하는지 자동차는 마치 그 이야기의 흐름을 타고 달리는듯했다.

《도무지 모를 일이야.》

성우는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뭐가 말인가요?》

《글썽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좋은 생활의 보금자리를 버렸을가. 사회주의신념을 그렇게 쉽게 버리다니?...》

《헌데... 그것이 시작된건 오래전부터입니다. 처음엔 버리는것임을 깨닫지 못했을 따름이지요. 모든 일이 처음엔 작은것으로부터 시작된답니다. 그네들은 생활을 향유할줄만 알았지 지킬줄은 몰랐거든요.》

성우는 탄식을 하였다. 지킬줄을 모르다니, 자기네들의 생명이며 생활인 사회주의를 말이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그리워한다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닌가.

《정말 한심하군, 한심해...》

바로 그때 화물차가 아츠러운 소리를 내며 덜컥 벗어섰던것이다. 차고장은 언제나 고개길에서 생기는것 같았다.

성우는 소조원이 팔목시계를 자꾸 들여다보는것에 눈길이 갔다. 시간이 바쁜 모양이다.

《소조원동무, 이제부터 걸으면 한시간 이내로 동무네 공장에 가닿을거요. 차가 언제 갈지 모르니 먼저 가보시우.》

《그럼 운전사동무?》

《지나가는 차를 기다려 봐야지요.》

《그러다 꼬박 밤을 새우겠습니까.》

《별수 있나요. 장거리를 뛰는 경우엔 이쯤한 걸 각오해야 한다우.》

소조원은 말없이 차 주변을 거닐었다. 눈발히는 소리가 빠드득빠드득 울렸다.

이윽고 결심을 내린듯 성우에게로 다가왔다.

《운전사동무,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어서 가보시우. 참, 도착하면 우리 공장에 전화 한통 걸어주요. 업무부지배인한테 말이요.》

《예.》

소조원의 자취는 잠간사이에 눈발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사위는 갑자기 적막해졌다. 싸늘한 대기가 옷속으로 스며들어 호젓한 감을 한층 더해주었다.

성우는 여기저기의 나무아지를 모아놓고 불을 달았다. 그런데 눈에 젖어서 불이 당기지 않았다. 기름걸레를 찾으려고 운전칸 문을 여니 바닥에 놓여있는 소조원의 배낭이 눈에 띄었다.

《아빨사, 그 친구 배낭을 잊고갔군.》

성우의 얼굴에 년장자의 너그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아직 어러... 가다가 들려야지.)

기름걸레를 집어넣자 불은 확 당기였다. 불기운에 몸이 훈훈해지기 시작하였다. 호젓하던 기분도 저으기 덜어지는것 같았다.

그러나 마음만은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았다.

지금쯤 공장에서는 차를 기다리기에 안달이 났을것이다.

래일 생산에 물릴 자재라고 곱씹어 말하던 부지배인의 새납처럼 쉿쉿한 목소리가 귀전에 살아났다.

《별수없지.》

성우는 자리를 편히하고 모닥불에 몸을 수그리었다.

부나비처럼 날아들던 눈송이들은 불무지에 가닿기도전에 녹아버렸다.

사방은 고요한데 자동차적재함에도 어느새 두툼한 이불처럼 눈이 하얗게 쌓이였다.

문득 혼자 떠나간 소조원에게 생각이 미쳤다.

(아직 어러...)

제일만 바쁜줄 알고 같이 가던 운전사가 혼자서 밤을 새운다는것은 지금쯤 까마득히 잊어버렸을것이다.

아직 사회물정을 잘 모르니 할수 있나. 생활 체험이 중요한거야.

성우는 혹시나 차소리가 들리는가 하여 고개 아래로 귀를 강구다가 머리를 점점 두무릎사이로 떨궈버리었다. 꿈나라가 눈앞에 펼쳐진것이다.

밤은 점점 더 깊어갔다.

《운전사동무, 운전사동무.》

누가 찾는 소리에 성우는 머리를 부시시 쳐들었다. 털모자우에 수북이 쌓였던 눈이 칙칙 소리를 내며 불무지에 굴러떨어졌다.

아직도 꿈속에서 깨지 못한듯 성우는 자기 앞을 막아선 소조원을 물끄러미 올려다보았다.

손에는 종이에 쓴 꾸레미가 들려있었다.

《영?...》

성우는 눈을 치뜨고 몸을 일으켰다. 문득 운전칸안에 놓여있는 배낭생각이 났다.

《아, 배낭때문에 일부터 돌아섰단말이요? 원사람두, 어련히 갖다주지 않으리.》

그의 질책에는 아랑곳없이 소조원은 빙그레 웃으며 손에 든 종이꾸레미를 내밀었다.

꾸레미를 헤치던 성우는 깜짝 놀랐다. 반들반들 윤기나는 변속기치차가 나졌던것이다.

《아니, 이걸 어디서?...》

《우리 공장 운수과에 알아보니 마침 있더구만요.》

《!...》

불시에 코허리가 시큰거렸다. 그러니 소조원이 배낭을 두고간것은 잊어서가 아니라 치차를 구해가지고 빨리 돌아오기 위해서였던것이다.

《운전사동무가 아까 얘길하지 않았습니까. 저 적재함에 있는 화물이 래일 생산에 물릴 자재라구요.》

《그건 그렇지만...》

성우는 막내동생벌이나 되는 이 나어린 소조원청년을 새삼스럽게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소조원동무네 공장일때문이라면 몰라두...》

《운전사동무두 참,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어버이로 모신 우리 사회에서 네일내일이 따로 있습니까? 남을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거야 우리의 생활기풍이 아닙니까? 오늘처럼 뜻하지 않은 일로 하여 그 공장 생산이 늦어지면 련관부문인 우리 공장 생산에도 지장이 오게 되고 결국 사회주의건설이 늦어지지요.》



성우의 가슴에 묵직한것이 쿵-하고 마쳐왔다.  
차를 타고 오면서 들려주던 소조원의 말이 흥벽  
을 치며 되살아났다.

《…모든 일이 처음엔 작은것으로부터 시작된  
답니다.》

그렇다. 오늘밤의 일은 결코 큰것이 아니다.  
그러나 바로 이 작은것을 하나 둘 놓쳤기때문에  
화제에 올랐던 그 나라 사람들은 가장 크고도 귀  
중한 인간생활의 참모습을 잃게 된것이 아닌가.

그러고보면 이 생면부지의 소조원청년이 성  
우를 위하여 수십리 눈길을 되돌아온것은 바로  
사소한것도 우리의 생활에서 놓칠수 없기때문이  
리라.

이밤 성우의 경우처럼 이런저런 사정으로 한  
번, 두번 걸음을 늦추거나 스쳐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모든 실패와 좌절은 작고 사소한것으로부터  
시작되는것이다.

…성우는 소조원과 함께 기관실덮개를 열었  
다. 이제는 래일 아침의 걱정을 안해도 되었다.  
그는 일손을 묵묵히 거들어주는 소조원의 애리나  
는 얼굴을 선망어린 눈길로 훑쳐보았다.

(고맙소. 3대혁명전위!)

이윽고 고개길에서는 자동차의 발동소리가  
《부르릉-》하고 힘차게 울리었다.

## 량심에 대한 생각

문성락

량심은  
누구나 손으로 만져볼수도 없고  
눈에 띄이지도 않아  
어찌보면  
자기만이 알수있는 마음속의  
보석

그것을 간직하면  
인생의 더없는 재부  
천금은 버려도  
량심은 팔지 못하는것

량심은  
그대로 인간  
버리면 속물이 되고

인간밖에 던져진 한갓 쓰레기  
  
량심은  
영예보다 값높은것  
지키면  
훈장보다 더 빛나는것

지나간 력사의 갈피에  
량심지켜 애국하고  
량심버려 매국한 두길 있었음을

그러기에  
오늘에 내 걷는 한걸음 한걸음  
에도  
당을 위해 바치는

량심의 무게 실리더라  
  
생사의 갈림길에서  
량심 팔면 제몸은 살린다해도  
그 한순간의 배신때문에  
정치적생명은 끝나는것이거니

신념의 자오선에  
량심의 지북침 올려놓고  
걸음걸음 충성으로 꽃피워감이  
참인간의 가장 숭고한 삶이더라  
충신과 효자의 빛나는 모습이  
더라

## 아들

홍철령

순녀의 집에 웬 군관이 찾아왔다. 거울진 체구에 용모가 잘 생긴 상위였다.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거수경례를 깎듯이 하는 그 젊은이의 모습을 어디선가 본듯하여 순녀는 잔주름이 가기 시작한 눈귀를 찡프리었다.

《저… 혹시 김홍묵이라는 분을 기억하십니까?》

상위는 상냥하게 웃으며 묻는것이였다.

《김홍묵?》

《예, 어머니가 전쟁 때 벽계촌 〈빨래터집〉에서…》

《아! …》

순녀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울리며 두눈에 환희의 빛을 반짝이였다.

《알지요, 알아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분과는 어떻게 되시요?》

《제가 아들입니다.》

《이런 반가울데라구야. 어서, 어서 들어와요.》

순녀는 무작정 젊은 군관을 방으로 잡아끌었다. 《이러지 마십시오. 전 곧 가야 합니다. 그제 아버지가 잘 있는가를 알아보라고 하길래…》

《아니, 어딜 간다구? 안돼요, 안돼.》

순녀는 젊은이가 당장이라도 돌아설것만 같아 몸을 꺾듯이 세우며 와락 그의 팔소매를 끄당겼다.

군관은 할수없이 방에 끌려들어왔다.

(신통히 아버지를 닮았군. 글썄 낮이 익다했더니…)

순녀는 감회가 새로운듯 러과담배에 불을 붙여 무는 젊은 군관의 얼굴에서 어린시절에 본 잊을수 없는 모습들을 더듬었다. 그윽한 눈동자속에서는 어느새 추억의 쪽배가 넘실거리고있었다.

불현듯 준엄한 그날 순녀의 어머니가 벽계촌의 적동산마루에서 부르짖던 목소리가 다시금 귀전을 쟁쟁 울리는듯싶다.

《어쩌면, 어쩌면 그렇게두 빨리 가누… 가지 말아야 할 젊은이들이 그렇게 다 가버리면 이 어미들은 속이 타서 어떻게 사나?…》

타래치는 불구름, 요란한 폭음, 귀전을 스치던 파편소리, 돌가루섞인 화약냄새…

그것은 바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금방 시작되던 어느날에 있는 일이였다.

순녀가 어릴적 살던 마을은 벽계촌이라는 자그마한 농촌마을이였다. 이 마을앞을 에돌아 벽계강이라는 폭은 넓지 않으나 물살이 대단히 빠른 강이 굽이쳐흐르고있었다. 강을 사이에 두고 순녀네 마을과 면소재지가 마주하고있었는데 물살때문에 배로는 건너다닐수 없어 작은 다리 하나가 두 마을의 교통을 유일하게 련결시켜주었다.

군사지도에도 표식되지 않은 이 작은 다리가 준엄한 그날에는 수천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중요전략지점으로 될줄은 누구도 몰랐었다.

남으로 진군하던 인민군병사들이 도보로 혹은 차를 타고 씩씩하게 지나가던 이 다리가 이제는 북상하는 인민군대오의 주력을 엄호하는 최종방어지점으로 선정되였다. 한개 소대가 여기에 머물러있다가 적들이 다가오면 다리를 폭파할 임무를 받았다.

김홍묵은 바로 이 소대의 1 분대장이며 선동원이였다. 거울진 체구에 넘죽한 코를 인상깊게 찡긋거리며 《맘 놓으시라요. 우리 군대는 인차 돌아섭니다.》 하면서 마을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 일으키던 구레나룻의 중사…

소대지휘부는 마을에서 《빨래터집》이라고 불리우던 강기슭의 순녀네 집이였다.

전선은 코앞에 다가왔다. 면소재지 저쪽에서도 전투가 붙었는지 총소리가 자지러지게 울렸고 눈먼 포탄이 마을어귀에 떨어져 파편을 사방 췌뿌리였다.

순녀의 어머니는 시간이 흐를수록 안절부절하였다. 전날밤에 강건너 외가집에 심부름을 간 딸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때문이었다.

마을사람들은 모두 떠나갔다. 남은 사람은 홍묵이네 소대와 순녀 어머니뿐이다. 마감까지 식사를 보장해주어야 했던것이다. 물론 모든 전사들이 어제 아침에 떠나라고 했던만 어머니의 심정으로서 자식같은 그네들에게 가마뚜껑까지 만지게 할수 없었다.

(이애가 어쩌된 일일까?…)

부엌문밖으로 다리 저쪽을 건너보며 아궁이에 나무를 집어넣는데 홍묵이 불쑥 뛰어들었다.

《어머니, 나 몰춤…》

그사이 소대군인들과 혈육처럼 가까워진 어머니에게 홍목은 이렇게 청했다. 한바가지의 물을 꿀꺽꿀꺽 들이키는 그를 향해 어머니는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임자, 이제 한시간후에 저 다리를 없애버린다는게 정말인가?》

홍목은 그제서야 물을 소리나게 삼키고 눈이 둥그래서 이쪽을 쳐다보았다.

《순녀때문에 그러시우?!》

어머니는 아무리 내색하지 않으려 해도 그의 눈길을 피할수 없었다.

《그렇네.》

그러자 홍목은 잠시 생각하더니 어깨에 멘 파발총을 추스르며 문밖을 나섰다.

《걱정마시라요. 우리가 있잖습니까.》

그는 벌췌 웃으며 제 가슴팍을 두드려보이고는 다리목으로 사라졌다.

《짱-》

건너마루에 적의 포탄이 날아와 떨어지더니 강기슭에 앉아있던 집한채가 기둥채 휩 날아나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집에서 순녀를 더이상 기다릴수 없었다. 칼칼하게 생긴 대학생출신의 소대장이 엄격하면서도 짝막하게 말했던것이다.

《여긴 이제부터 쏘구역입니다. 빨리 적동산으로 가십시오.》

하여 어머니는 마감으로 후퇴길에 오른 리간부들과 함께 대피지점인 적동산마루로 향하였다.

순녀는 그때로부터 약 반시간후에 나타났다. 커다랗게 부풀은 흰 야영배낭을 메고 땀을 뻘뻘 흘리며 몇몇 사람들과 저쪽 다리목으로 줄달음쳐 오는것을 제일먼저 발견한 홍목은 너무나도 반가와 은폐해있던 참호우로 상반신을 쑥 내밀었다.

《순녀야!》

순녀도 그를 알아보고 짱충짱충 뛰어오며 소리쳤다.

《아저씨!》

이때였다. 적포탄이 연방 날아와 다리가까이에 떨어져 커다란 물기둥을 말아올렸다.

《엎드렷!》

소대장은 짹 소리를 지르고 나는듯이 참호를 차면서 넘어갔다. 그리고는 순녀를 그리안고 몸으로 덮으며 엎드렸다.

적포탄은 다리주변에 물방으로 터지기 시작했다. 소대장을 따라 참호를 넘어서던 홍목은 《영?》하고 입을 크게 벌리었다. 강건너 면소재지 마을어귀에 땅크들을 앞세운 시퍼런 군복들이 개미새끼처럼 우글거리지 않는가.

《소대장동지! 적입니다.》

엎드린채로 뒤를 돌아보던 소대장은 사람들에게 《날 따르시오.》 하고는 쏘살같이 다리를 건너왔다.

사람들이 모두 참호에 들어서자 그는 홍목을 보며 소리쳤다.

《꼭파하십시오.》

홍목은 꼭파스위치를 돌렸다. 침묵, 침묵…

《뭘하는가?》

《선이 끊어졌습니다.》

나어린 전사가 포탄세례를 맞은 다리 란간에 눈길을 준채 시꺼멓게 죽은 얼굴을 하고있다.

《제길…》

홍목은 꼭약구레미를 안고 몸을 움쭉 일으켰다. 어느새 다가온 소대장이 그에게서 꼭약을 빼앗았다.

《동무는 순녀네랑 대피지점으로 오르시오.》

홍목은 황황히 그의 팔소매를 붙들었다.

《소대장동지, 꼭파수는 접니다. 제가…》

소대장은 다시 칼칼한 인상을 하고 맵싸게 웨쳤다.

《이건 뭐요. 명령이요.》

한사람이라도 다치게 했다간 군사재판에 넘기겠다는 소대장의 뒤말을 억한 심정으로 받으며 순녀네를 이끌고 적동산마루에 올랐을 때 벽계다리에서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불기둥이 하늘로 솟구쳤다. 다리는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소대장동지!-》

홍목은 으스스하게 틀어진 주먹으로 옆의 로송을 내리치며 피타게 소리쳤다....

평시에는 그렇게도 인정이 많고 사근사근하던 사람, 하지만 전투임무수행에서는 추호의 융화목파를 모르던 소대장이 없다는것을 안 순녀의 어머니는 몸을 비칠하였다. 남은 한개의 주먹밥이 손에서 툭 떨어져 이슬이 반짝이는 풀숲우로 굴러갔다.

녀인은 몸을 다시한번 소스라치더니 다리목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어머니!》

홍목은 울먹이며 부리나케 어머니를 앞질렀다.

《이걸 놓으라구... 어째서 그 사람은 못왔다. 영?... 왜?...》

녀인은 짹 붙잡힌 팔목을 빼내려고 애쓰며 목갈린 소리를 터치었다.

《웁니다. 와요... 온다지 않습니다.》

홍목은 눈가에서 밤알같은 눈물방울이 뿌르르-굴러내리는것도 모르고 코멘소리를 내었다.

《이 사람 소대장!...》

그만에야 어머니는 홍목의 드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흑흑 어깨를 세차게 들먹이였다.

《어쩌면, 어쩌면 그렇게두 빨리 가누... 가지 말아야 할 젊은이들이 그렇게 다 가버리면 이 어미들은 속이 타서 어떻게 사나?...》

너인은 두주먹으로 홍목의 가슴을 쿵쿵 내리치며 피타게 소리쳤다.

가까스로 울음소리를 참아오던 소대의 남은 병사들이 어머니에게로 와락와락 뛰어들며 한껏 오열을 더뜨렸다.

《어머니-》

《오냐, 내 아들들아-》

아침노을이 비낀 산마루에서 어머니와 병사들은 오래도록 군상처럼 서있었다.

씩 후날에야 순녀는 그때 소대병사들이 바로 자기와 몇몇 사람을 위해서 인민군련합부대의 철수를 보장한후 곧 폭파해도 될 다리를 지켜 목숨바쳐 싸웠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인연으로 해서 전쟁이 끝난후 세월은 흘렀어도 순녀네와 김홍목이네 사이는 친혈육처럼 자별하였다. 어머니는 눈감을 때까지도 홍목이와 소대병사들을 잊지 못해하였다. 그런데 오늘은 홍목의 아들이 이렇듯 장성하여 순녀앞에 나타나니 그 반가움이란 말해서 무엇하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몸소 발기하시고 진두지휘하시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건설장에서 일한다고 하니 춤을 출듯 기뻐다.

그후 순녀는 짚만 생기면 홍목의 아들이 책임지고 일하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건설장 《승리다리》 구획으로 찾아가곤하였다.

세상은 넓고도 좁다더니 거기에서 순녀는 또한 사람의 은인을 만나게 되었다. 바로 그 중대애 자기 아들을 구원해준 신수철이라는 분대장이 있을줄이야...

순녀에게는 명진이라는 외아들이 있었다.

외아들을 사랑하는 그의 모성애는 지나치랄 정도로 지극하였다.

명진이가 여섯살때 하루는 유치원에 갔다와서 난데없이 떼질을 쓰기 시작했다.

《엄마, 나 《해군사즈》 해달라 흥-》

한반에 있는 동무애가 해군사즈처럼 옷을 해입고와서 자랑하더라는것이다.

래일 해주마고 겨우 얼리워 잠을 재운 순녀는 아직도 눈귀에 눈물방울이 가랑가랑한 아들의 숨소리를 듣고있다가 움쭉 몸을 일으켰다. 다음날이 아니라 밤중으로 옷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그는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다음날 아침 눈을 비비며 포시시 일어나있던 명진이가 베개옆에 맵시있게 개여진 《해군사즈》를 붙어안고 좋아라 어쩔줄 모를 때의 기쁨이란 이루 형언할수 없는것이였다.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의 기쁨과 행복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가.

명진이가 소년단에 들어 첫 소년단표창장을 집에 가져왔을 때 순녀는 액틀에 정히 넣어 벽에 걸어놓고는 밤새껏 그애의 미래를 축복했었다.

그런데 순녀의 이 사랑동이, 자랑동이에게 뜻밖에도 불행이 닥쳐들줄이야...

몇달전 순녀가 퇴근하여 전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였다. 다급히 문이 열리더니 명진네또래들이 헐썩거리면서 이구동성으로 웨쳐대는것이였다.

《명진이 어머니, 명진이가... 얼음구멍에 빠졌어요.》

《뭐, 뭐라구?》

순녀는 너무나도 아연하여 숨이 꺾 막히였다.

《구급차가 금방 병원에 실어갔어요.》

애들이 한동안 뭐라고 떠들어서야 그는 정신을 차리고 숨옷도 걸칠새 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직 얼음이 채 굳어지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애한테 왜 주의를 안주었을까. 스케트를 감추었어야 하는건데...)

순녀는 소생실에서 산소호흡기의 호수를 입에 문채 누워있는 아들을 보자 또다시 눈앞이 아찔해서 풀썩 주저앉았다.

하지만 명진은 제때에 손을 썼기때문에 아무런 후과도 없이 소생되었다.

옆에 모여섰던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명진이가 보통강에서 스케트를 타다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얼음구멍에 빠졌다는것, 그것을 지나가던 어떤 군인이 용감하게 뛰어들어 건져냈다는것, 그가 구급차를 불렀다는것 등을 알게 되었다.

《그 군인동무가 어느 부대 누구랍니까?》

순녀는 그제야 생각난듯 다그쳐 물었다.

《글쎄, 중사견장을 달았는데... 소속부대와 이름은 끝내 못알아냈수다. 싱글뿔뿔 웃기만 하더니 어느결에 달아나버렸소그려.》

나이지숙한 담당의사가 맹랑한 표정을 짓고 입을 찻찻 다시였다.

순녀는 그 고마운 군인을 찾아내려고 온 시내를 몇달째 살살이 훑었다. 허사였다.

그런데 명진이가 그의 동무들이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건설장에 예술소조공연을 나갔다가 우연하게도 그 중사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다.

지휘부에서 지명된 모범전투원에게 꽃다발을 안기러 나가던 한 학생이 갑자기 《명진아! 이 형님이다. 너를 얼음구멍에서 구원한...》하고 발을 동동 구르자 건설장에서는 극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감동과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생활의 화폭이였다.

알고보니 순녀가 매일처럼 다니는 《승리다리》 구획에서 일하는 김홍목의 아들이 지휘하는 중대 1 소대 3 분대장이라는것이다.

《다시 말해라. 이름이 뭐라구?》

《신수철 ...》

아들의 또박또박한 목소리를 뒤전에 남기고 순녀는 부리나케 건설장으로 향하였다. 등잔밑이 어둡다고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가? 곰곰히 생각해보면 그 수철이란 이름도 귀에 익었다. 그만큼 중대병사들과 가까와진 순녀였다.

하지만 그 시각에는 김홍목의 아들에 대한 섭섭함과 불만감이 꾸역꾸역 머리를 쳐들었다.

일전에도 순녀가 그를 보고 자기의 안타까움을 하소연하자 《어디 그런 병사들이 한둘이라구요. 그런 상황이면 우리 동무들은 누구나 얼음속에서 숨없이 뛰어들겁니다.》라고 대수롭지 않아했다. 공연히 헛수고를 한다는것이다.

지금에 와서 그 말을 상기하면 야속하다 못해 패씹하였다. 아무리 우리 사회에서의 레사로운 일이기로서니 내속을 그렇게 강건너 불보듯해야 웅단말인가?

중대장한테 귀먹은 욕을 줄곧 퍼부으며 종종 걸음을 놓던 그는 빠스정류소를 눈앞에 두고 걸음을 멈추었다. 막상 떠나고보니 마음 한구석으로 스며들던 허전감이 급기야 발목을 붙잡았던것이다.

(어떻게 빈손으로 간단 말인가?…)

순녀는 집쪽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렸다. 그가 령동기에서 소고기를 있는대로 꺼내여 성의껏 음식을 장만하고 문밖을 나서니 다섯점을 치는 벽시계소리가 들려왔다.

국통을 들고 음식보따리를 이고 중대에 들어서니 병사들이 저저마다 반기여 맞이했다.

《누가 신수철인가?》

순녀가 흥분을 가까스로 누르며 누구라없이 병사들을 돌아보는데 국통을 받아든 중사가 고개를 쳐들었다.

《예, 접니다. 어머니.》

불편에 푸르푸르 면도자리가 나고 습관적으로 눈을 깜벅거리는 순박한 얼굴이 점점 뿌연게 안겨왔다.

《이사람아! …》

순녀는 입술을 떨며 채 말끝을 못맺고 그의 너부죽한 등을 자꾸 어루만지었다. 만나면 이 세상의 고맙다는 말을 다하리라 했던만 목이 막히여 입을 열수가 없었다.

…잠시후에 순녀는 군인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준비해온 집을 풀기 시작했다. 급하게 서두르며 마련한 음식이지만 워낙 다심한 손길이 미친것들이라 병사들의 구미를 돋구기에는 충분하였다.

《이거 변변치 못한것들인데… 어찌됐나, 성의로 알구 어서들 들라구.》

그의 웅색스러워하는 표정을 뜨거운 눈길로 바라보던 한 병사가 그의 손을 다정히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이런걸 뭘다!… 공연한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기국을 못먹습니까, 떡을 못먹습니까. 동해에서 금방 건져낸 펄떡펄떡 뛰는 생선두 있습니다.》

그러자 신수철이 국통을 넉넉 식탁우에 올려놓으며 싱글벙글 웃었다.

《여, 여… 동문 알지도 못하면서… 물론 우리야 매끼 푸짐하게 먹지. 하지만 어머니의 정성이 고인 이 음식에 비기겠나. 자자, 어서 들자구.》

병사들은 우르르 식탁에 마주앉았다. 그리고는 제마끔 음식그릇들에 손을 가져갔다. 어찌도 천진란만한지 부지중 순녀의 입가에는 어머니만이 느낄수 있는 행복의 미소가 피어났다.

더욱 기쁜것은 신수철분대장이 자기가 끓여온 소고기국을 더없이 맛나게 먹는것이였다. 군복상의단추를 다 풀어헤치고 땀을 뻘뻘 흘리며 더운 국을 들이키는 모습은 어찌보면 자기아들 명진이와 흡사했다.

자기네들의 식사하는 거동을 바라보며 시름없이 웃고있는 순녀에게 신수철은 덧국을 한그릇 더 청하였다.

《자네 소고기국이 그렇게 좋은가?》

순녀가 환하게 웃으며 국자를 집어들자 그는 제손으로 국을 퍼담으며 벌썬 웃었다.

《그럼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소고기국을 이처럼 맛있게 끓여주곤했습니다. 하하…》

순녀는 더없이 기뻐다. 소고기국을 끓여오기를 잘했다고 속으로 몇번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하였다.

《국을 좋아하면 궁량이 커진다고 하더니 임자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였구만… 그럼 내 매일이라도 소고기국을 끓여오지.》

순녀는 그날부터 퇴근후에는 《승리다리》건설장으로 더 일찍 달려가곤했다. 군인들의 일손을 거들기도 하고 그들의 주머니에 간식도 찢려주는 재미에 시간가는줄 몰랐다. 돌아올 때면 군인들의 숙소에 들려 밀린 빨래감이나 바느질감을 들추어내여 가져왔다.

오늘도 그는 수철분대장이 좋아하는 소고기국을 푸짐하게 끓여가지고 집을 나섰다. 땀을 뻘뻘 흘리며 맛나게 먹는 그 인상이 사랑스러워 발걸음은 날듯이 가벼웠다. 중대군인들 모두가 하나와 같이 끝끝하고 미더운 젊은이들이였다.

(오늘은 무슨 일로 그들을 기쁘게 해줄가?)

행복한 공상에 잠겨 걷느라고 어느새 자기가 《승리다리》건설장어귀에 들어선것도 몰랐다.

《어머니!》하는 소리에 고개를 쳐든 순녀의 눈가에 반가운 빛이 확 피어났다. 레의 그 홍목의 아들-수철의 중대장이 마주오면서 싱글벙글 웃고있었다.

그는 순녀의 손에서 국통을 받아들고 먼저 병실로 향하였다.

《이제 좀 있으면 작업이 끝납니다. 들어가서 기다리지요 뭐.》

병실에 들어서자 중대장은 걸상에다 방석을 얹어놓고 순녀의 손을 잡아끌었다.

《국이 식기전에 들어들어야겠는데.》

순녀는 국통에 썩은 비닐보자기를 퐁퐁 여미며 연신 땀을 내다보았다.

《무슨 국을 이렇게 두통씩이나… 우리가 고기국을 못먹어서요.》

《그래두 내 손으로 끓여오면 더 맛있더군… 수철분대장은 소고기국을 좋아해.》

《예?…》

중대장은 눈이 화등잔만 해서 국통과 순녀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수철동무가 소고기국을 그렇게 잘 먹습니까?》

《그럼.》

중대장은 머리를 기웃거리다 담배를 붙여물었다.

《모를 소리다-》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며 담배연기를 후- 내뿜는 중대장의 거동이 이상하여 순녀는 눈을 습벅이였다.

《왜 그러나?》

한동안 말없이 담배를 태우는 중대장은 그만 《하하》하고 웃음을 터뜨리였다. 그바람에 거울진 체구에 놀리워있던 장의자가 몹시 뼈걱거렸다. 이윽하여 그는 순녀의 손을 다정히 부여잡으며 웃음이 가라앉지 않은 어조로 말했다.

《어머니, 그 동문 네발가진 고기를 못먹습니다. 그걸 조금이라도 입에 대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돌지요.》

《에그머니! ...》

순녀는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가슴속에서 무엇인가 툭-하고 떨어지는 감을 느끼며 눈앞이 아찔했다.

(수철이가 소고기를 못먹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는 땀을 뻘뻘 흘리며 목깃단추를 열어놓은채 소고기국을 맛나게 먹던 그날의 수철이가 떠올랐다.

《아니 그럼, 그뎐...》

순녀는 도무지 리해가 되질 않아 중대장을 얼며름히 바라보며 입귀를 실룩이였다.

《그럴수 있습니다.》

중대장은 조용히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다시 순녀의 손을 다정히 잡으며 말을 잇는다.

《그때는 어머니의 그 지성이 너무도 값진것이여서 수철동무가 섭섭치 않게 해드리려구 그렇게 보란듯이 곱배기를 했을겁니다.》

순녀는 두손을 마주잡고 입을 향 벌렸다. 명치끝을 아프게 달구며 가슴이 쿵당쿵당 뛰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그 기쁨이 수철동무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귀한것이기에 입에 대지도 않던 소고기국도 맛있었을겁니다.》

불시에 순녀의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새어나온다.

《수철아!》

얼마나 마음들이 비단결같은 우리 군대인가! 아들의 생명을 구원하고자도 누구에게도 그런 티를 내지 않은 수철이. 오히려 이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려고 입에 대지도 않던 소고기국을 맛나게 들던 인민군병사...

순녀는 몽클 젖어드는 가슴을 달래일길 없어 문을 열고나섰다.

《승리다리》건설장은 저녁어둠이 깃들지 못하고 여전히 불도가니마냥 뿜어번지였다.

마감고비에서 다그쳐지는 다리란간이며 지지대들에서 용접불꽃이 꽃보라처럼 훑날리고 대낮처럼 밝은 작업등 밑에서 병사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콩크리트타임을 마무리하고있었다. 다리입구에서 정력적으로 다짐기를 휘두르던 병사가 허리를 펴고 무엇이라고 웨친다. 수철이였다. 여기저기서 호응하는 병사들 병사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말자!》라는 대형구호판도 힘찬 숨을 내쉬며 살아 움직이는것 같았다.

불현듯 순녀의 눈앞에는 어제날의 잊지 못할 모습들이 우렁이 떠올랐다.

《명령이요!》

이 한마디를 남기고 폭약꾸레미를 안은채 적탄이 우박치는 다리복판으로 뛰어들던 소대장! 어머니에게로 와락와락 뛰어들며 한껏 오열을 터치던 준엄한 그날의 소대원들...

(아, 나는 왜 어제날의 그 병사들처럼 뜨거운 심장을 지닌 저 수철이네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까?! ...)

어제날에는 자기의 생명을 목숨바쳐 구원하고 오늘은 내 아들을 얼음구멍에서 건져주기도 이 세상 어머니들의 마음에 구김살이 갈가봐 그렇게도 원심을 쓰는 우리의 인민군대! 그들은 순간순간을 위훈으로 수놓아가면서도 자기를 나타낼줄 모르는 이 나라의 아들들이였다. 이런 훌륭한 아들들을 거느린 어머니조국은 얼마나 위대한가!

《어머니!》

저쪽에서 수철이가 순녀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 어땀다. 마침 작업이 끝났는지 중대의 모든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이쪽으로 달려온다.

《그때 그뎐. 나도 자네들의 어머니가 되겠네, 친어머니가 되려네...》

순녀는 울컥 솟구치는 감정을 이렇게 속으로 터치며 그들을 마중했다.

단순히 신세값을 하는 수수한 아낙네가 아니라 저네들과 피도 숨결도 함께 나누어 심장을 불태우는 훌륭한 어머니가 되자. 전화의 그날 적동산마루에 군상처럼 새겨진 모습들을 잊지 말자. 영원히...

순녀는 세차게 들먹이는 가슴을 쑥 내밀며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를 터치였다.

《오냐, 내 아들들아!》

수철이네들은 점점 눈앞에 다가온다. 순녀는 그들을 자기품에 다 안으려는듯 두팔을 한껏 벌리였다.

# 이 봄날 그대는 오네 외 1편

문동식

달을 이어 해를 이어 기다리며  
기다리며 때로는 밤잠도 잊고  
기다리며 때로는 밥술도 놓으며  
먼 남쪽 하늘가에 눈길을 엮고  
이 땅의 마음들 입술 깨물었  
더니

신록이 무성하는 여름도 아니고  
단풍이 불타는 가을도 아닌  
계절

새싹이 뻗죽뻗죽 움트는 봄날에  
아, 우리의 영웅 리인모동지  
어머니조국의 품으로 돌아오네

검은머리 날리며 떠났던 그길로  
백발을 날리며 그대 돌아와서  
펄펄하게 떠나가던 그 걸음

하얀 구급차에 실려 돌아와서  
누구나 뜨거운 눈물을 뿌리건만

오, 리인모동지여  
그대는 오네 화창한 이 봄날  
관문점에서 여기 평양까지  
떨쳐나선 수백만 사람들의 마  
음속에  
신념과 의지의 씨앗을 뿌리며

그대는 오네 이 봄날  
대지의 이랑을 갈아번지고  
씨앗을 뿌리는 농부와 다름없이  
그대를 맞이하는 감격과 기쁨에  
한껏 부풀어 설레이는 가슴들에  
통일애국의 씨앗을 뿌리고 뿌  
리며

그대 뿌리는  
불에도 타지 않고 얼음에도  
얼지 않는  
그 불굴의 씨앗과 씨앗들이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움터서  
이제 수천수만의 애국의 화신  
숲처럼 이 땅에 자라나려니

오, 리인모동지여 그대는 가리  
그 무성하는 숲속을  
불사조의 날개를 활짝 펴고  
그대는 가리

이 땅에 흐르는 세월의 끝까지  
신념과 의지의 씨앗을 뿌리며...

## 당신의 손을 놓을수 없소

-리인모동지를 대신하여-

기나긴 옥중세월  
내 어느 한시도 잊은적이 없었소  
신혼생활의 꽃다운 그 시절  
당신과 함께 즐겨 거닐던  
동해바다가의 은빛 모래불을

은실금실 달빛이 어린  
파도는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시원한 해풍에 치마자락 날리면  
당신이 어데론가 날아갈듯싶어  
그런 때면 나는 이 손을 꼭 잡  
았소

**김일성**장군님 세워주신 새 조선  
하늘도 푸르고 땅도 푸르러  
그 어데 덩굴어도 아늑하고  
포근해  
가시없고 서리없는 우리 세상에  
우리 사랑 꿀처럼 부어가자고  
나는 당신 손을 놓지 않았댔소

그날에 잡았던 당신의 이 손에  
나는 언제 한번 놓은적이 없  
었소  
당신과 떨어져 40 여년 세월

나는 마음속에 이 손을 꼭 잡고  
불길, 철창길 천만고비 넘어왔소

당신 손만 놓으면  
장군님 사랑의 해빛을 잃을것  
만 같아  
당신 손만 놓으면 이 아들 바  
래주던  
어머니와 정든 고향산천 다  
잃고  
세상밖에 쫓겨날 이몸이어서

그래서 순임이  
나는 자나깨나 당신 손을 잡  
고왔소  
동굴같이 캄캄한 그 철창속  
고독과 절망에 몸부림칠 때도  
나는 마음속에 이 손을 꼭 잡고  
숨막히는 연기속을 숨쉬며 왔소

그렇게 오는 길에 쉬임없이  
오는 길에  
오늘 나는 드디어 당신을 만  
났소  
여기 관문점 통일각에서

갈라졌던 혈육의 피줄을 이었소

아, 순임이  
이제는 보이오 내 눈앞에 가까이  
나와 당신이 손잡은것처럼  
북과 남의 우리 혈육 갈라진  
피줄 잇고  
우리처럼 이렇게 잡은 손을  
못놓고  
눈물속에 범벅될 통일의 그날이

그날이 안겨와서  
그날의 진동하는 환호성이 들려와서  
오늘에야 진정 오늘에야  
내 머리 흰눈이 다 녹아내리오  
젊은날 모래불을 웃으며 거닐던  
그밤의 그 젊음 나는 다 찾았소  
그날의 우리 사랑 나는 다 찾았소

그래서 나는 당신손을 놓지  
못하오  
북과 남이 피줄을 이은 모습  
북과 남이 사랑을 찾은 모습  
온 세상이 다 보라고  
나는 당신 손을 놓을수 없소

## 분 단 절

리재무(남조선)

팔월 십오일 오늘은 우리모두  
가슴속 켜켜이 쌓인 먼지 털고  
빈 손 빈 마음으로  
지나간 40 여년 되돌아보아야 할 날  
해방 아니라 뼈아픈 분단 뼈아픈 구속  
압제 설음 증오…… 가져온 날이니  
오늘은 우리모두 하늘을 우러러  
사죄하고 아프게 무릎 꿇어야 할 날  
사립마다의 기발도  
동편바람 불면 좌로 고개 돌려  
서편바람 불면 우로 고개 돌려  
아니라고 아니라고 지금은 이렇게  
세월 좋은 몸으로  
나뭇길 때가 아니라고  
부정의 몸짓 흔들고 흔들어댄다  
팔월 십오일 오늘은 우리모두  
분단이후 더러워진 몸  
뒹아내고 씻어낸후  
  
신령님께 하나님께 부처님께  
이 땅의 하나됨을 위하여  
충심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내용 진실로 진실로  
실천할것을  
다짐 결단하여야 할 날

나들이에 바쁜 사람들아 바캉스에 들뜬 사람들아  
무슨무슨 똑딱똑딱 두드려  
끼리끼리 알속 채우는 지체높은 량반들아  
농부야 노동자야 학생들아  
팔월 십오일 오늘은 우리모두  
어제까지의 욕심 모두모두 비워내고  
빈 마음 빈 손으로

약속의 첫발 내디더야 할 날  
축제다 경축이다 해방이다 뭐다  
그 헛것 모두 집어치우고  
혈육의 끈 이어주고

동강난 논밭의 상처 아물게 한후  
남남북녀 혼사도 맺고  
평양택 광주택 사돈이 되고

되고되고 또 되여야 할  
그날 그리며  
통일의 나무밑

깊숙이 거름 듬뿍 주어야 할 날  
아프게 아프게 울어야 할 바로  
분단절이다 사람들아